

자기를 바로 보는 거울

# 고경

2569(2025). 2. 제142호



- 자기를 바로 봅시다.
- 남을 위해 기도합시다.
- 남 모르게 남을 도웁시다.

성철스님께서 늘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굳이 ‘뱀의 발(蛇足)’을 붙이자면 “자기를 바로 봅시다”는 반야지혜로 공성空性을 깨달아 ‘존재의 참 모습[實相]’을 확실하게 체득하는 것입니다. 지혜에 해당되고 자기를 이롭게 하는 자리自利입니다. “남을 위해 기도합시다”와 “남 모르게 남을 도웁시다”는 남을 해치는 것이 나를 해치는 것이고 남을 돕는 것이 나를 돕는 것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는 방편에 해당되고 자기 이외의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는 이타利他입니다. 지혜 없는 방편은 샅되기 쉽고 방편 없는 지혜는 날카로우나 무미건조해 자기와 타인을 그다지 이롭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보살은 지혜와 방편으로 윤회와 열반에도 집착하지 않고 단견斷見과 상견常見에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자리와 이타를 실천하고 지혜와 방편으로 무주열반無住涅槃을 실현하는 것이 『고경』의 목표입니다. 古鏡

## 古鏡

**고경古鏡**이라는 말은 ‘본래 갖추고 있는 지혜[本智本明]’를 뜻합니다. 『벽암록』 제28칙 「송 평창彌評峯에 관한 구절이 있습니다. “**備等諸人, 各有一面古鏡, 森羅萬象, 長短方圓, 一一於中顯現. 備若去長短處會, 卒摸索不著**[여러분 각자는 하나의 옛 거울을 가지고 있다. 삼라만상의 길고 짧고 모나고 둥근 것이 모두 거울 속에 비친다. 그대들이 만약 (거울에 비친 영상을) 찾아가 길고 짧은 곳을 알려 하면 결국 (그 거울을) 찾을 수 없다.]” 『사가어록·동산록』 「감변·시중」(선림고경총서 제14권 『조동록』, p.83)과 『설봉록』 하권(선림고경총서 제19권, p.134-137)에도 ‘고경’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을사년**  
(불기 2569년)

## 해인사 백련암 행사 일정



해인사 백련암  
(전화) 055.932.7300

농협 843174 51 013873  
(예금주) 해인사 백련암

### 정기 아비라기도

- ☎ 2월 1일(토, 음 1월 4일)      ⤴ 2월 4일(화, 음 1월 7일)
- ☎ 5월 9일(금, 음 4월 12일)    ⤴ 5월 12일(월, 음 4월 15일)
- ☎ 9월 3일(수, 음 7월 12일)    ⤴ 9월 6일(토, 음 7월 15일)
- ☎ 12월 1일(월, 음 10월 12일)   ⤴ 12월 4일(목, 음 10월 15일)

※입재 오전 10시 30분/ 입재 전날 백련암 도착, 자리 배정 받음

### 성철대종사 단신 113주년 참선법회

- ☎ 입재 : 3월 11일(화, 새벽 3시, 음 2월 12일)
- ☎ 회향 및 기념법회 : 3월 18일(화, 음 2월 19일) 사시공양 회향

### 성철스님문도회 전국 방생 대법회

- ☎ 일시 : 4월 3일(목, 음 3월 6일) 오전 10시 30분
  - ☎ 장소 : 겁외사 대웅전 108배 예참(오전 10시 30분)
  - ☎ 방생 : 경호강변, 방생 후 공양 및 사찰 순례
- ※부산 : 오전 7시 30분 중앙동 고심정사 앞에서 출발

### 성철대종사 열반 32주기 추모 7일7야 참선법회

- ☎ 입재 : 11월 2일(일, 음 9월 13일) 오전 7시
- ☎ 회향 : 11월 9일(일, 음 9월 20일) 오전 7시

### 성철대종사 열반 32주기 추모 4일4야 참회법회

- ☎ 입재 : 11월 5일(수, 음 9월 16일) 오전 7시
- ☎ 회향 : 11월 9일(일, 음 9월 20일) 오전 7시, 고심원

### 성철대종사 열반 32주기 추모제

- ☎ 일시 : 11월 9일(일, 음 9월 20일) 오전 10시
- ☎ 장소 : 해인사 대적광전

### 사리탑 삼천배

- ☎ 일시 : 11월 8일(토, 음 9월 19일) 오전 10시~오후 6시
- ☎ 장소 : 해인사 운양대 성철스님사리탑

### 백련암 백중 백일기도

- ☎ 입재 : 5월 27일(화, 음 5월 1일)
  - ☎ 회향 : 9월 6일(토, 음 7월 15일)
- ※백일 동안 매주 일요일 백중기도가 있습니다.

### ‘초발심을 찾아가는 백련암 철쭉제’

- ☎ 일시 : 5월 17일(토, 음 4월 20일)

### 해인사 백련암 정기법회

- ☎ 매월 초하루 참선법회
- ☎ 매월 넷째 주(월~일) 6박 7일 참선가행정진
- ☎ 매주 토, 일 3000배 참회기도

차례

# 古鏡

자기를 바로 보는 거울

# 고경

월간 『고경』

—  
제142호

—  
2025년 2월 발행  
2013년 5월 창간

- 004 **지혜와 빛의 말씀**\_ 성철스님  
무념이 바른 종지이다
- 012 **성철스님의 미공개 법문**\_ 성철스님  
의상조사 법성계 강설 ②
- 019 **세계불교를 만들어 낸 불교의 바닷길 2**\_ 주강현  
불교전파의 중간 거점 스리비자야 왕국
- 027 **현대문학 속의 불교 2**\_ 김춘식  
석전 박한영과 서정주 그리고 ‘인연’의 사상
- 037 **바위에 새긴 미소 2**\_ 양현모  
삼태리 마애불
- 038 **세계불교는 지금 25·독일 ①**\_ 글·툰텐 잠빠, 번역·운산  
독일에 불법을 펼쳐 온 함부르크불교협회
- 047 **심층 종교의 길을 밝혀준 사람들 2**\_ 오강남  
근대 하시디즘의 창설자 바알 셴 토브
- 054 **작고 아름다운 불교의례 6·조왕신 ②**\_ 구미래  
일상을 함께하는 정겨운 신
- 064 **돈황, 사막이 숨긴 불교미술관 6**\_ 김선희  
돈황 막고굴 석가모니 설법도
- 073 **설산 저편 티베트 불교 26**\_ 김규현  
아득히 멀고 먼 파왕사원
- 082 **불교와 과학 27·상대성이론의 세계 ④**\_ 양형진  
하나의 물체가 온 우주를 바꾼다
- 091 **현대사회와 불교윤리 14**\_ 허남결  
‘공손’과 ‘사秘’의 윤리 ①
- 099 **원철스님의 디카詩 36**\_ 원철  
귀밝이술

- 100 불교로 읽는 서유기 14\_ 강경구  
쌍차령에서 양계산으로
- 110 불교로 읽는 조선왕조실록 14\_ 이종수  
실록에 나타난 요승에 얽힌 내용
- 120 지구를 살리는 사찰음식 26\_ 박성희  
지금 바로 이 순간, 연근 톳밥
- 128 신행 길라잡이 14\_ 일행스님  
원불(願佛), 나를 향상의 길로 이끄는 부처님들
- 137 거연심우소요 52·법주사 ⑦\_ 정종섭  
법주사 부도림에서 만나는 역대 고승들
- 152 붓다·원효·혜능·성철에게 묻고 듣다 14\_ 박태원  
점문과 돈문의 발원지는 12연기

### 한·중·일 삼국의 선禪 이야기

- 162 한국선 이야기 14·한국선의 정립, 보조지눌의 선사상 ①\_ 김방룡  
지눌의 생애와 세 번의 깨달음
- 171 중국선 이야기 47·운문종 ②\_ 김진무  
운문종의 가풍과 일자관
- 180 일본선 이야기 14\_ 원영상  
무소유의 미학을 뿌리내린 간잔 예겐
  
- 190 후원 명단
- 192 후원 신청서

2013년 4월 11일 신고, 신고번호 종로 라00406

『고경』에 실린 글과 사진의 무단전재 및 무단복사를 금합니다.

『고경』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 윤리강령 및 잡지윤리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무념이 바른 종지이다



성철스님 전 대한불교조계종 제 6·7대 종정

“이 법을 요오了悟한 자는 즉시 무념이니 억념憶念과 집착이 없어서 광망誑妄이 일어나지 않고, 자기의 진여본성을 사용하여 지혜로써 관조하여 취하지도 버리지도 않나니, 이것이 견성이며 불도를 성취함이니라.” - 『단경』

## 망념이 모두 사라진 것이 무념

이 내용은 『종경록』에서 육조스님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다. 육조스님께서 전하신 ‘이 법’이란 견성법을 말하며, 일체 망념이 다 떨어진 무심을 곧 무념이라 한다.

“무념법을 요오了悟한 자는 만법에 다 통달하며 제불의 경계를 본다 하였으니, 만약에 무념법문에 정입正入하면 성불이 찰나경刹那頃에 있음을 알겠다. 금강 즉 등각 이하로부터의 일체중생은 개실帛悉 유



사진 1. 1970년 초 백련암 좌선실 앞에서 대중스님들과 함께.

념有念이므로 중생이라 하고, 일체 제불은 전부 무념을 증득하였으므로 불타라 호명呼名한다. - 『종경록』

“오직 견성하는 법만을 전하여, 세상에 출현하여 사종邪宗을 파쇄破碎하노라.” - 『단경』

육조스님께서 분명히 밝히시기를 “견성법만이 올바른 가르침이므로 다른 것은 파괴해 물리친다.” 하였으니, 견성법만이 정설이고 다른 것은 수시방편설隨時方便說이다. 이 말은 허튼 말씀이 아니다. 불법이란 이름으로 추구했던 수많은 배움과 수행들이 견성하고 보니 너무도 어처구니없는 것이었다고 토로한 선사들이 허다하다. 견성법을 바로 알고 나서 다른 교법을 보면 다른 것은 불법이 아니다. 지해도 자비도 아니고 말짱 번뇌망상 부리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 실법이라 할 것은 견성법 하나뿐임을 명심해야 한다. 그러나 “견성법만이 실법이다.” 하는 이런 말도 실제로 눈을 바로 떠 견성하고 나서 할 소리이지 견성하지도 못하고 함부로 떠들 소리는 아니다.

“무無라 함은 하사何事가 없음이며, 염念이라 함은 하물何物을 염念하느고, 무라 함은 상대相對의 이상二相이 없으며 진로塵勞의 망심이 없는 것이요, 염이라 함은 진여의 본성을 염念함이니, 진여는 즉시 염念의 본체요 염念은 즉시 진여의 대용大用이니라.” - 『단경』

무념이라고 하면 흔히 텅 비어 아무 생각도 없는 허무를 연상하는데 그런 편공偏空, 악취공惡取空에 떨어져선 안 된다. 무無라 함은 일체 망념

이 완전히 떨어진 것을 말하고, 염습이라 함은 진연자성의 본체가 나타남을 말한다. 비유하자면 무는 구름이 걷힌 것을 말하고, 염은 해가 환히 비추는 것을 말한다. 구름이 걷히듯 일체 망념이 완전히 제거되면 태양이 밝게 비추듯 자기의 본래 성품인 진여가 저절로 환히 드러난다. 따라서 진여의 정념正念이 무념이지 목적과 같은 것이 아님을 알라.

## 돈오는 일체 망념을 단박에 끊는 것

“어떤 것을 돈오라 하시고, 대답하되 돈頓이라 함은 일체 망념을 단제斷除함이요, 오悟라 함은 오悟에 소득所得이 없음이니라.”

—『돈오요문』

“무념으로 종宗을 삼고, 망념이 일어나지 않음으로 지습를 삼으며, 청정으로 체體를 삼고, 지혜로 용用을 삼는다.”—『돈오요문』

망념이 일어나지 않아야 무념이니 망념이 있으면 무념이랄 수 없다. 또 망념이 여전히 일어난다면 어떻게 청정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 표현은 달리했지만 그 내용은 같은 것이다. 일체 망념이 다 떨어져 청정해지면 지혜는 저절로 드러나기 마련이다. 예를 들면 뽕얇게 얹은 면지를 말끔히 닦아내면 거울의 밝고 투명한 빛이 환히 드러나는 것과 같다.

“무념이라 함은 일체처一切處에 무심함이니, 일체 경계가 없으며 사려思慮, 희구希求가 없다.

모든 경계와 색상色相을 대하여도 영원히 기멸起滅과 동요가 없는



사진 2. 해인사 설경. 사진: 현봉 박우현.



것이 무념이니, 무념은 즉 진여정념眞如正念이다. 만약에 무념인 일체무심一切處無心을 떠나서, 보리해탈과 열반적멸涅槃寂滅과 선정견성禪定見性을 체득하려면 될 수 없다.” - 『돈오요문』

## 망념이 생기지 않음이 선이요, 본성을 봄이 정이다

“망념이 생기지 않음이 선禪이요 정좌正坐하여 본성을 명견明見함이 정定이니, 본성은 여등汝等の 무생심이요, 정定이라 함은 외경外境을 대하여도 무심하여 팔풍八風이 능히 요동하지 못하나니, 이러한 정定을 체득하면 비록 범부이지만은 즉시 불위佛位에 돈입頓入하느니라.” - 『돈오요문』

참다운 선정이란 무심 무념으로써 이익과 손해 등 갖가지 경계에 동요되지 않는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다. 일체망념을 떨쳐 온갖 경계에 흔들리지 않는다면 성불하지 않으려 해도 앓을 수가 없다. 이것이 바로 여래선이다.

“만약에 마음이 일체처에 주착住著하지 않음을 명명료료明明了了하게 알면, 곧 본심을 요료了了하게 본 것이며 또한 본성을 요료하게 본 것이라고 이른다. 이 일체처에 주착住著하지 않는 심心은 즉시 卽是 불심佛心이며 또한 해탈심이요, 보리심 무생심이라고 하나니, 경에 말씀하시기를 무생법인을 증득하였다 함이니라.” - 『돈오요문』

보통 사람들은 꽃을 보면 꽃에 마음이 머물고 사람을 만나면 사람에

마음이 머문다. 이처럼 부딪치는 외경에 마음이 따라가 본래 마음을 잃어버리고 만다. 하지만 견성한 사람은 그렇지 않다. 어떤 경계를 대하더라도 그 경계에 마음이 머물거나 집착하지 않는다. 본성을 분명하게 본 사람은 경계에 동요하지 않고, 또 경계에 동요하지 않아야 성품을 바로 본 것이니, 이를 무생법인을 증득한 것이라 한다. 따라서 앞서 마조스님께서 말씀하신 “성품을 보아 무생법인을 증득한다.” 함은 곧 불지를 증득하는 것이지 보살의 지혜를 얻는 것은 아니다.

만일 제8아뢰야식의 미세망상은 고사하고 제6식의 추중망상도 벗어나지 못한 해오解悟를 견성이라 한다면 이는 부처와 조사의 혜명을 단절하고 중생의 바른 길을 파괴하는 정법의 대역죄인이다. 혹자는 대역죄인이라 하면 너무 심한 표현 아닌가 하겠지만 결코 심한 표현이 아니다. 이단의 사견에 빠져 망견을 불법이라 여기고 남에게 가르친다면 자신도 망치고 남도 망치는 짓이다. 더불어 정법을 파괴해 부처님의 바른 법이 전해질 수 없게 만드는 죄인이 되는 것이니, 어찌 대역죄인이 아니라 하겠는가? 고불고조를 표방으로 삼아 정법을 바로 이어야지, 이단의 잘못된 견해에 떨어져서는 결코 안 된다. 그러니 잡다한 이론에 휩싸여 구구한 입씨름하지 말고, 견성은 성불을 말하고 성불은 곧 견성이라는 고불고조의 확고한 말씀에 의지해 부지런히 공부해야 한다. 卍

- 『성철스님 평석 선문정로』(장경각, 2015)에서 발췌

## 의상조사 법성계 강설 ②



성철스님 전 대한불교조계종 제 6·7대 종정

---

### 무량원겁즉일념無量遠劫卽一念

하나가 전체고, 전체가 하나로 제법이 융통무애하기 때문에 무량한 원겁이 즉 일념이고 일념 이대로가 무량원겁이다 말아야. 이것은 우리가 말짱 얘기한 소리지? 그렇다면 여기 가서는 시간 공간이 절대로 설 수 없는 것이거든. 앞에서 일미진중함시방하는 것은 공간적으로 얘기한 소리야.

시간과 공간이 완전히 해소되고, 시간과 공간이 완전히 융통한 것이야. 결국은 요새 우리 불교의 좋은 점을 가져다가 과학사상 같은 데 비교하는 일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현대 과학사상에 좀 비슷한 게 나오기 때문이거든. 다음에 나도 조금 비교해 볼 거야. 이것도 시간과 공간이 완전히 소멸된 데서, 시간 공간이 완전히 융합한 걸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진 1. 문경 운달산 김용사 전경. 사진: 서재영.

## 구세십세호상즉九世十世互相卽

무량원겁이 일념이 되고 일념一念이 즉시卽是 무량원겁無量遠劫이 되면 자연스럽게 구세십세九世十世가 호상즉互相卽이야. 구세라 하는 것은 삼세 가운데 또 전부 삼세가 다 있으니까 삼삼三三은 구九거든. 차별적인 면 전체를 다 포함한 것입니다.

십세라 하는 것은 전부 포괄하는 측면을 말합니다. 구세까지 전체를 포괄해서 다시 십세라 이렇게 하는 거야. 구세를 가지고 차별적인 면을 표현하고, 포괄적인 면을 십세라 표현하거든. 그런데 그 차별과 전체가 다르지 않다 이것이야. 그래서 차별적 구세와 전체적인 십세, 이것은 호상즉이야. 서로서로 호상을 쳤다 말이야. 구세가 즉 십세이고 십세가 즉 구세이고, 차별이 즉 평등이고 평등이 즉 차별이야. 평등과 차별이 항상 한 덩어리라 얘기하지 않았어요?

## 잉불잡란격별성仍不雜亂隔別成

그렇지만 너무 말짱한 덩어리가 되어 있으면 구분할 수 없어요. 안 그렇겠어요? 사람과 무슨 짐승들을 한덩어리로 만들어 버리면 짐승이고 사람이고 구분할 수 없거든. 그렇지만 법성은 또 각각 다 다르다 이것입니다. 사람은 사람이고 짐승은 짐승입니다. 화엄에서 집을 예로 들어 아까 말 안 했어요? 총總으로 볼 때는 집이라 하지만, 문 앞에 가서 각각 나누어 말하면 집이 아니거든. 총은 총대로, 그리고 그 가운데에 별은 별대로 그대로 있습니다. 또 총이 즉 별이고 별이 즉 총인데. 이것이 잉불잡란격별성입니다.

아까는 자꾸 한덩어리만 얘기했거든. 한덩어리라 자꾸 얘기한다고 밥 먹는 사람이 콧구멍으로 밥 넣으면 안 된다 말이라. 코는 코대로 따로 있고, 또 입은 입대로 따로 있습니다. 밥 먹을 때 코로 밥 집어넣는 사람 없어요. 그것이 격별성隔別性이야. 각각 따로따로, 밥 먹는 입은 입대로, 코는 코대로 따로 있습니다. 일즉일체다즉일, 무량원겁즉일념은 말짱 다 한덩어리라 말하고 차별이 없다고 말해. 그러나 이것은 차별 이대로그가 절대 평등이지만, 또 평등 이대로그가 차별상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한 소리예요.

## 초발심시변정각初發心時便正覺

첫 번째 발심할 때가 누구든지 정각正覺이에요. 초발심시변정각이라는 것은 일체 중생이 최상승 근기라면 바로 막 밀고 나가도 괜찮은데, 많은 중생은 이해하기 곤란하거든.

여기서 말하는 발심이라 하는 것은 정각을 이루는 저 꼭대기, 거기서

말하는 발심인가 아니면 저 밑에서 하는 발심인가 이렇게 나눠서 봐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발심 이것은 전체를 통한 발심이야.

이 발심이라는 것이 어디에 적용이 되느냐 하면 고양이와 쥐 잡을 그때와 같은 것이 초발심이야. 거기에서 초발심을 봐야 된다 말이야. 또, 강도가 사람을 죽이려고 사람 목을 칠 그때 초발심시변정각을 봐야 이것이 참말로 원용무애한 도리지, 그렇지 않으면 지옥은 명백히 지옥이고 천당은 명백히 천당이라서 서로서로 차별이 되어서 융통이 안 되거든. 이 발심이라는 것이 그렇게 참으로 원용무애한 것이라 그 말이야.

### 생사열반상공화 生死涅槃常共和

생사라는 것은 중생의 고타의 세계이고, 열반이라는 것은 해탈의 세계이거든. 그런데, 고타 이대도가 즉 해탈이고, 해탈의 세계 이대도가 고타이고, 이것이 전체가 서로 화和하여 둘이 아니라 말이야. 한데 뭉쳐서 고타가 낙樂이고 낙樂이 고타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자연히 초발심이라는 이 발심이 일체에 해당해야지, 국한된 발심이 되어서는 절대로 생사열반상공화가 안 됩니다. 지옥 중생이 곧 부처님 세계라, 말짱 합쳐 가지고 뭉쳐서 하는 소리야. 그러니 이것은 일념삼천一念三千의 세계에서 하는 소리고, 육상원용六相圓融에서 하는 소리라 말이야. 초발심을 국한된 것으로 잘못 해석할까 염려해서 하는 소리야.

### 이사명연무분별 理事冥然無分別

이理와 사事가 명연冥然해서 분별이 없어. 이理와 사事는 전에 이미 말



사진 2. 성철스님이 김용사 조실로 계실 때, 1966년 1월 8일(토. 음 12월 17일)부터 2월 20일(일. 음 2월 1일)까지 50일 간의 안거정진에 참가한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구도부 학생들과 김용사 대중스님들.

했듯이, 이理라 하는 것은 공계空界이고, 사事라 하는 것은 색계色界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자면, 이理라는 것은 진眞이고 사事라는 것은 속俗인데, 진을 떠나서 속이 따로 없고, 속을 떠나서 진이 따로 없다 말아야. 진이 즉 속이고, 속이 즉 진이라고 얘기했거든. 그러니 명연冥然해서 무분별이야. 어떤 것이 이理고, 어떤 것이 사事인지 분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미친 사람이지. 그렇다고 해서 이理와 사事が 없느냐? 이理와 사事は 분명히 있는 가운데 분명히 없고, 분명히 없는 가운데서 분명히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거든.

### 십불보현대인경十佛普賢大人境

이것은 어떤 사람의 경계냐면 십불, 부처님의 경계이고 보현보살의 경계라 말입니다. 이사명연한 무분별한 경계를 완전히 안 것이라는 말이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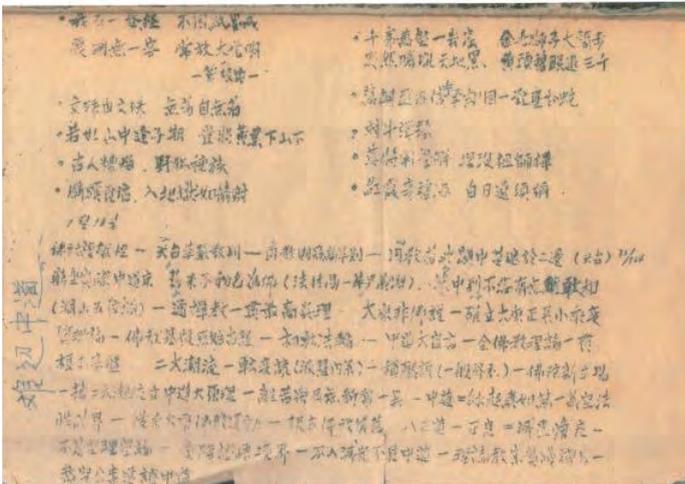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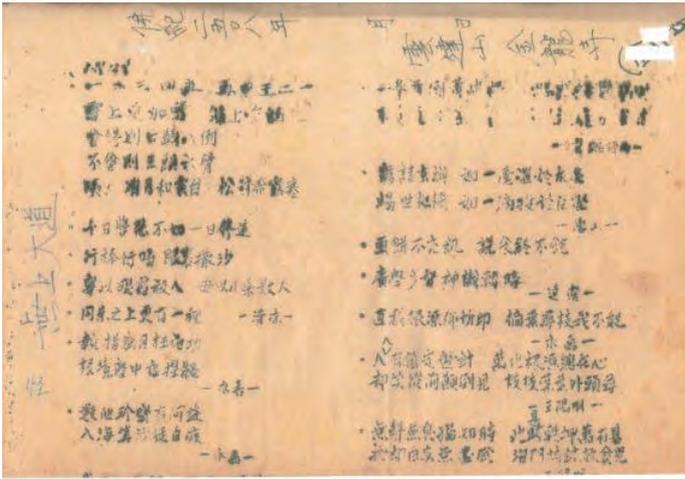


사진 3. 운달산 법회 당시 등사기로 인쇄한 성철스님의 법문 자료(사진: '시월록').

김용사 운달산 법회는 1965년 4월부터 1966년 10월까지 성철스님께서 문경 김용사에서 대학생불교연합회 소속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열었던 법회를 말한다. 당시의 설법 자료를 살펴보면 1월 12일자부터 2월 3일자까지 법회 날짜가 기록되어 있어 당시 법회의 진행 상황과 내용을 짐작할 수 있다. 법문의 항목을 살펴보면 불교의 핵심이 되는 21가지 항목으로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다.

1. 무상대도無上大道, 2. 이변중도離邊中道, 3. 연기실상緣起實相, 4. 진여법계眞如法界, 5. 무아즉공無我卽空, 6. 아뢰아식阿賴耶識, 7. 삼세유주三細六麤, 8. 무작사제無作四諦, 9. 지도유식智度唯識, 10. 천타화엄天台華嚴, 11. 법성승게法性頌偈, 12. 고조전정古祖正傳, 13. 선교원교禪教圖說, 14. 건자심성見自心性, 15. 무심무념無心無念, 16. 몽중일여夢中一如, 17. 오매항일窟寐恒一, 18. 대원경치大圓鏡智, 19. 돈오점수頓悟漸修, 20. 활구사구活句死句, 21. 신심명信心銘.

연재하고 있는 큰스님의 법성계 강설은 11번째 '법성승게' 항목에 포함된 내용으로 추정된다.

십불+佛이라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주해가 있는데 말이지, 하나의 분석만 알아 놓을까?

첫째는 ‘정각불正覺佛’이요, 바로 깨친 불佛이라 말이야. 둘째는 ‘원불願佛’이요, 셋째는 ‘업보불業報佛’이요, 넷째는 ‘주지불住持佛’이요, 다섯째는 ‘화불化佛’이요, 여섯째는 ‘법계불法界佛’이요, 일곱째는 ‘심불心佛’이요, 여덟째는 ‘삼매불三昧佛’이요, 아홉째는 ‘성불成佛’이요, 열째는 ‘여의불如意佛’이야.

사실 이게 모두 같은 소리야. 할 일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도 짜고 저렇게도 짜는데, 그건 생각할 필요도 없어.

## 능인해인삼매중能仁[人海印三昧中

여기 ‘능인’을 어질 ‘인仁’ 자를 갖다가 써놨네? 사람 ‘인人’ 자예요. 어질 ‘인’ 자는 잘못됐어요. 능인能人이라 하는 거는 능화인能化人입니다. 즉 부처를 말할 때 씁니다. 능화불能化佛 즉 중생을 교화시킬 수 있는 부처님이라 해서 능인이거든. 부처님이 어질어서 어질 인仁 자를 쓴 모양인데 사람 인人이라야 됩니다. 일체 누구든지 말이지 자성을 깨치고 법성을 깨친 사람은 전부 다 능인能人이야. 능한 사람이다 그 말이야.

해인삼매중이라 했는데, 일체중생을 능히 교화시킬 수 있는 능인은 곧 능화인은 해인삼매중에 살아. 광대무변한 것을 해海라고 하는 것이거든. 그리고 제불심인諸佛心印을 갖다가 인印이라 합니다. 능인이 해인삼매라는 광대무변한 제불심인의 그 삼매 가운데에서 이런 법문을 한다 말이라. 능인해인삼매중에 십불보현대인경을 볼 수 있어. 卍

성철스님 육성 법성계 강의 보기 <https://youtu.be/Gybh9OWMGJU?si=i6GmQGuG0 I01hhrZ>

## 불교전파의 중간 거점 스리비자야 왕국



주강현\_ 해양문명사가

많은 이들이 부다가야, 룸비니 등 불적지 성지순례를 떠난다. 그러나 스리비자야 왕국(659~1377)의 터전을 찾는 이들은 전혀 없다. 그러나 스리비자야야말로 불교사에서 중요한 섬 불교의 상징처였다. 잊힌 왕국이 되고 말았으며, 오늘날 인도네시아가 이슬람국가가 되면서 누구에게도 주목받지 못하고 기억에서 사라진 공간이 되어 버렸다. 언젠가 기회가 있으면 불자들과 함께 반드시 방문하고픈 중요한 불적지이다.

### 큰 바다를 뜻하는 수마트라

스리비자야 왕국의 성립은 항해술의 일정한 발전, 조선술의 양적 팽창에 따른 거대 상선과 해군의 증강, 해양을 통한 물류의 수요와 공급 증대 등 해양 실크로드 발전의 제 조건이 섬으로 이동하게끔 충족되어진 결과이다. 현재는 모조리 이슬람국가로 변신하였지만 본디 거대한 불교왕국이 남방 해역에 존재했다. 말레이반도와 인도네시아가 이슬람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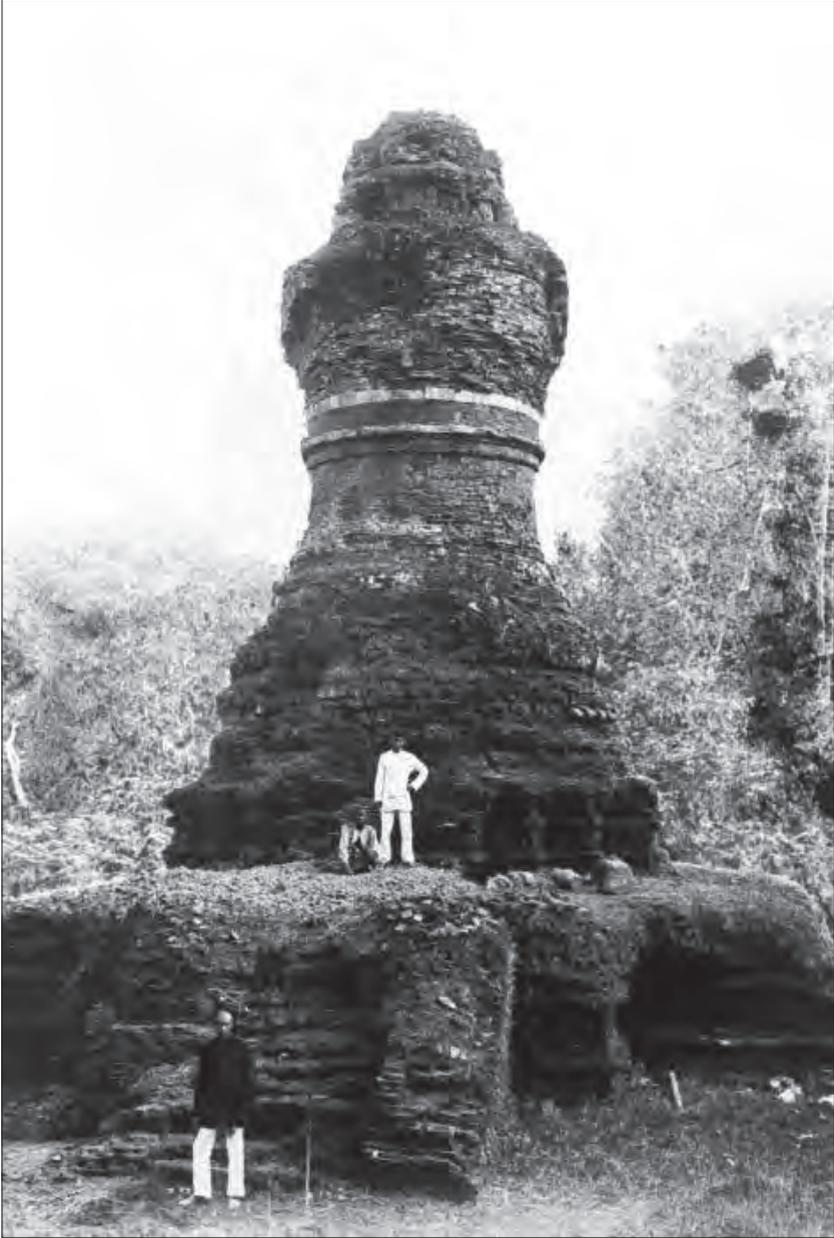


사진 1. 수마트라의 고대 수투파(1889년 촬영).

하면서 방글라데시-미얀마-말레이반도-인도네시아-태국-베트남으로 이어지는 거대한 불교문명 선이 끊어지고 일부만 남게 된 것이다.

스리비자야, 혹은 스리위자야라 부르고, 중국 문헌에서는 삼불제三佛齊라 부르는 불교왕국은 오늘날의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에 있었다. 섬에 있는 불교왕국으로는 스리랑카가 중요하지만 스리비자야는 ‘해상제국’이라 일컬을 정도로 그 영역과 힘이 남달랐다.

해상제국 스리비자야의 출현은 동남아시아 역사 및 해양 실크로드 문명사에서 남다른 의미가 있다. 말레이반도에서 명멸하던 많은 항시港市 국가들과 푸난[扶南] 등이 모두 육지부에 속해 있었다면, 비로소 섬에서 ‘섬제국’이 출현한 것이기 때문이다.

수마트라는 원의 『도이지략島夷志略』에서는 ‘수문답랄須文答刺’로 표기하고 뇌자, 거친 강진, 학정鶴頂, 두석斗錫 등이 나는데 향·맛이 오래가지 않는다고 하였다. 『원사』의 속목도랄速木都剌도 같은 섬을 말하며, 모두 음가가 ‘Sumatra’를 뜻하는 수무드라(Sumadra)에 해당한다. 수무드라는 ‘큰 바다’라는 뜻이다.



사진 2. 무아라 잠비 고대 사원터.

이들 명칭은 고스란히 조선에도 전해졌다. 조선 후기 최한기의 기록은 아마도 중국 문헌을 통하여 정보를 획득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그는 『지구전요地球典要』 남양각도南洋各島에서 수마트라를 “소문답랍蘇門答臘. 섬 길이가 2천 리나 되고 가운데는 긴 산이 뻗어 있다. 종족은 말라유족이다.”라고 했다. 최한기의 기록에 소문답랍과 말라유족이 등장하는 것이다.

### 불교왕국 말라유와 삼불제의 공존

스리비자야는 오늘날 베트남 메콩강가의 푸난 몰락 이후에 본격 등장한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그 이전부터 수마트라의 해상세력으로 세력을 키워오고 있었다. 어느 한순간 느닷없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한 것이 아니다. 5세기 무렵, 칸톨리(Kantoli)는 스리비자야의 전신으로 여겨진다. 칸톨리는 스리비자야와 말라유의 거점인 잠비와 팔렘방 사이에 위치하였다. 스리 바라나렌드란(Sri Varannarendran) 왕이 중국 남조의 유송(454~464)에 사신을 보내고 있었다. 칸톨리는 수마트라 적도 유럽의 아로마나 벤젠 같은 숲 생산물



사진 3. 석조 입상(팔렘방 출토).

로 중국 시장의 수요에 응하면서 많은 부를 축적하고 있었다. 6세기 중엽에 내리막길을 걷는데, 이 시점에 팔렘방에 거점을 둔 스리비자야가 제압한다.

스리비자야 이전에 수마트라에 먼저 등장한 말라유가 중요하다. 팔렘방에서 북쪽으로 300km 올라가면 무아라 잠비(Muara Jambi)가 나온다. 오늘날의 잠비시에서 26킬로미터 떨어진 수마트라에서 가장 큰 고고학 유적지이자 고대 힌두-불교 사원 단지가 남아 있는 좋은 예이다. 잠비는 말라유 왕국의 본거지이다.

말라유 왕국은 그간 스리비자야에 가려져서 잘 보이지 않았으나 독립 왕국으로 무역에 종사하고 있었다. 팔렘방과 마찬가지로 강을 이용하여 내륙과 바다를 연결했으며, 팔렘방보다 북쪽에 위치하여 중국이나 므라카 해협 무역로에 더 가깝게 접근할 수 있었다. 전형적 불교왕국으로 그 명성이 중국에 널리 알려져서 많은 구법승이 말라유에 들었다.

중국 문헌에서 당 시기의 마라유(摩羅遊(혹은 末羅瑜)와 몽골 시기의 몰랄유(沒刺由) 등은 모두 말레이어의 말라유(Malayu)에서 비롯된 명칭이다. 당이 성립된 이후에 수마트라에서 최초로 사신을 보낸 곳이 말라유다. 644년에 최초로 사신을 보냈으며, 200여 년 있다가 다시 853~871년에 잠비에서 사신을 보낸다.

당의 의정(635~713)이 방문했을 당시, 말라유는 이미 7세기 말에 스리비자야에 복속된 상태였다. 그럼에도 말라유는 853·871년에 사신을 보내어 자신들의 독립성을 강조한 것으로 여겨진다. 의정은 『남해기귀내법전(南海奇歸內法傳)』에서 “말라유주(末羅遊州)가 지금의 시리불서국”이라고 하였다. 의정은 695년에 팔렘방을 거쳐서 귀국하였으므로, 그의 기록은 이미 말라유가 스리비자야에 복속된 7세기 말의 상황을 말해 준다. 현장



사진 4. 스리비자야 영역이던 남부 수마트라의 8세기 팔라바 문자와 말레이 고문자 금석문. 인도 향지국의 영향이 미쳤다는 증거이다.

(602~664)은 『대당서역구법고승전』에서 왕이 후원하고 말라유국으로 가도록 호송해 주었다고 하였는데, 『도이지략』은 “지금은 실리불서로 바뀌었다.”고 첨언하였다.

의정은 『남해기귀내법전』에서 “남해의 여러 주에 십여 국이 있는데 오로지 근본설일체유부뿐이다. 정량부正量部가 때에 맞춰 최근에 들어왔는데 적은 수가 두 가지를 겸한다.”고 했다. 설일체유부(Sarva-stiva-da)의 율장과 그것에 따르는 수계 전통이 온전히 존재했다는 뜻이다. 학자들은 7세기 현장이 당시 천축승의 약 1/4이 정량부 승려였다는 추정을 자주 언급한다. 정량부가 가장 널리 퍼지고 대중적인 수계 전통이었음을 뜻한다.

현장은 『대당서역구법고승전』에서 왕이 후원하고 말라유국으로 가도록 호송해 주었다고 하였다. 현장에 의하면 말라유를 거쳐간 승려들은 상민常愁·무행無行·혜명慧命 등이었다. 말라유에서 북상하여 말레이반도

로 들어가고, 부장계곡 같은 항시국가를 거쳐서 벵골만 북편의 니코르바 제도를 거치는 천축행 뱃길을 이용한 것이다.

## 구법승들이 필수코스로 들른 스리비자야

671년 당 의정(635~713년)은 인도 여정의 첫 기착지로 동남아 해안을 선택했다. 그가 탄 배는 중국과 인도 사이의 해협을 통치한 스리비자야 왕국에 도착했다. 250여 년 전 스리비자야에 불교가 없다고 비난했던 법현과 달리, 의정은 이 섬 왕국에 불교가 번성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법현과 의정의 기록으로 보아 동진과 당나라 시기 중간쯤에 불교가 전파된 것으로 확인된다.



사진 5. 팔렘방에서 발굴된 스리비자야의 미륵상(9~10세기, 국립인도네시아박물관 소장).

중개무역으로 큰 돈을 벌어들이는 스리비자야 왕은 사원을 너넉하게 후원했고, 승려들이 인도에 방문할 수 있도록 여비를 지원했다. 의정은 수마트라 중심지에 발달한 불교학에 깊이 감명받아 중국 승려에게 인도에 가기 전에 스리비자야에 들러 수학할 것을 권했다. 의정 자신도 스리비자야에서 수년간 머물렀다. 671년 인도로 가던 중 스리비자야에 6개월간 머물렀을 뿐 아니라, 685년에 다시 돌아와 685~695년에 걸쳐서 그곳에서 지냈다.

의정이 본 스리비자야는 거대한 정치적 변화를 겪은 후였다. 법현이 살던 시기에는 역내 항구 간 경쟁이 치열했으나, 7세기 말에는 한 항구가 다른 경쟁자를 모두 압도하고 스리비자야(대승리 또는 영광스러운 정복이라는 뜻의 산스크리트 지명)라는 왕국을 형성한 상태였다. 왕국은 중국해 남단을 비롯한 인근 해협 연안, 즉 말레이반도, 수마트라, 칼리만탄, 자바 서부 등지에서 패권을 잡고 있었다. 스리비자야는 플라카 해협과 순다 해협까지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에 인도와 중국 사이의 모든 해로를 통제하는 위치에 있었다. 의정은 이러한 국제적 네트워크를 적절하게 활용하여 인도로 갔다.

스리비자야의 종교생활은 활기에 넘쳤다. 의정은 수천 명의 학생과 승려가 정진하고 있다고 기록했다. 산스크리트어를 배우기 위해 외국에서 오는 수도승이 많았으며, 1011년에서 1023년 사이에 티베트 승려 아티사 Atisa가 종교적 지식을 심화하기 위해 이곳까지 찾아왔다. 멀리 나란다 Nalanda 불교대학에 기숙사를 지어서 유학생을 배려했다. 나란다대학의 비문에 스리비자야의 지대한 공헌이 잘 기록되어 있다. 이처럼 스리비자야는 600여 년간 동남아 해상의 중간 거점에 거대한 해상제국으로 버티고 있으면서 동서 불교문명 교류를 주도하였다. 

○ **주강현** 해양문명사가. 분과학문의 지적·제도적 장벽에 구애받지 않고 융합적 연구를 해왔다. 역사학, 민속학, 인류학, 민족학 등에 기반해 바다문명사를 탐구하고 있다. 제주대 석좌교수, 고려대 아세아문제 연구원 연구위원. 한국역사민속학회 회장, 아시아퍼시픽해양문화연구원장(APOCC) 등을 거쳤다. 『마을로 간 미륵』, 『바다를 건넌 붓다』, 『해양실크로드 문명사』 등 50여 권의 책을 펴냈으며, 2024 뇌허불교학술상을 수상했다.

## 석전 박한영과 서정주 그리고 ‘인연’의 사상



김춘식\_ 동국대학교 교수

질마재 마을의 절간 선운사의 중 백파한테 그의 친구 추사 김정희가 만년의 어느 날 찾아들었습니다.

종이쫓지에 적어온 ‘돌이마[石顛]’란 아호 하나를 백파에게 주면서, “누구 주고 시픈 사람 있으면 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백파는 그의 생전 그것을 아무에게도 주지 않고 아껴 혼자 지니고 있다가 이승을 뜰 때, “이것은 추사가 내게 맡겨 전하는 것이니 후세가 임자를 찾아서 주라.”는 유언으로 감싸서 남겨 놓았습니다.

그것이 이조가 끝나도록 절간 설합 속에서 묵어 오다가, 딱한 일본 식민지 시절에 박한영이라는 중을 만나서 비로소 전해졌는데, 석전 박한영은 그 아호를 받은 뒤에 30년간이나 이 나라 불교의 대중정 스님이 되었고, 또 불교의 한일합병도 영 못하게 막아냈습니다.

지금도 선운사 입구에 가면 보이는 추사가 글을 지어 쓴 백파의 비석에는 ‘대기대용大機大用’이라는 말이 큼직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추사가 준 아호 ‘석전’을 백파가 생전에 누구에게도 주지 않고, 이 겨레의 미래영원에다 가만히 유언으로 써서 전하는 것을 알고 추사도 “야! 단수 참 높구나!” 탄복한 것이겠지요.

- 서정주, 「추사와 백파와 석전」, 『질마재 신화』(일지사, 1975).

인용한 시는 백파스님과 추사 김정희의 이야기를 통해 ‘석전(石顛)’이라는 호가 후대의 박한영스님에게 전해지는 과정을 담고 있다. ‘신라의 내부’에서 불교적 은유법과 ‘인연’을 발견한 서정주에게 ‘인연’이 어떻게 문학적으로 수용되었고 미적 성취를 이루었는가 하는 점은 실제로 ‘석전 박한영’과의 인연에 대한 서정주의 ‘회상’과도 무관하지 않다.

실제로 서정주는 ‘석전스님’에 대한 이야기를 시와 산문을 통해 여러 차례 썼고, 그 내용에 따르면 문학과 인연, 등단, 중앙불교전문학교 입학 등과 관련된 모든 일이 석전스님과의 만남을 통해 펼쳐지고 이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박한영과 미당의 만남

박한영스님은 만해 한용운과도 막역한 관계였고, 위당 정인보, 육당 최남선, 춘원 이광수, 신석정, 김달진 시인 등이 그의 문하에서 한동안 불교를 배우는 등 한국문학 속에 불교의 사상과 자취가 스며드는 과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 분이다. 미당이 이런 석전스님과 첫 인연을 맺은 것은 동대문 밖 개운사 대원암에서 스님의 권고로 ‘소년 거사’로 머물게 되면서 시작된다.

이때의 심정을 서정주는 후에 “육당 최남선 씨와 춘원 이광수 씨가 한



사진 1. 석전정호石顛鼎鎬(1870~1948). 1930년 동국대 전신 중앙불전 교장실에서.

동안씩 이분의 문하에서 공부했던 것과 춘원은 또 이분에게서 식발한 것을 들어 알고 있던 나는 그의 그 따라 웃지 않을 수 없는 묘한 매력을 가진 웃음소리에 접하자 그게 첫째 궁금해 꽤히 그 권고를 받아 여기 한 동안 머물기로 한 것이다.”(단발령)라고 적었다.

서정주의 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박한영스님은 당시 중앙불교전문학교의 교장으로서 종정의 자리를 겸하면서 당시 문단과 문학계에 두루 영향력을 지니고 있었다. 서정주는 광주학생운동 이후 학교를 중퇴한 뒤 무작정 상경하여 녁마주의를 하면서 보들레르와 톨스토이 등에 심취해 있던 문학청년이었는데, 우연히 서정주의 친우 배미사(본명 배상기) 씨와의 인연을 통해 석전의 부름을 받게 되었고, 그로부터 위와 같은 인연이 시작된 것이다.



사진 2. 대원강원(현재 암암동 대원암) 강주 겸 중앙불전 교장 시절의 석전스님.

서정주는 이때 『능엄경』을 석전에게서 배웠고 가끔 재주가 있다는 칭찬을 듣기도 했는데, 미당은 이런 석전을 “제자가 뭘 조금 잘 이해하는 것을 이분처럼 전신으로 좋아하시던 스승을 나는 내 생애에서 아직도 본 일이 없다.”(『단발령』)라고 극찬한 바 있다. 실제로 석전의 미당 서정주에 대한 애정은 각별한 점이 있었고, 서정주 또한 그런 스승의 칭찬과 인품에 깊은 존경을 품고 있었던 듯하다.

## ‘인연’의 사상과 영원주의

미당 서정주가 불교의 은유법과 ‘인연’을 ‘신라의 내부’를 들춰 보며 알았다고 한 말의 핵심은 실제로 앞에서 인용한 시 「추사와 백파와 석전」의 “추사가 준 아호 ‘석전’을 백파가 생전에 누구에게도 주지 않고, 이 겨레의 미래영원에다 가만히 유언으로 써서 전하는 것”이라는 구절에 그대로 암시되어 있다.

물론 이 구절뿐만 아니라 미당 서정주의 영원주의가 사실은 ‘불교적 인연’에 대한 감각과 사상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은 그의 시 도처에서 발견되는 사실이다. 다만, 이렇듯 그의 시 곳곳에 있는 ‘인연과 영원주의’의 핵심이 지금까지의 연구와 평가에서는 종종 ‘동양주의’, ‘신라정신’, ‘고대성’, ‘회고주의’ 등으로 모호하게 표현되어 온 점은 아쉬운 점이 아닐 수 없다.

동양주의나 신라정신, 고대성, 회고주의 등은 다분히 현대적 합리성을 전제로 한 불교적 인연과 시간관념에 대한 이해를 담고 있는 표현으로 보인다. 이런 일반적 용어는 그 개념의 전제 속에 이미 오리엔탈리즘이나 고대주의, 반근대적 전통주의 등의 선개념을 함축하고 있어서 서정주 시의 인연 감각과 체험, 그리고 사상을 그 자체로 이해하는 데에는 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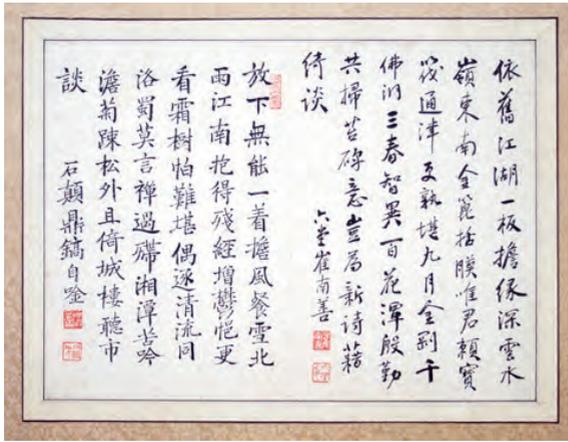


사진 3. 석전스님의 시첩에 실린 석전스님(좌)과 최남선의 한시(우).

해가 되는 측면이 적지 않다.

서정주에게 불교적 인연은 ‘석전石顛’이라는 호가 추사 김정희와 백파를 거쳐서 ‘박한영’에게 전달되었듯이, 이 세상 모든 것에는 정해진 것과 ‘주인’이 없는 것 같지만 인연법에 의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제자리를 찾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나 감각은 때로는 천리나 순리의 개념으로 나타나면서 ‘탈속적 체념’의 감각과 ‘인간의 의지, 욕망’이 순화되는 조건이 되기도 한다.

서정주가 불교적 은유에서 귀신과 인간이 서로 통하는 설화와 마법의 세계를 보았다면, ‘인연’의 감각을 통해서 인간과 인간의 인연,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인연의 법칙성이 어떻게 삶과 운명을 만들어 내는가 하는 점에 집중된다. 서정주의 ‘인연의 감각’은 이 점에서 추상적이지 않으며 아주 미시적이고 체험적이다. 인연의 사상을 감각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은 그의 독특한 시적 능력이기도 한데, 이런 시적 자질의 기원에는 그가 불교를 처음 접한 ‘석전과의 만남’이라는 개인적 체험이 존재한다고 여겨진다.

## ‘인연의 체험’이 ‘감각’이 되기까지

톨스토이가 갖는 사람들의 고난에 대한 연민이라면 그건 물론 승려들 속에도 많이 있었다. 그러나 이미 소년 시절의 그 무작정한 연민심 때문에 한때 사회주의에도 감염되었다가 탈피해서 니체와 그리스신화의 신성의 분위기에도 상당히 또 젖어 있었던 나로서는 그리스신화적 그 육감과 혈기라는 것은 여간한 매력이 아니었다. 그리고 나는 아직도 그것을 불교의 그 넓은 세계 속에 포함하여 안한(安閑)할 만한 실력도 되지 못했고, 또 그 나이도 아니었던 것이다.(『단발령』)

서정주의 첫 시집 『화사집』은 문학사적으로는 하나의 ‘사건’에 해당된다. 시에 관능과 욕망, 그리고 육체성과 신성의 딜레마가 그대로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니체의 운명애’ 같은 것이 너무나 감각적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적인 육체성, 기독교적인 초월과 신성의 대립, 그리고 니체의 운명애와 같은 철학적 사유의 시적 이미지화는 종래의 시적인 언어가 지니고 있던 ‘묘사로서의 이미지’를 초월한 것이었다.

철학이나 관념적 사유 혹은 사상이 시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관념과 사상’을 어떻게 실제적인 감각과 미시적 일상의 체험으로 표현해 내느냐 하는 추상성의 극복이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



사진 4. 서정주의 첫 시집 『화사집』(남만서고, 1941년)의 표지.

한다. 서정주는 이 점에 있어서는 단연 탁월한 재능을 지닌 시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

석전과의 만남 이후 『능엄경』을 배웠지만 서정주의 이 시기 주된 관심은 그리스적인 육체성과 니체, ‘혈기와 피’ 같은 것이었기에 ‘불교’의 넓은 사상을 시로 써내거나 소화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위의 고백은 이 점에서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서정주가 자신이 들춰 본 신라의 내부에서 그나마 터득한 성취는 ‘불교적 은유법과 인연’이라고 ‘꼭 집어서’ 말한 까닭은, 젊은 시절에는 자신이 품을 수 없었던 불교를 ‘신라’라는 불교적 감각이 일상에서 살아 움직이던 세계를 그가 엿봄으로써 비로소 품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추상적인 것의 감각화가 시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라면 서정주는 자신이 다 품을 수 없었던 불교를 ‘은유와 인연론’으로 다시 감각화하고 있는 것이다. ‘설화조와 인연조’라는 말로 나중에 언급하기도 하는데, 설화조가 불교적 은유가 일상으로 존재하는 세계에 대한 시적 구현이라면, 인연조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연결된 세계에 대한 감각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때와 장소가 서로 합이 맞지 않는 것은 그 시간과 장소의 인연이 서로 닿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생의 고뇌와 운명적 속박 등이 발생하는데 이런 시간과 장소의 제한을 벗어난다면, 그런 운명의 굴레 또한 없어지게 된다. 인연의 감각화는 결국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의 아이러니를 넘어서는 ‘영원성의 세계’에서 인연을 바라보는 것이다. 서정주의 시에서 ‘달관’이라는 경지를 종종 읽어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달관이란 곧 시공을 초월한 인연의 경지에서 삶을 바라본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다.

## 인연설화조因緣說話調, 귀신과 통通하는 이야기

국화꽃이 피었다가 사라진 자린  
국화꽃 귀신이 생겨나 살고

싸리꽃이 피었다가 사라진 자린  
싸리꽃 귀신이 생겨나 살고

사슴이가 뛰놀다가 사라진 자린  
사슴이네 귀신이 생겨나 살고

영 너머 할머니의 마을에 가면  
할머니가 보시던 꽃 사라진 자리  
할머니가 보시던 꽃귀신들의 떼

꽃 귀신이 생겨나서 살다 간 자린  
꽃귀신의 귀신들이 또 나와 살고

사슴이의 귀신들이 살다 간 자린  
그 귀신의 귀신들이 또 나와 살고

- 「고조古調2」, 『신라초』(정음사, 1961).

만해 한용운이 불교적 우주관을 사랑의 이야기로 변주해 냈다면, 서정주는 불교적 사유가 지배하는 삶의 감각을 정확하게 재현해 냄으로써 불교가 한국의 현대시에 접목되는 한 장면을 보여준다. 서정주의 인연설화조는 ‘사람’만이 중심이 되는 세상이 아니라 모든 우주가 하나의 생명



사진 5. 서정주(1915~2000). 사진: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으로 연결된 세상을 보여주는데, 이런 ‘세상’에서는 ‘사람과 귀신, 꽃, 나무, 동물’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통한다.

“국화꽃이 피었다가 사라진 자린/국화꽃 귀신이 생겨나 살고”처럼, 이런 세계에서는 삶과 죽음 또한 철저히 절연되어 있지 않다. 서정주가 신라를 통해 발견한 것은 ‘삼국유사와 ‘고대사’에 담긴 불

교적인 삶과 우주관의 생생한 재현과 관련되어 있다.

지금은 사라졌으나 한때 존재했던, 설화가 지배하던 세계.

영통靈通이 일상 속에 존재하며 한때, 누군가의 딸이 바라보던 아름다운 목화꽃이 ‘이불’과 ‘솜’이 되는 것(‘신라의 상품商品’)을 ‘달관’하는 것이 ‘시적 예지’라고 한다면, 서정주는 이런 세계를, 불교와 그 불교의 세계관이 일상적 삶의 원리로 작동하던 ‘신라’, ‘고대성’, ‘설화’의 세계에서 찾고 있는 것이다.

특히, 향가와 향가설화는 그가 발견한 신라와 시(노래)의 사상을 연결해 주는 가장 중요한 원천이기도 하다. 향가의 매력이 ‘귀신을 울게 한다’, ‘천지 귀신에게 통한다’는 의미와 연결되어 있다는 말이 있듯이, 서정주가 향가를 통해 발견한 것은 불교가 녹아든 향가, 즉 시의 원천에 대한 발견이다. ㉔

○ 김춘식 동국대학교 국어국문문예창작학부 교수. 문학평론가이자 시인. 계간 『시작』 편집위원.

바위에 새긴 미소 2

양현모\_ 사진작가

## 삼태리 마애불



천안 삼태리 마애여래입상. 높이 7m, 보물, 고려시대.

# 독일에 불법을 펼쳐 온 함부르크불교협회

글\_ 톱텐 잠빠    번역\_ 운산

---

이 글에서는 함부르크불교협회를 소개하고, 지난 70년의 역사와 함께 협회가 추구하는 바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제가 불교와 인연을 맺게 된 여정과 함부르크불교협회로 오게 된 이야기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 함부르크불교협회의 설립 과정

함부르크불교협회는 1954년 10월 9일, 스리랑카의 나라다 마하테라 스님께 감명받은 불자들에게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이 단체는 함부르크의 불교 단체 가운데 가장 역사가 깊고 독일 전체로는 세 번째입니다. 창립 회원이신 폴 데베스, 막스 글라스호프, 헬무트 헤커 박사, 빌프리트 클링거 박사, 도로테아 폰 마투슈카 백작부인, 칼 로젠, 빌헬름 슈테게만이 그려낸 비전이 살아있는 전통으로 이어져 온 것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협회의 역사를 더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공동 설립자이자 스승이었던



사진 1. 2024년, 함부르크불교협회 창립 70주년 기념식 모습.

던 폴 데베스의 여식 모니카 데베스 여사의 회고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모니카는 올해 우리 협회의 70주년 기념행사에서 인상적인 강연을 해주셨습니다.

툽텐 잠빠 스님께서 제 아버지 폴 데베스와 저 자신, 그리고 함부르크불교협회의 초창기에 대해 이야기 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70년 전에 함부르크불교협회가 어떻게 창립되었을까요?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고 싶습니다. 당시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1차 그리고 2차세계대전으로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었고, 심신이 상한 이들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1945년의 함부르크는 마치 백골 같았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적십자의 이산가족 찾기 방송이 나왔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찾고,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찾는 방송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함부르크-반즈베크에 있던 우리학교는 파괴되었습니다. 아이들 52명이 한 학급으로 지하실



사진 2. 틱텐 잠빠 스님과 함부르크불교협회의 공동설립자 폴 데베스 거사의 여식 모니카 데베스 여사.

에서 공부했고, 의자는 각자 가져왔습니다. 쉬는 시간이면 운동장에 널브러진 벽돌에서 시멘트를 떼며 놀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간절히 모색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리도 극심하게 파괴되었나요? 이런 참상을 아무도 원하지 않았거늘! 또 다시 겪게 될까요?” 이런 시기에, 1948년부터 부친 폴 데베스의 강연이 호응을 얻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함부르크대학, 브레멘, 쉘레, 엘름스회른, 프랑크푸르트, 하노버, 브라운슈바이크, 킬, 뤼벡의 인파 가득한 강당에서 강연하셨습니다. 또한 교회 대표, 이슬람의 지도자인 이맘, 철학자들과 어울려 ‘논쟁 없는 원탁 토론’을 주최하며 아래와 같이 대형 포스터로 주제를 전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말하는 구원과 여실한 가르침의 구원’, ‘신앙인가 지식인가?’, ‘진리를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 ‘무엇이 운명을 결정하는가?’, ‘무엇이 세상을 형성하는가?’, ‘현상에서 존재로’, ‘불교: 종교와 과학의 가교’, ‘기독교의 은총과 불교의 자기 수행’

700여 명이 넘는 청중들이 모여 대학의 강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녁에는 학교와 노동조합 강당에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1949년부터 1983년까지, 뤼네부르크 하이데의 후슈테트에서 2주에서 3주 과정으로 여름 세미나가 23회 열렸고, 매년 80명까지 참석했습니다. 또한 21회의 주말 세미나가 있었고, 그중 10회는 로제부르크에 위치한 ‘침묵의 집’에서 열렸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여실한 인생의 이정표》라는 잡지를 발간하셨고, 1955년부터 《지혜와 변화》를 펴내셨습니다. 한편 《불교적 관점과 삶의 실천》이라는 연속간행물도 출판했습니다. 매월 32쪽, 특집호는 64쪽 분량으로 총 62권이 간행되었지요. 이렇듯 폭넓은 교화 활동으로 수천 명이 감화를 받았고, 스리랑카의 나라다 마하테라 스님과 인연을 맺어 1954년 10월 9일 함부르크불교협회가 창립되었습니다.

## 협회 창립의 주역들

창립 대중은 폴 데베스, 막스 글라스호프, 헬무트 헤커 박사, 빌프리트 클링거 박사, 칼 로젠, 빌헬름 슈테게만, 그리고 마투슈카 백작부인 도로테아였습니다. 글라스호프는 1955년에 설립된 독일불교연합(DBU)에서 1960년부터 1984년까지 대표로 활동하셨고, 백작부인은 헬무트 팔미에 박사의 모임과 인연이 있었습니다.

잉게트라우트 안더스는 1950년대에 불교 세미나에 참여했고, 아버지께 가장 든든한 도반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녀의 헌신으로 아버지의 심오한 법문이 책으로 다듬어져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었습니다. 한편 아버지께서 인연을 맺은 구스타프 프리치는 불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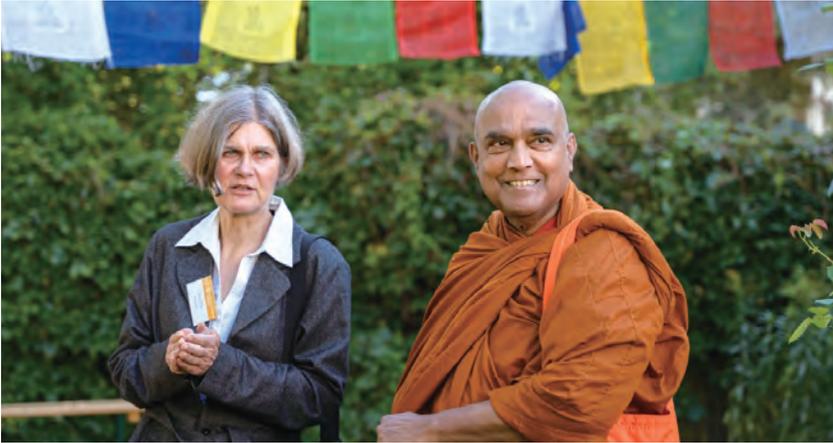


사진 3. 1988년부터 함부르크불교협회를 후원하고 있는 스리랑카의 실라완사 테로 스님과 1차 운영이사인 탄자 클리 여사.

세미나를 하도록 아파트를 보시하시고 나아가 베를리너 토어 근처 당신의 부지에 법당을 지어 주셨습니다. 이로써 법문과 참선 도량을 마련하려던 오랜 발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슈테게만 부부의 모습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1954년 제가 개신교 입교식을 할 때 부부께서는 진녹색 가죽 필기구를 선물로 주셨는데, 지금까지도 소중하게 쓰고 있습니다. 두 분은 법당을 설계하시고 법사님을 새로 초청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담미코 스님은 젊은 독일인으로서 영국에서 건너오셨습니다. 스님의 고요하고 자비로운 모습에 저는 물론 남동생 헬무트도 깊이 감동했습니다. 헬무트도 출가를 희망했지만 담미코 스님은 남동생에게 우선 고등학교를 졸업하라 조언하셨지요. 스님의 조언에 따라 헬무트는 학업을 마쳤지만 출가하지는 않았습니다.

라마 고빈다 스님과의 인연도 생각합니다. 언젠가 스님의 꽃이 아름답다는 법문에 저는 거부감을 느꼈습니다. 당시 저는 감각적인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벗어나야 한다고만 생각했으니까요.

이에 비해 제 아버지 폴 데베스는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진리를 찾던 청년 시절, 아버지께서는 부처님의 최초 법문을 읽고 바로 알아차렸다고 합니다. ‘내가 찾던 스승을 만났구나’ 하고요. 이후에는 『맛지마니까야』와 『디가니까야』, 『숫타니파타』를 공부하셨습니다. 경전은 거의 전적으로 출가자를 대상으로 했지만, 아버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이해하는 한편 재가자로서 균형을 잡으며 살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절제하며 수행자답게 살고, 수행자답게 살고, 부처님의 지혜를 쉽게 풀어 서양인에게 전하며, 가장으로서의 책임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1947년, 아버지께서는 제자 둘과 함께 ‘깨달음을 위한 불교 모임’을 시작하셨습니다. 제자로는 헬무트 헤커, 그리고 영국의 포로수용소에서 만난 법학도 프리츠 셰퍼가 함께했으며, 장소는 그로스한스도르프-슈말렌베크에 있는 저희 집이었습니다. 당시 부모님에게는 자녀가 넷이었고, 게다가 친할아버지와 친할머니도 폭격으로 거처를 잃었던 터라 함께 살았습니다.

수년간 아버지께서는 베를리너 토어의 목조 건물(암 슈트로하우스 14/16)에서 법문을 하셨습니다. 한 달에 두 번 『맛지마니까야』를 강독하며 현상 너머의 진실을 깨닫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감각 기관을 제어하고 공양을 절제하는 것 등이 법문 주제였고, 저녁 행사로 막스 글라스호프, 헬무트 헤커 박사, 빌헬름 슈테게만과 함께 질문하고 답변하기도 했습니다. 법회 때마다 자리가 가득 찼습니다. 당시 함께 공부하던 도반 대부분은 이제 더 이상 우리 곁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와 마찬가지로 85세인 우르술라 비엔 법우는 그 시절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진 4. 2023년 여름 함부르크불교협회의 여름 다르마 페스티벌에 참석한 실라완사 테로 스님과 운산스님이 함께 공양하고 있다.

어머니와 저희 다섯 남매의 삶이 쉽지는 않았지만, 저희 대부분은 아버지께 감사하는 마음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현상 이면의 진실을 보여 주셔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어머니는 언젠가 제게 “다시 태어나더라도 네 아버지와 결혼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레모 바이얼라인 거사께서는 제 아버지를 아들처럼 사랑하고 존경했습니다. 거사님은 도반인 프리츠 슈타인슐테와 함께 불교 출판사를 세워, 빨리어 삼장의 독일어 번역, 아시아와 독일의 스님들, 그리고 진지한 수행자들의 법문을 펴내셨습니다. 이 출판사는 콘스탄츠에 있는 크리스티아니 출판사에서 간행한 불서도 인수했습니다.

2005년경, 독일 바이에른 주 프랑켄 지역에서 비구 보디 스님과 레모 바이얼라인 거사께서 포행 중에 부지를 발견하셨습니다. 이곳에 지금의 묵토다야 숲속 수행처가 세워졌습니다. 현재 이 도량에는 유럽의 스님들이 부처님 당시처럼 수행하고 계십니다.

모든 존재가 행복하고 평화를 찾기를.

— 모니카 데베스 보살님의 허락을 받아 게재합니다.

## 한 울타리 안에 여러 불교 전통 공존

테베스 여사께서는 2024년 9월 22일 불교협회 70주년 기념식에서 이 강연을 하셨습니다. 저희에게 매우 감동적인 강연이었습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함부르크불교협회(BGH)는 모니카 여사의 부친이신 폴 테베스 법사를 위시한 창립회원의 원력을 이어받아 테라바다의 전통을 탄실하게 잇고 있습니다. 이 전통에 따라 테라바다의 비구 또는 비구니 스님께서 협회의 지도법사를 맡아 주셨습니다. 초대 지도법사는 나라다 마하테라 스님이셨고, 1987년에는 독일 출신의 테라바다 비구니 아야 케마 스님께서 이어받으셨습니다. 1998년부터는 스리랑카의 실라완사 테로 스님께서 협회를 후원하고 계십니다. 스님은 박사학위를 받으셨으며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나나쁘니까 법당의 주지입니다.

테베스 보살님의 말씀대로, 함부르크불교협회는 초창기에 개인 가정에서 법회를 열었고 1956년 베를리너 토어 인근에 120명을 모실 수 있는 규모로 목조 건물을 마련하여 법당과 도서관으로 활용했습니다. 임시 처소를 몇 차례 거쳐, 여러 불자의 보시에 힘입어 1979년 현재의 도량

사진 5. 2023년 여름 함부르크불교협회 여름 다르마 페스티벌에 참석한 지코 레이로시, 운산스님, 텐진 메톡 스님.



(Beisserstr. 23, 22337 Hamburg)을 마련했습니다. 여기에는 법문과 세미나, 수련을 진행할 공간이 두 곳 있고, 3,000여 권의 불교 서적을 갖춘 도서관, 사무실, 공양간, 그리고 정원을 갖추고 있습니다.

저희 협회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서양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전하고, 깊이 공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며, 일상 속 수행을 돕는 것을 소임으로 합니다. 사람마다 신심과 이해가 다르다는 것을 저희 불교협회에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깨달음을 지향하지만 수행도가 다른 불교 전통이 각자의 가르침을 나누도록 합니다. 이처럼 함부르크불교협회는 여러 불교 전통이 한 울타리 안에서 화합하는 도량입니다.

초심자는 여러 전통의 수행과 명상을 자유롭게 접할 수 있고, 오래 수행하신 분들도 독일과 유럽, 아시아의 스승을 모시고 열리는 주말 정진을 통해 더 깊은 깨달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대다수 프로그램은 초심자에게도 적합합니다. 불법의 오랜 전통에 따라 모든 행사는 자발적인 보시로 이루어지고, 종교에 관계 없이 누구나 참여가능합니다. 

#### 기사 관련 웹사이트

함부르크불교협회: [www.bghh.de](http://www.bghh.de)  
 잉게트라우트 안더스-데베스: [www.buddhistisches-seminar.de](http://www.buddhistisches-seminar.de)  
 바이얼라인 출판사: [www.buddhareden.de](http://www.buddhareden.de)  
 묵토다야 숲속 수행처: [www.muttodaya.org](http://www.muttodaya.org)  
 스라바스티 도량(미국): [www.sravastiabbey.org](http://www.sravastiabbey.org)  
 함부르크티베트센터: [www.tibet.de](http://www.tibet.de)



○ 필자 **툼텐 잠빠**      냉전 시기 동베를린에서 출생. 2013년 미국의 스라바스티 도량에서 툼텐 초드론 스님을 은사로 출가하여 2016년 비구니계를 수지했다. 스라바스티 도량에서 10년 간 대중 생활을 마치고 2022년부터 독일 함부르크불교협회에서 수행하고 있다.



○ 역자 **운산스님**      직지사로 출가. 독일 함부르크대학 아시아-아프리카연구소 인도티베트 학과에서 「유가사지론」을 중심으로 박사학위 논문을 준비하고 있다.

## 근대 하시디즘의 창설자 바알 섴 토프



오강남\_ 캐나다 리자이나대학 명예교수

---

일반적으로 유대교는 야훼 신의 명령을 따르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율법주의적인 종교라고 이해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유대교 전통에도 종교적 심층에 이른 사람들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바알 섴 토프를 들 수 있습니다. 유대교에 이런 인물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의 생각이 어느 면에서 불교나 세계 여러 종교의 심층적 가르침을 생각하게 한다는 점에서는 놀라운 일이기도 합니다.

### 바알 섴 토프의 탄생

18세기 초반 폴란드와 우크라이나 지역에 많이 살고 있던 유대인들 중에는 메시아의 도래를 열망하는 신앙 형태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형식주의에 사로잡혀 메마르기만 한 랍비 전통에도 식상한 상태였습니다. 이런 정신적 환경에서 실생활에서의 체험과 치유를 강조하는 근대 하시디즘 운동이 생겨났습니다. 이 운동의 창시자가 바로 이스라엘 벤 엘리에



사진 1. 이스라엘 벤 엘리에제르(Israel ben Eliezer, 1698~1760).

제르(Israel ben Eliezer, 1698~1760)입니다. 나중에 그에 대한 존경의 의미로 바알 셴 토브(Ba'al Shem Tov), 혹은 줄여서 베쉬트(Besht)라는 호칭으로 불리기도 하였는데 ‘거룩한 이름의 대사’라는 이 이름은 우리말로 성호대사聖號大師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지금은 우크라이나 땅이지만 그 당시 폴란드, 러시아 땅이기도 했던 오코피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 부모를 잃고 후원자의 도움으로 자랐습니다. 학교 다닐 때 가장 잘하는 일은 학교에 결석하는 일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숲에 들어가 자연과 함께하며 깊은 명상에 잠겼습니다. 도저히 랍비가 될 재목이 아니라고 생각한 그의 후원자는 그에게 어린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고 데려오는 일 등의 잔심부름을 하게 했습니다. 놀랍게도 아이들이 그가 하는 이야기를 좋아하고 그를 따랐습니다. 나중에는 유대인 회당에서 허드렛일도 했습니다. 18세에 결혼했지만, 부인이 젊어서 죽자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며 잡일을 맡아 하다가 결국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 사이에 소송 사건이 있을 때면 그가 중재를 해주었는데, 천성이 착하고 정직했을 뿐 아니라 사람의 속을 이해할 수 있는 타고난 능력 때문에 이 일을 훌륭하게 해냈습니다. 이를 좋게 본 어느 돈 많은 독지가가 자기 딸에게는 물어보지도 않고 그를 사윗감으로 점찍었습니다. 이 사실을 딸에게 정식으로 알리지도 못하고 죽었는데, 딸은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 그와 결혼했습니다. 처남의 반대 때문에 말 한 마리만을

몰려받은 바알 섘은 부인과 함께 시골로 들어가 점토나 석회석을 캐어 동네로 가져다 파는 일을 했습니다.

그는 이처럼 자연에 묻혀 일하는 것을 큰 행복으로 여겼습니다. 그 이후 유대인만을 위해 특별히 운영하는 정육점, 여관 등을 운영하기도 했지만 이런 일을 할 때에는 주로 그의 부인이 일을 맡아 하고 그는 숲속에서 명상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둘 사이에는 두 자녀가 있었습니다.

## 폴란드 메드지비지에서 교화

시골에서 농부들과 같이 지내면서 바알 섘은 약초의 효험을 알게 되고, 약초를 이용하여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기 시작했습니다. 이 때문에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들이 자기 말에 귀 기울이는 것을 보고 메드지비지(Medzhybizh)에서 자기의 가르침을 일반인들을 상대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상류층 유대인들이 찾아와 그의 가르침을 받아서 '메드지비지 가문家門'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가문에는 그 당시 이름있던 랍비나 유대인 학자를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계속 몰려들었습니다.

사진 2. 바알 섘 토브가 활동했던 우크라이나 메드지비지(Medzhybizh) 성과 아름다운 숲.



비알 켄이 시작한 하시디즘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범재신론적 (panentheistic) 신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이 만물 속에 내재한다는 생각입니다.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세상의 모든 것은 신이 스스로를 나타내 보이는 신의 현현(顯現)이라 여겼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말을 하면 말에는 생명력이 있는데, 그 생명력이 바로 신의 나타남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선할 뿐, 악 자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악이란 그 자체가 악한 것이라기보다 잘못된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여인의 아름다움을 보고 음욕을 품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그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것은 신이 준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 아름다움을 신의 현현으로 보지 못하고 그것을 자기의 사사로운 목적을 위한 무엇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악이라는 것입니다.

만물 속에 신의 불꽃이 있으므로 만물을 선한 것으로 본다는 것은 모든 사람도 본래 선하다는 일종의 ‘성선설(性善說)’이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의 지금 상태가 어떠하든, 아무리 그들이 악한 사람처럼 보이더라도, 모든 사람은 본질적으로 선하기에 그들을 한결같이 사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친구를 사랑하듯 나를 원수처럼 대하는 사람이라도 한결같은 사랑으로 사랑하는 보편적 사랑을 강조했습니다. 일종의 묵자(墨子)의 ‘겸애설(兼愛說)’을 연상하게 합니다. 이런 원칙에 따라 비알 켄 자신도 사회에서 멸시당하고 천히 여겨지는 이들과 어울렸습니다. 특히 여자들과 어울렸는데, 이 때문에 반대자들로부터 비도덕적이라는 비난을 사기도 했습니다. 그는 “누구도 자기 이웃보다 더 훌륭하다고 생각하지 말라. 누구나 신이 주신 이혜의 분량에 따라 나름대로 신을 섬기고 있기 때문이다.”고 했습니다.

## 영적 지도자 중심으로 가문 형성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른바 죄인들에 대해서도 너그러운 태도를 취했습니다. 죄를 지었다는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대신 그들 속에 있는 신적인 부분, 선한 부분을 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지었다는 죄도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 설명되고 이해되어야 할 무엇이라 보았습니다.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신에게 오르지 못할 정도로 타락할 수는 없다.”고 하며 죄는 오로지 무지와 어리석음일 뿐이라 하였습니다.

만물 속에 살아 움직이는 신의 임재를 강조하는 범재신론적 신관에 입각해서 그는 신을 직접 체험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는 이것이 우리가 삶에서 누려야 할 끊임없는 즐거움(simcha)의 원천이라 주장했습니다. 그는 정통 유대교에서 지나치게 강조하는 금식이나 참회 같은 금욕주의적 종교 형식이나 음울한 엄숙주의를 배격했습니다.

바알 섘이 가르친 하시디즘에서는 ‘기도(dveikut)’가 특별히 중요합니다. 기도를 하며 참회의 눈물을 흘릴 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 있는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음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기도는

사진 3. 우크라이나 메드지비지 소재 바알 섘 토브의 무덤.



또 나와 다른 이들을 하나로 묶어주고 우주 안의 모든 것이 하나됨을 회복하도록 촉진하는 힘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기도가 중요한 것은 그것이 나 자신을 잊게 하는 수단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기도를 통해 나를 완전히 잊어버리면 황홀경에 이르게 되는데, 이때 인간은 자신이나 자기 주위를 의식하지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개별적 존재를 잊어버린 상태를 ‘존재의 소멸(the extinction of existence)’이라 했습니다. 불교에서 ‘니르바나’가 ‘소멸’을 의미한다는 말을 상기시켜 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또 장자가 말하는 ‘내가 나를 여임[吾喪我]’과도 비교될 수 있는 말입니다. 아무튼 이런 상태에 든 사람은 ‘자연과 시간과 생각을 초월’하고 말할 수 없는 기쁨을 경험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하시디즘에서는 이런 상태에 이르기 위한 수단으로 큰 소리로 주문을 외우거나 춤을 추는 방법을 권장하기도 했습니다.

바알 섘 토브가 시작한 하시디즘은 기본적으로 교리 체계나 윤리적 행위 같은 것이 아니라 개인이 경험할 수 있는 종교적 체험을 강조하는 종교운동이었습니다. 이런 종교적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자디크(Zaddik, 의로운 이)’라는 영적 지도자들을 따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이야말로 신과 인간을 연결하는 도관導管 같은 역할을 한다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하시디즘 신도들은 이런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모여 ‘다이너스티dynasty’라는 일종의 가문이나 계보 같은 것을 형성했습니다. 한국 불교에서 볼 수 있는 ‘문중門中’과 비슷한 것이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가문이 큰 것으로 9개, 작은 것으로 30개, 기타 수백 개의 소소한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 19세기 하바드 하시디즘으로 발전

하시디즘은 이처럼 자디크의 권위를 받들었기 때문에 토라를 받드는 정통 랍비 전통의 유대교와 충돌하게 되고, 이로 인해 박해까지 받았습니다. 이런 박해는 그들의 열성과 결속을 더욱 강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19세기에 들어와 하시디즘은 지성을 강조하는 정통 유대교의 가르침을 대량 흡수하여, 감정과 지성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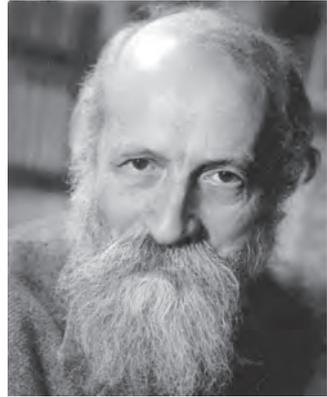


사진 4. 마틴 부버(Martin Buber, 1878~1965). 사진: 위키미디어.

동시에 강조하는 ‘하바드 하시디즘(Habad Hasidism)’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종교운동으로 발전했습니다. ‘하바드’라는 이름은 지혜(Hokhmah)와 이해(Binah)와 지성(Daath)이라는 히브리어 첫 글자를 조합한 것입니다.

이 새로운 형태의 하시디즘에서는 자디크가 영적 체험을 한 사람일 뿐 아니라 토라에 대한 지식도 함께 갖춘 지도자이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영적 체험과 자기를 잊는 수단으로써의 기도를 강조하는 하시디즘의 기본 성격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런 하시디즘에 크게 영향을 받은 사람 중 하나가 서양에 『장자』를 소개하고 『나와 그대(*Ich und Du*)』라는 책으로 유명한 세계적 유대인 사상가 마틴 부버(Martin Buber, 1878~1965)였습니다. ㉞

- 오강남 서울대 종교학 석사, 캐나다 맥매스터대에서 ‘화업법계연구에 대한 연구’로 Ph.D. 학위 취득. 저서로는 『불교 이웃종교로 읽다』, 『세계종교 둘러보기』, 『진짜 종교는 무엇이 다른가』, 『나를 찾아가는 십우도 여행』 등이 있고, 번역서로는 『살아계신 붓다, 살아계신 예수』 등이 있다. 현재 캐나다 리자이나대학 종교학과 명예교수로 있다.

## 일상을 함께하는 정겨운 신



구미래\_ 불교민속연구소 소장

소박한 부뚜막 위에 머무는 조왕신은 크고 작은 바람을 전하며 의지하기에 더없이 편안한 존재이다. 이에 행자는 물론 후원(後院) 소임의 스님들은 수시로 조왕신에게 기도하였다. 갱두(羹頭)를 맡았을 때는 국이 시원하고 깊은 맛으로 끓여지길 빌었고, 공양주 소임이 돌아오면 밥이 고루 잘 익기를 빌었다. 이렇듯 조왕신과 함께하는 후원의 삶은 참으로 든든했을 법하다.

### “새 행자 좀 보내주세요.”

신심이 끝도 없던 행자 시절, 노스님들은 아궁이 앞에 쪼그리고 앉아 초발심을 다지고 또 다졌다. “조왕님, 맞는지 봐주세요.” 하고 부지깥이를 두드리며 『천수경』을 익혔고, 서러울 땐 조왕신에게 마음을 기댄 채 타오르는 불길에 빠져들면 어느새 무념무상이 찾아들곤 하였다.

후원 대중이 부족할 때도 조왕신에게 바람을 전했다. 막내 스님이 뒷



사진 1. 갑사 공양간에 모신 조왕신. 사진: 한국학 중앙연구원.



사진 2. 보문사 공양간에 모신 조왕신.

산에 올라 첫눈에 들어오는 곤은 나뭇가지를 가져와서 부지깽이를 만들어 부뚜막에 세워놓은 채, “새 행자 좀 보내주세요.” 하며 조왕신에게 기도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나면 신기하게도 ‘참신하고 진발심眞發心한 행자’가 들어왔다. 새 행자가 오면 조왕신에게 함께 절 올려 보고하고 장애 없이 식구가 될 수 있도록 빌었다.

일상에서 조왕신을 대하는 모습도 후원을 지키는 어른을 섬기듯 하였다. 반듯하지 않은 공양물이라도 대중이 먼저 손대는 법 없이 조왕신에게 올리는 것이 우선이었다. 깨진 수박을 불전에는 올릴 수 없지만, 바깥에서 들어온 귀한 공양물이니 조왕신에게 올렸다가 먹은 것이다. 조왕신이 엄하고 두려운 신격이라기보다 출가수행자들과 일상을 함께하는 정겨운 신이었음을 느끼게 한다.

특히 부뚜막은 조왕신을 모시는 곳이자 공양간의 청결을 상징하는 공간이라, 예전에는 흙을 물에 개어 덧발라 주는 ‘맥질’을 자주 해야 했다.

부뚜막을 황토로 마감하던 시절이기에 시간이 지나면 흙이 조금씩 흘러 내릴 뿐 아니라 그을음이 끼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찰마다 주기적으로 맥질을 하여, 1960년대 초 탄허呑虛 스님이 학인들과 3년 결사를 하던 삼척 영은사에서는 열흘마다 황토물로 부뚜막과 벽을 칠하는 규범을 지켰다.

매일의 일과로 맥질을 하는 스님도 있었다. 불을 피워 밥을 할 때마다 부뚜막에 발자국이 생기고 그을음이 올라오니 이 일을 일상으로 삼은 것이다. 진관사 노스님은 1950년대 쌍계사 국사암에서 공양주를 살 때, 부뚜막 한쪽에 용기를 준비해 두고 저녁 송농을 내간 다음 황토를 물에 개어 바르며 하루를 마무리하였다. 정갈한 부뚜막에 반들반들 윤나는 가마솥을 걸고 공양을 지었으니, 조왕신 또한 그 정성에 감응할 수밖에 없었을 듯하다.

## 조왕단에 올리는 마지

마지摩脂는 사시巳時에 부처님께만 올리는 것이라 보기 쉽지만, 각 전각의 주인으로 모신 성현과 신중 모두에게 올리는 사찰이 많다. 이를테면 산신각을 지키는 산신, 칠성각을 지키는 칠성신에게도 마지를 올리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공양간은 전각이 아니건만 부뚜막의 조왕단에도 마지가 오른다.

각단 마지의 전통이 깊은 순천 송광사에서는 매일 학인과 행자들이 공양간에서 각 전각의 마지를 내간 다음, 조왕단에 마지를 올리고 있다. 행자가 조왕단 마지의 뚜껑을 열고 죽비를 치면, 모두 일손을 멈추고 조왕신에게 합장 반배를 한다. 송광사 조왕신은 나무로 짠 감실에 탕화로 모시고, 여단이문을 달아 연기와 그을음을 막았다. 탕화 속의 조왕신은

좌우에 아궁이 뿔감을 대는 담시역사擔柴力士, 음식을 만드는 조식취모造食炊母를 거느린 모습이다.

전통 공양간을 복원한 강남 봉은사에서는 가마솥에 불을 때어, 대웅전을 중심으로 매일 12개의 전각에 올릴 사시마지를 짓고 있다. 이때 공양간 중앙에 모신 조왕신에게도 빠짐없이 마지를 올린다. 그런가 하면 동대문 청량사에서는 1995년 대방채에 불이 나기 전까지 공양간 조왕단에 빠짐없이 마지를 올렸는데, 마지를 올리는 분은 부처님 외에 오직 조왕신이었다.

대방에 불이 나서 다시 지을 때 공양간이 없어졌지만, 그전에는 매일 사중에서 조왕불공을 올렸죠. 조왕단에는 바깥에서 들어오는 것, 매일 부엌에서 생산되는 것을 다 올린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도 매일 조왕님께 올리죠.



사진 3. 송광사에서 조왕단에 마지를 올리는 모습.



사진 4. 봉은사에서 조왕단에 마지를 올리는 모습.

청량사 회주 동희스님의 말이다. 산신도 칠성신도 받지 못한 마지가 조왕단에 오른 것은, 공양간에서 만들거나 외부에서 들어오는 모든 음식을 조왕신에게 올렸기 때문이다. 신격의 위상과 무관하게, 대중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존재로서 조왕신에 대한 인식과 감사하는 마음이 일상화되었음을 알려준다.

아울러 ‘매일 조왕불공을 올렸다고 했듯이, 조왕신을 향한 일상의 예경禮敬 또한 간단한 합장 반배에 그치지 않고 정식으로 예경문을 염송하였다. 조석예불을 할 때면 본전의 새벽예불 후와 저녁예불 전에 각 전각의 예불이 이어지는데, 조왕신을 모신 공양간도 예외가 아니었다. 아침저녁의 조왕 예경은 대부분 사찰에서 자취를 감췄으나, 선암사에서는 적묵당寂默堂 공양간에 모신 조왕신을 대상으로 지금도 예경 의식이 이어진다.

사찰에 따라 밥을 다 지었을 때도 조왕신에게 감사기도를 올리고 대방으로 들어거나, 불단에 올릴 마지를 불기佛器에 담아서 조왕단에 먼저 예를 갖춘 다음 내가기도 하였다. 이를테면 해인사에서는 예전에 아침 공양을 지어놓고 공양주가 죽비를 치면 공양간의 모든 대중이 합장 반배한 다음 밥을 퍼서 대방에 들었다. 일상으로 되풀이되는 부처님과 제자들의 공양이지만, 늘 감사한 마음으로 끝까지 소홀함이 없는 정성을 살필 수 있다.

## 선달그름에 올리는 조왕기도

일상의 섬김뿐만 아니라 선달그름이면 갖가지 공양물을 차려놓고 조왕신에게 기도를 올린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대중의 건강을 보살펴준 은혜에 감사하며, ‘사성四聖(불·보살·성문·연각)은 오전에 모시고,

육범六凡(천상·인간·아수라·축생·아귀·지옥)은 해질녘에 부른다는 전통 관념에 따라 초저녁에 올리는 의식이다. 큰 절에서는 대개 주지가 중심이 되지만 ‘대중을 먹여 살리는 조왕님’으로 섬기며 조실이 직접 나와서 절을 올리기도 한다.

그뿐 아니라 조왕신이 하늘에 올라가는 주기가 매달 그믐이라 하여, 서울 전통사찰 가운데 미타사·보문사·승가사·진관사·청량사 등에서는 지금도 그믐마다 조왕기도를 올린다. 이들 사찰은 노스님들이 지극정성으로 조왕신을 섬겨온 전통을 잇고 있으며, ‘불전佛錢을 놓아야 복을 받는다’ 하여 스님들이 조왕단에 불전을 놓고 절하는 풍습도 있다.

큰 절 내에 여러 개의 암자를 두고 각자 살림을 하는 보문종 보문사와 옥수동 미타사에서는 매달 그믐 조왕기도를 어떻게 올릴까. 보문사의 경우, 공용의 전통 공양간이 있어 암자마다 재물을 가져와서 차례대로 기도하는 데 비해, 전통 공양간이 없는 미타사에서는 각 암자의 주방에



사진 5. 범어사에서 선달 보름에 올리는 조왕기도.

모신 조왕신 앞에서 기도를 올린다. 이처럼 암자마다 조왕신을 모셨더라도 전통 공양간이 있을 때는 '부뚜막 위에 모신 조왕신'에게 기도 올리는 것이 법도이다.

범어사에서는 선달 보름에 사천왕과 조왕신에게 각각 기도를 올린다. 이날 저녁 사부대중이 천왕문에 모여 사천왕四天王 기도를 올린 다음, 공양간으로 가서 조왕기도를 이어간다. 외각과 후방에 자리한 천왕문과 공양간은 소홀하기 쉬운 영역이지만, 한 해가 바뀌는 시점에 안과 밖을 보살펴 주는 존재들에게 감사함을 새기며 회향하는 여법한 의례라 하겠다.

사진 6. 진관사에서 선달보름에 올리는 조왕기도.



진관사에서는 매달 그믐에 전통 공양간에서 기도를 올리는 전통이 깊다. 중창주 진관스님이 오대산 월정사 지장암에 머물 때 조왕기도를 장엄하게 모셨기에 그 전통을 이은 것이다. 따라서 매달 원주가 부뚜막에 공양물을 차려놓고 조촐하게 기도를 올리지만 ‘조왕신은 기름진 음식을 즐긴다’ 하여 부각·두부전·녹두전 등 정성들인 재물을 빠뜨리지 않는다.

선달그믐에는 일 년에 단 한 차례 만드는 조왕편이 재물로 함께 오른다. 시루에 오곡을 쪄켜이 쌓아 찌는 조왕편은 ‘조왕신에게 올리는 떡’이라 하여 사찰마다 중시했으나, 근래에는 쉽게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다. 사중의 모든 스님이 모여 「조왕청」으로 공양을 올리고 나면, 대웅전에서 선달그믐의 묵은 제사를 마친 주지가 동참하여 사부대중을 위한 축원이 이어진다.

## 성주는 바깥주인, 조왕은 안주인

조왕신은 대개 남성으로 여기지만 이른 시기에는 여성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모계사회를 반영하는 것이자 부역을 다루는 어머니의 존재가 투영된 것이다. 그러다가 조왕신의 도상에서 드러나듯이, 부계 질서가 강화되면서 유교·불교의 제도권에서는 조왕신을 점차 남성으로 인식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비해 민간에서는 ‘남성 중심의 조상제사’와 ‘여성 중심의 가신신앙’으로 구분하여, 조왕신의 여성성이 두드러진다. 특히 강원지역에서



사진 7. 봉선사 공양간에 모신 조왕신.

는 가신신앙의 대상 중에서도 성주신을 바깥주인, 조왕신을 안주인으로 여긴다. 성주신은 집안의 우두머리 신으로, 다른 지역의 경우 한지로 접은 신체神體를 대들보 등에 걸어두는 데 비해, 이곳에서는 부엌에 성주신을 모신다. 그 이유는 부엌에 머무는 안주인 조왕신과 짝을 이루도록 하기 위함이다.

땅설법 전승 사찰로 알려진 삼척 안정사에서는 윤달이 든 이듬해 시월마다 ‘화엄성주대재華嚴聖主大齋’를 올린다. 104위 화엄성증으로 자리한 옥택신屋宅神이 곧 성주신을 뜻하기에, 이날 성주신을 모시고 가정의 평안을 기원하는 것이다. 이 의례에서 조왕신의 활약이 크다.

우선 조왕신에게 올리는 공양물을 보면 뒤집은 솔뚜껑 위에 청수 주발을 놓고, 양쪽에 ‘숯불이 담긴 화로’와 ‘밥주걱을 넣은 물바가지’를 배치한다. 이는 조왕탱화에 묘사된 담시역사와 조식취모의 민속적인 표현이다. 두 존재를 알지 못하더라도 부엌일이 돌아가려면 부뚜막에 불을 지피고, 밥을 지어 주걱으로 퍼야 하니 모두 조왕신이 흡족해할 필수용구들이다.

또한 청해 모실 분들에게 재회齋會가 개설되었음을 알리는 사자를 ‘조왕사자竈王使者’로 설정해 두고 있다. 수록재·예수재 등의 사자는 명부冥府를 왕래하며 재회를 알리는 사직사자四直使者인 데 비해, 화엄성주대재는 산자를 위한 의례이니 조왕사자를 파견하여 성현과 성중을 청하는 것이다. 조왕신이 주기적으로 하늘을 왕래하는 존재라는 점에 착안하여 사자 역할을 맡긴 셈이다.

부처님께 공양을 올릴 때면, 조왕신이 앞선 가운데 마지를 가마에 모시고 이동하는 독특한 이운의식이 따른다. 존귀한 이에게 식사를 올릴 때 음식을 만든 주방장이 앞장서듯, 공양간을 맡은 조왕신이 마지를 호

위하며 불단으로 향하는 모습이 더없이 극진하다.

의례를 마치면 신도들에게 ‘성주 위목位目’을 나누어주는데, 이는 사찰에서 배부하는 신체에 해당한다. 강원도에서는 가정에 성주신 신체를 모실 때 백지에 실·쌀·등을 묶어두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사찰에서 나누어주는 성주 위목 또한 이를 수용하여, 한지를 접어 쌀을 넣은 뒤 실타래로 밥주걱을 묶은 모습이다.



사진 8. 안정사 화엄성주대재에서 밥주걱을 묶은 성주신 위목.

‘밥주걱’을 함께 묶어주는 것은 안정사의 창조적 발상이다. 민간에서 ‘성주=남편, 조왕=부인’으로 보고 있기에 조왕신을 상징하는 밥주걱을 성주 위목과 짝을 이루게 하였다. 이러한 의미 부여에 대해 신도들은 환호한다. 사찰에서 받은 성주 위목을 집에 모시면, 부처님의 가피와 신종의 위상으로 더욱 든든하게 집을 지켜줄 법하다.

이처럼 조왕신은 부뚜막 위에서 일상을 함께하는 신이기에, 후원을 지키는 어른으로 섬기는 동시에 지극히 민속적인 수용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문화를 꽃피워 왔다. 卍

- **구미래** 안동대학교 민속학과 박사(불교민속 전공). 불교민속연구소 소장,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원, 조계종 성보보존위원. 주요 저서로 『공양간의 수행자들: 사찰 후원의 문화사』, 『한국불교의 일생의례』, 『삼화사 수록재』, 『한국인의 죽음과 사십구재』 등이 있다.

## 돈황 막고굴 석가모니 설법도



김선희\_ 한국불교미술협회 회장

석가모니 설법도는 보리수 아래 깨달음을 얻으신 석가모니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설법하는 모습을 묘사한 불화로 <영산회상도>, <석가불회도>, <석가영산회도>, <영산회상탱> 등으로 불린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보드 가야에서 깨달음을 얻은 후 사르나트로 가서 첫 설법을 했다. 이 설법은 ‘초전법륜初轉法輪’, 즉 처음으로 법륜을 굴린 설법이라고 알려져 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하루도 쉬지 않고 여기저기 다니시며 지혜롭게 사는 길을 말씀하셨다. 일생을 중생교화衆生教化를 위한 설법으로 일관하신 것이다. 돈황 막고굴 벽화에는 이런 부처님의 설법 장면을 생생하게 묘사한 ‘설법도說法圖’가 아주 많이 그려져 있다.

### 시무외인의 석가모니설법도

막고굴 제272굴 <석가모니설법도>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우견편단의 가사를 입고, 오른손은 가슴 앞에 시무외인을 취하고, 왼손은 가사의 한

쪽 끝을 잡고 금강좌金剛座에 결가부좌 자세로 앉아 있다. 양쪽에는 보살과 제자들이 협시하고 있으며, 부처님 머리 위에는 천개가 걸려 있고, 비천이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다. 막고굴 벽화 중 가장 초기의 설법도로서 구성과 인물 배치 등 완성도가 매우 뛰어난 작품이다.

시무외인施無畏印은 불교의 여러 수인 중의 하나로, 모든 생명체에게 두려움 없이 베푼다는 것을 상징한다. 손의 모양은 오른쪽 팔을 약간 직각으로 가슴 앞으로 구부리고, 손가락은 자연스럽게 위쪽으로 뻗어 있으며, 손바닥은 바깥쪽으로 향하고 있는 자세이다. 이 시무외인은 모든 중생을 구제하려는 부처님의 자비로운 염원을 표현하고 있다. 모든 생명체를 편안하게 하고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다고 해서 '시무외施無畏'라고 한다.

불교에서의 수인手印의 유래는 부처님 당시 설법 광경에 대해 경전을 결집할 때 "부처님께서 이 경을 설하실 때 손짓은 이러이러한 모양을 지으셨다."와 같은 증언을 채집하여 기록으로 남겼다. 이후 이 경전 내용의 손짓을 그림으로 형상화한 것이 수인이다. 우리도 대중 앞에서 연설할 때 굳은 자세로 입으로만 말하지 않고 손짓을 지으며 말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대중에게 호소력도 더 크지 않은가?

## 교수交手 석가모니설법도

〈사진 1〉의 불설법도 화면에는 석가모니불과 보살이 아름다운 연꽃의 연꽃 위에서 있으며, 부처님의 몸은 늘씬하고, 통견의 가사를 두르고 가슴 앞에 왼손으로 오른쪽 손목을 잡고 서 있다. 협시보살은 삼주즈珠보관(머리장식)을 쓰고 스카프를 걸치고, 긴 치마나 가사를 입고 우아한



사진 1. 불설법도(막고굴 제249굴, 남벽 중측, 서위, 平凡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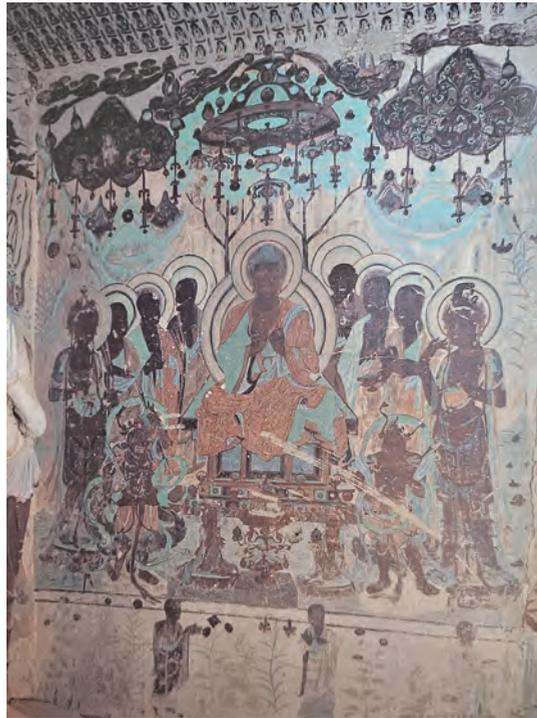


사진 2. 영취산 석가모니설법도(고굴 제332굴, 동벽문 북측, 초당, 平凡社).

자태를 취하고 있다. 그 위에는 장식을 위한 수두獸頭(머리 최상단의 머리장식)가 보개寶蓋를 물고 있는 듯하고, 좌우에는 두 마리의 용으로 장식되어 있고, 양쪽에는 비천들이 춤추고 있다.

〈사진 2〉는 영취산靈鷲山 봉우리가 우뚝 솟아 있고, 산 앞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붉은 가사를 입고 설법인을 하고 수미좌에 앉아 있다. 양측에는 보살과 제자들이 협시하고 있으며, 역사力士는 전투복 차림에 금강저를 들고 위풍당당하게 서 있다. 수미좌 앞의 연못에는 맑은 파도가 출렁이며 연꽃이 피고, 화생化生과 원앙이 한가롭게 노닐고 있다.

영취산은 불교의 성지로 인도 비하르의 갠지스 평원과 보드가야 사이에 위치해 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녹야원(사르나트)에서 초전법륜을 설

하신 후, 현지 마가다 왕국의 왕이 부처님과 제자들을 초대하여 산 정상 근처의 기원정사(祇園精舍)를 지어 제공했는데, 그 후 부처님은 거의 50년 동안 이곳에서 수행과 설법을 하며 제자들을 가르쳤다.

## 만망상(緡網相) 석가모니설법도

〈사진 3〉은 북위시대 막고굴 제248굴의 〈석가모니설법도〉이다. 이 설법도에는 불, 보살, 비천, 본생도 등이 그려져 있으며, 그림에서 역강한 힘이 느껴진다. 석굴 형식은 ‘후진불감식(後陳佛龕式)’으로 방형 또는 장방형의 석실이다. 정면 벽에는 감실을 마련하고 그 안에 미륵불과 보살상을 봉안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 3단 구조로 좌우 벽면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생과 일대기를 그린 〈불전도(佛殿圖)〉와 〈본생도(本生圖)〉가 그려져 있다. 이와 같은 표현으로는 북위시대 제257굴의 남쪽 본존불이나 260굴 등 다른 벽화에서도 확인된다.

윗부분 천개(天蓋) 아래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결가부좌로 연화좌에 앉아 손바닥을 바깥쪽으로 향하고 손가락 사이에는 만망(緡網)이 붙어 있다. 이는 부처님의 32상 중 하나이다. 양쪽에는 19명의 보살이 협시하고 있는데, 가사나 반라의 치마를 입고 있다. 이 두 가지 의상을 서로 번갈아 입고 있으며 설법을 들으면서 즐거운 감탄과 춤을 추는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다. 이 그림은 초기 돈황석굴 벽화 중에서 가장 잘 보존된 대형 〈설법도〉이다.

〈사진 4〉는 제428굴 북주시대 석굴로, 석굴의 규모는 남북조시대 석굴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천장은 박공식 구조로 마치 법당 안에 들어온 느낌을 준다. 전실을 거쳐 주실로 들어오면 반은 예불자를 위한 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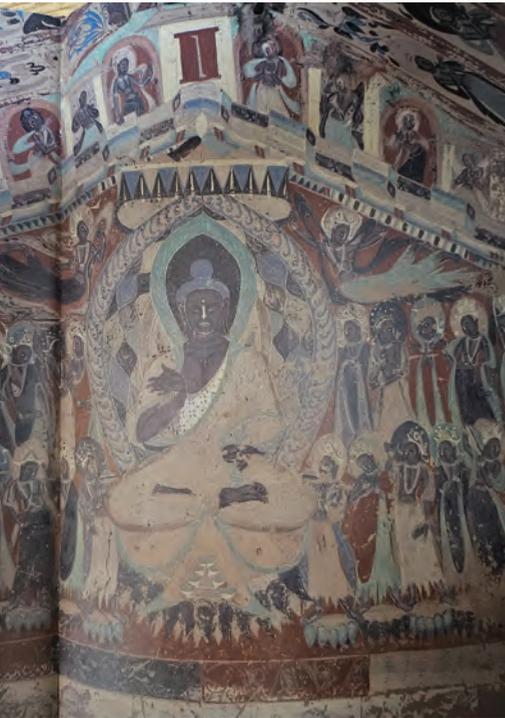


사진 3. 만망상纏網相 석가모니설법도(막고석굴 제 248굴, 북위, 平凡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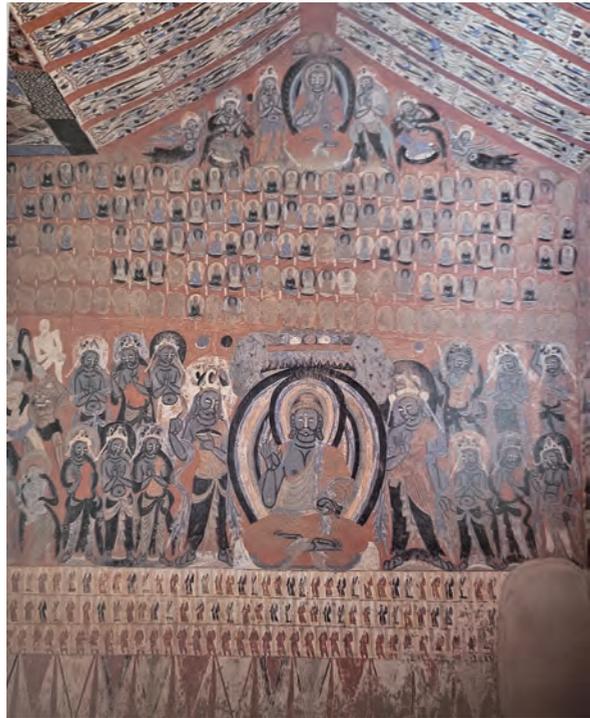


사진 4. 시무외인 설법도(막고굴 굴428굴, 북벽 동쪽, 북주, 平凡社).

간이며, 뒤편에는 중심 탑주가 있다. 탑주 기둥 4면에는 감실을 열고 불상을 모셨다. 중심 탑주 안쪽에는 석가모니의 본생담이 길게 전개되었다. 꽃으로 장식된 화개花蓋 아래 석가모니 부처님은 결가부좌로 좌정하고 우견편단에 손은 시무외인을 하고 설법하는 장면이다. 도상의 상호는 풍만하고 네모난 얼굴이며 장엄하고 숙연한 모습으로 양쪽에 보살이 협시하고 있는데, 얼굴의 눈, 미골, 코, 턱은 흰색으로 칠해져 있어 서역식 양식이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사진 5〉는 막고굴 제251굴로 초창기 북위시대(445~534)에 만들어졌다. 벽화는 특이하게 천인지天人地 삼계를 표현하고 있다. 사람 인인 경사면 아래 산 모양의 공간에 불상과 벽화가 조화를 이루고 있다. 협시보살 2

명, 공양보살 4명, 비천 4명이 그려져 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오른손은 시무외인 왼손은 가사 단을 잡고 결가부좌로 연꽃좌 위에 앉아 법을 설하니, 두 보살이 연꽃 위에 서서 머리를 숙이고 경청하고 있다. 천개 위에서는 천궁의 악사들이 악기를 연주하고 춤을 추고 있다. 이 벽화는 후기 인상파나 야수파의 그림이 연상되며 강렬하고 원색적이다. 전체적으로 검은색이 주색이며, 하늘색을 사용해서 종교적 경건함이 느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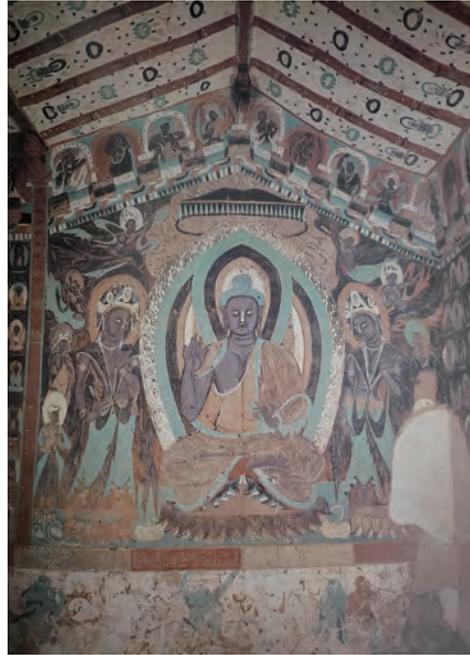


사진 5. 석가모니설법도(막고굴 제251굴, 전실 북벽, 북위, 平凡社).

## 사라쌍수 석가모니설법도

〈사진 6〉은 제244굴로 수나라 말기에서 당나라 초기(581~618)에 만들어졌다. 석실에는 삼세불이 모셔졌으며, 중앙에는 석가불이 있고, 좌우에는 과거 연등불과 미래 미륵불이 있다. 그 사이에는 가섭과 문수보살이 모셔져 있다. 특징으로는 석가와 미륵 사이에 아난과 보현보살이 모셔져 있다는 점이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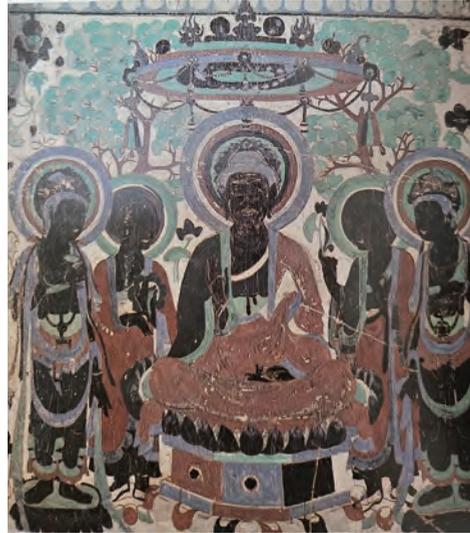


사진 6. 사라쌍수 석가모니설법도(막고굴 제244굴, 북벽동측중층, 수대, 平凡社).



사진 7. 불설법도(막고굴 제17굴, 건본 채색, 당대, 영국 대영박물관 소장, 卍凡社).

무외인을 하고 결가부좌로 팔각 수미좌에 앉아 설법 중이다. 양측에는 제자와 보살들이 협시하고 있는데, 연꽃이나 경전을 들고 있다. 천개 옆에는 나무 두 그루가 서 있는데, 가지가 번성하고 잎이 무성하며 비취색이 선명하다. 구성은 엄정하고 화면은 정교하고 섬세하며, 색상은 순수하고 질박하며 청선하고 명쾌하다.

〈사진 7〉은 1907년 영국인 스타인Stein이 돈황 막고굴 장경동에서 가져간 것이다. 이 그림은 막고굴 제17굴에서 출토된 가장 초기이자 가장 잘 보존된 그림 중 하나이며, 돈황 석굴 벽화에 나오는 수隨나라와 당唐나라 초기의 정토변 및 설법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비록 어떤 사람들은 주존불이 아미타불阿彌陀佛이고, 그 옆에 협시가 관음과 대세지라고 보기도 하지만, 주존이 석가모니불인 것으로 확정되는데, 설법인은 석가모니불과 아미타불의 공동된 수세手勢(두 부처 모두 중생을 구제하고 깨달음으로 이끄는 역할)이다.

이 그림에는 역사상 석가모니 부처님을 따르며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대승보살 외에 소승을 대표하는 비구들이 그려져 있는데, 이 여섯 비구가 석가모니불이 주존불임을 식별하는 주된 근거가 된다. 그 밖에 이 그림은 독특한 양식은 없으나 세심한 관찰을 통해 인물, 특히 비구 스님의 머리를 아주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있음이 주목된다. 

○ 김선희 동국대학교 및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 수료,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그 후 동국대학교 연구교수, 창원대학교 외래교수, 경상남도문화재위원회 전문위원, 경상남도 전통사찰보존위원회 위원, 창원민속역사박물관 자문위원, 한국불교미술협회 회장, 한국교수불자연합회 감사 및 불교미술 작가로 활동 중이다.

도서출판 장경각에서 펴낸  
**성철대종사의 법어집**

**쉬운 말로 만나는 성철스님의 가르침**

**자기를 바로 봅시다**  
퇴옹성철 | 15,000원

**남을 위해 기도합니다**  
퇴옹성철 | 6,000원

**영원한 자유**  
퇴옹성철 | 13,000원

**성철스님 화두 참선법**  
원택스님 엮음 | 12,000원

**영원한 자유의 길**  
퇴옹성철 | 6,000원

**이뤄꼬**  
퇴옹성철 | 6,000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퇴옹성철 | 6,000원

**선과 불교사상의 정수를 밝힌 성철스님의 법어집**

**백일법문(상·중·하)**  
퇴옹성철 | 각 권15,000원

**성철스님의 임제록 평석**  
퇴옹성철 평석, 원택스님 정리 | 25,000원

**성철스님의 동향본 육조단경**  
퇴옹성철 | 15,000원

**성철스님의 신심명·증도가 강설**  
퇴옹성철 | 15,000원

**성철스님 평석 선문정로**  
퇴옹성철 | 15,000원

**돈오입도요문론 강설**  
퇴옹성철 | 13,000원

**무엇이 너의 본래면목이냐(본지풍광 설화)**  
퇴옹성철 | 38,000원

**성철스님의 삶과 가르침을 만날 수 있는 책**

**성철스님 시봉 이야기**  
원택스님 | 18,000원

**아침바다 붉은 해 솟아 오르네**  
원택스님 책임편집 | 13,000원

**성철스님과 나**  
원택스님 | 9,000원

**정독 선문정로**  
강경구 | 42,000원

**성철스님의 짧지만 큰 가르침**  
원택스님 엮음 | 5,000원

**성철스님과 아비라기도**  
장성욱 | 13,000원

## 아득히 멀고 먼 따왕사원



김규현\_ 티베트문화연구소 소장

따왕사원이 자리 잡은 아루나 찰주는 아득히 멀다. 거대한 인도 대륙에서도 최동북부에 자리 잡고 있는 곳으로 이름마저도 ‘해가 뜨는 곳’으로 불린다. 북쪽으로는 티베트, 남쪽으로는 방글라데시, 동쪽으로는 미얀마, 그리고 서쪽으로는 부탄왕국에 접해 있다. 마치 부탄왕국 뒤에 숨겨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 본국 인도와는 ‘실리구리 통로(Siliguri Corridor)’로 겨우 연결된, 외로운 히말라야 산속의 외톨이 땅이다. 그렇기에 따왕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선 인도 국내선을 타고



사진 1. 거대하고 아름다운 3단 구조의 따왕 사원 일주문.



사진 2. 경내 입구에 자리 잡은 아름다운 티베트식 카페.

아쌘주(Asam D.)의 구와하띠(Guwahati)나 떼즈뿌르(Tezpur) 공항에서 내려 지프차로 갈아타야 한다.

힘들게 아쌘주까지 갔다고 해도 또 다른 걸림돌이 기다리고 있다. 바로 ‘제한지역 방문허가증(PAP)’이다. 여행허가는 2가지 종류가 있는데, 외국인은 반드시 ‘외국인용 허가(Protected Area Permit)’가 필요하단다. 물론 바가지요금이다. 필자도 2박 3일만에 허가증을 받으면서 들은 말은 “한국 사람은 처음”이었다.

그다음은 따왕까지 가는 합승 지프[Share Jeep]을 수소문하여 가격 흥정을 해놓고 이른 새벽에 출발해야 한다. 떼즈뿌르에서 따왕까지는 약 330km거리에 대략 12시간 정도 소요되기에 오밤중에 내리면 숙소 잡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가는 동안 운전기사에게 부탁하여 사원에서 제일 가까운 곳에 숙소를 예약해 두는 것이 좋다.

## 옛 티베트의 영토 ‘뮌울’

현 아루나찰은 중세기 때부터 티베트 땅으로 ‘뮌울(Mön Yul)’로, 사람들은 ‘뮌빠(Mönpas)’라고 불렀다. 「티베트 연대기」에 따르면 9세기경 붕괴된 토번제국 왕의 후손들이 이곳으로 들어와 소왕국을 세웠기에 지금도 겉으로는 인도 땅이지만 ‘속으로는’ 티베트이다.

17세기에 들어와서 ‘법왕제도’를 확립한 위대한 제5대 달라이 라마 롱상 가초가 ‘뮌울’을 다스리기 위해 복합행정 중심지인 ‘중(Dzong)’이라는 요새를 만들었다. 당시 사원은 별도로 라마승을 주로 하는, ‘까또(Kato)의회’를 두어 사원을 자체적으로 관리해 왔다. 지금도 그런 제도는 유효하여 비록 주인은 바뀌어도 옛날 티베트적 제도는 살아 있다.

영국의 식민지 통치가 끝난 후 인도는 1947년에 독립하였고 붉은 중국도 1949년에 건국하면서 티베트 본토를 차지했지만, 따왕이 속한 아



사진 3. 카페 안에서 히말라야의 정화精華인 ‘말리구라스’가 흐드러지게 피어 있는 따왕추 계곡을 내려다보며 한 잔의 차를 마실 수 있다.



사진 4. 따왕사원 입구 ‘마니꼬르 회전통’ 앞에 선 필자.

사진 5. 초가을인데도 거대한 가람에 새벽 눈이 사뿐히 내리고 있다.



루나찰은 1987년 2월 20일에 인도의 한 주(州)로 편입되었다.

그 배경은 1914년 북인도 심라(Simla)에서 열린 영국, 인도, 티베트의 3자 회의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티베트는 언어와 문화권을 기준으로 국경선을 정하자고 제안했지만, 영국령 인도의 외교장관이던 헨리 맥마흔은, 히말라야 남쪽에 있는 아루나찰을 인도 영토로 편입시키자고 제안하였다. 티베트로서는 자국이 통치하던 일부 지역을 인도로 넘겨주는 국경선



을 인정하기 싫었지만 독립을 위해서는 영국의 지원이 필요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십라조약'에 서명했고, 이어서 영국이 설정한 이른바 말썽 많은 '맥마혼 라인(McMahon Line)'이 지도 위에 그어졌다.

그러나 중국은 이 '라인'을 인정할 수 없다며 당시 '실효지배'를 하고 있는 인도가 군사초소를 설치한 것을 계기로 여러 차례 무력충돌을 일으켰고 이런 상황은 현재도 진행형이다.

그러니까 ‘뫼을’은 원래 티베트 땅인데, 중국과 인도가 현재 서로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 곳이 어디 여기뿐이라? 티베트 본토는 차지하고라도 라다크, 시킴, 무스탕, 부탄왕국도 모두 같은 처지인 것을….

## 백마가 선택한 거찰 따왕사원

아득히 멀고 높은 3,300m에 위치한 따왕사원에는 한때는 700여 명의 승려들이 거주하고 있었다고 하나 현재는 450여 명의 겔룩빠 승려들이 있다. 이런 규모라면 인도대륙 최대의 사원이고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큰 사원이라는 말이 허황된 것은 아니다. 더구나 ‘문화대혁명’ 때 피해



사진 6. 따왕사원 서쪽 하늘이 저녁노을에 물들어 가면서 나그네로 하여금 객수에 젖게 한다.



사진 7. 아침 조회를 위해 강당 마당에 모여 있는 어린 겔룩빠 사미승들.

를 받지 않았던 몇 안 되는 곳이어서 문화재 보호차원에서도 귀중한 사찰이 아닐 수 없다.

따왕의 정식 명칭은 ‘따왕 갈단남갈 라째(Tawang Galdan Namgyal Lhatse)’이다. 풀이하자면 ‘따왕’은 ‘말에 의해 선택된’ 뜻이기에 ‘백마가 점지한, 완전한 승리의 신성한 낙원’이라는 뜻이다. 17세기 위대한 제5대 달라이 라마 록상 가초(Nagwang L.G.)의 원력을 성취하기 위해 파견된 메라 라마(Mera Lama)에 의해 설립되었다.

당시 메라 라마는 막강한 실권자가 원하는 최고의 사원을 세우기 위해서 최고의 명당자리를 찾아 오랜 기간 히말라야를 돌아다니다 지쳐서 동굴에서 명상에 들어 어떤 계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자신의 백마가 사라져 버린 것을 알고 난감한 처지에 빠져 우선 말을 찾아 헤매다

가 자기 백마를 찾아내긴 했는데, 글썄 그곳에서 서기瑞氣가 뻗치는 것을 보고 '숙세의 인연터'라고 확신하고 사원 건립을 시작하였다고 한다.

따왕사원의 배치도는 매우 특이하다. 천하의 명찰, 대찰을 두루 섭렵한 필자의 눈에도 매우 이채로운 구도였다. 사원은 3층 구조로 65개의 주거용 건물들이 늘어서 있고 282m에 달하는 여러 겹의 벽에 둘러싸여 있는데, 그 많은 건물들 사이를 시원한 도로가 연결하고 있다.



사진 8. 두강라강 법당 앞 넓은 마당을 중심으로 중요한 건물들이 자리 잡고 있다.



사진 9. 두강라강 내부 모습.

의식이 거행되는 중앙광장을 중심으로 중요한 건물들이 배열되어 있는데, 크게 6개 건물군으로 구성된 사원을 올려다보면 마치 히말라야 위에 왕관을 씌워 놓은 듯 보이기도 하여 웅장하고 성스럽다.

사원 중앙마당으로 들어서면 먼저 까카링(Kakaling) 대문에 이른다. 마치 우리 법당의 ‘닫집’을 연상시키는 복합구조의 이 대문은 각종 오색 만다라로 현란하게 꾸며져 있고, 그 주위로 각종 수호신들이 사원을 굳게 지키고 있는 듯 서 있다.

중앙광장 끝에는 두캉라캉(Dukhang Lhakhang)이 우뚝하다. 우리의 대웅전같이 사원의 무게 중심을 이루는 건물로써, 모든 승려들이 한자리에 모일 때 이용되는 큰 법당이다. 이 두캉 안에는 거대한 미륵불상이 자리 잡고 있는데, 불상의 크기가 거대해서 2층에서 내려다보아야 불상의 전부가 파악될 정도이다.

한 가지 덧붙일 것이 있다면, 파왕사원과 겔룩빠 종단 그리고 제14대 달라이 라마의 인연에 대해서다. 성하는 1959년 망명길에 처음 인도로 들어와 파왕사원에 도착하여 인도 본토로 이동하기 전에 며칠 동안 이 사원에서 머무르셨다고 한다. 그런 인연으로 2009년 11월 8일 파왕사원을 방문하였고, 또다시 2017년에도 방문하여 거창한 법회를 여는 특별한 관심을 과시하고 있어서 중국 당국의 촉각을 세우게 하고 있다.

참, 이곳 어딘가에 비운悲運의 제6대 달라이 라마 잠양 가쑤(Tsangyang Gyatso, 倉央嘉措, 1683~1707)의 생가도 있으니, 이곳 파왕은 겔룩빠 종파와는 인연이 깊은 곳이라 하겠다. ㊦

○ **다정 김규현** 현재 10년째 ‘인생 4주기’ 중의 ‘유행기遊行期’를 보내려고 히말라야의 안나푸르나로 들어가 네팔학교에서 자원봉사를 하면서 틈틈이 히말라야 권역의 불교유적을 순례하고 있다.

# 하나의 물체가 온 우주를 바꾼다



양형진\_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일반상대성이론을 다룬 지난 호의 글에서 뉴턴역학에는 설명할 수 없는 문제와 수궁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 설명할 수 없었던 타원 궤도의 문제를 지난 호에서 다뤘고, 이번 글에서는 수궁하기 어려운 문제를 논의하고자 한다. 이는 ‘원거리 상호작용(action at a distance)’이다. 만유인력의 법칙에 의하면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상호작용의 세기는 두

물체의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 그들 사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여기서 두 물체의 질량의 곱을 두 물체의 전하량의 곱으로 바꾸면 전자기학에서의 쿨롱(Coulomb, 1736~1806)의 법칙이 된다. 만유인력의 법칙이나 쿨롱의 법칙에서 수궁하기 어려운 것은 멀리 떨어진 두 물체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면서 서로 힘



사진 1. 샤를 오귀스탱 드 쿨롱(Charles Augustin de Coulomb, 1736~1806). 사진: 위키피디아.

을 주고받을 수 있는가이다. 이 글에서는 만유인력을 중심으로 논의하겠다.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안드로메다 성운은 200만 년 전에 그 성운을 떠난 빛이고, 내가 지금 보는 태양은 500초 전에 태양을 떠난 빛이다. 그런데 태양은 언제나 자신이 있었던 방향으로 지구를 끌어당긴다. 500초 전의 태양이 지금 지구가 어디 있을지를 예상하고 자신을 향하는 방향으로 지구를 끌어당긴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

200만 년 전의 안드로메다 성운이 지금 지구가 어디 있을지를 안다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다. 뉴턴도 이 문제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뉴턴역학의 엄청난 성공에 파묻혀 그냥 넘어갔다. 이 문제는 패러데이(Michael Faraday, 1791~1867)가 물리학에 장場(field)이라는 개념을 도입하면서 실마리를 찾게 됐고, 아인슈타인이 일반상대성이론을 제시하면서 완벽하게 해결됐다. 뉴턴역학이 안고 있던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한 패러데이의 장과 아인슈타인의 일반상대성이론을 살펴보자.

## 패러데이의 장: 존재가 우주를 바꾼다

태양 주위에서 빛이 휘는 것처럼, 존재자가 공간을 바꾼다는 생각은 사실 현대물리학 이전에도 있었다. 패러데이의 장이 그것이다. 패러데이는 현대물리학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장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전자기 유도(electromagnetic induction) 법칙을 세우면서 고전 전자



사진 2. 마이클 패러데이(Michael Faraday, 1791~1867). 사진: 위키피디아.

기학의 체계를 확립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뉴턴역학의 성공은 우주 전체가 뉴턴의 법칙으로 운행되는 역학적 체계라고 믿게 했지만, 뉴턴의 역학적 모형으로는 적절히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 과학의 영역에 나타났다. 그 계 전자기 현상이다. 패러데이는 이 분야에서 혁명적인 돌파구를 마련했고, 맥스웰(James Maxwell, 1831~1879)은 전자기 현상을 수학적으로 기술



사진 3. 제임스 맥스웰(James Maxwell, 1831~1879). 사진: 위키피디아.

하고 종합하여 맥스웰 방정식을 세우면서 전자기학을 완성했다. 헤르츠(Heinrich Rudolf Hertz, 1857~1894)는 이 방정식이 예측한 전자기파를 실험적으로 확인했다. 패러데이는 갈릴레이와 함께 가장 위대한 물리학자였다. 수많은 업적이 있지만, 여기서는 패러데이의 장(field)만 다루겠다.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은 두 질량이 서로 끌어당기는 것으로 표현되고, 쿨롱의 전기력의 법칙은 두 전하가 서로 밀거나 당기는 것으로 표현된다. 패러데이는 이런 현상을 이전 사람들과는 다르게 생각했다. 그는 전하가 주위 공간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다. 전하가 어떤 공간에 놓이면 이 전하의 영향으로 공간은 전하가 없었던 이전과 다르게 변한다는 것이다. 어떻게 달라지는가? 그는 이 달라진 공간의 변화를 화살표를 사용하여 전기력선으로 표현했다. 이 달라진 정도를 물리학에서는 전기장(electric field)이라고 한다. 이는 전하에 의해 공간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나타낸다. 이에 의하면 두 전하가 직접적으로 서로 힘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다. 첫 번째 전하가 바꿔놓은 공간의 전기장에 두 번째 전하가 반응하고, 두

번째 전하가 바뀌놓은 공간의 전기장에 첫 번째 전하가 반응한다.

이 달라짐을 자기 현상에 적용한 게 자기장(magnetic field)이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막대자석 위에 놓인 판 위에 철 가루를 뿌려 놓으면 막대자석이 만든 자기장에 따라 철 가루가 정렬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는 자석이 자기장을 만들면서 주위 공간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자석뿐 아니라 전류(전하의 흐름)도 자기장을 만들어 낸다.<sup>1)</sup> 패러데이는 자기장도 화살표를 사용하여 자기력선으로 표현했다. 전기장과 자기장을 통칭하여 전자기장(electromagnetic field)이라고 한다.

이렇게 물체가 주위 공간을 바꾼다는 것은 중력에서도 마찬가지다. 전하나 전류처럼, 질량을 가진 물체도 공간을 변화시킨다. 이에 의하면 물체를 낙하하게 하는 것은 지구가 아니다. 지구가 중력장을 만들면서 공간을 바꾸면, 중력장이 형성되어 바뀐 공간에 물체가 반응하면서 지구 방향으로 끌려간다. 이 순간의 안드로메다 성운이 지구를 끄는 것이 아니다. 200만 년 전의 안드로메다 성운이 지구 주변의 공간을 변화시켰고, 이 변형된 공간을 따라 지금의 지구가 끌려간다. 이렇게 보아야만, 나는 이 순간의 태양을 볼 수 없고 내가 보는 것은 8분 전의 태양이지만, 지구와 태양 사이의 만유인력은 지구를 태양이 있었던 방향으로 끈다는 현상이 이해될 수 있다.

---

1) 상대성이론에 의하면 오직 상대속도만 있으므로, 하나의 물체가 정지해 있는지 아니면 움직이는지는 관측자에 따라 달라진다. 정지한 전하에 의해 전기장이 생기고 움직이는 전하에 의해 자기장이 생기므로, 전기장과 자기장의 세기 또한 관측자에 따라 달라진다. 어느 한 전하를 정지해 있다고 보는 관측자에게는 전기장이 나타나고, 이 전하를 움직인다고 관측하는 관측자에게는 자기장이 나타난다. 이는 전기장과 자기장이 근원적으로는 같은 현상이라는 것이다. 전자기학을 종합한 맥스웰의 네 방정식은 상대성이론에서는 단 하나의 방정식으로 통합된다.

안드로메다 얘기를 하면서 고민에 빠지지 않을 수 없었다. 200만 년 전의 안드로메다 성운에 의해 현재의 지구 공간이 변화하기 때문이다. 영향력을 행사한 안드로메다에 초점을 맞춘다면 과거 시제를 써야 하고, 변화한 현재의 지구 공간에 초점을 맞춘다면 현재 시제를 써야 한다. 이는 공간의 변화가 공간으로 한정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공간의 변화는 시간의 변화를 동반하지 않을 수 없다. 존재와 공간과 시간이 이렇게 한덩어리로 같이 변한다는 것만으로도 우주는 신비롭다.

## 세간: 우리가 사는 우주

전하나 전류나 자석이 전자기장을 만들건 질량이 중력장을 만들건, 우주를 구성하는 물체가 공간의 성질을 바꾸는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에서는 모두 같다. 이는 세계의 실재(reality)를 바라보는 관념에 있어 역사상 가장 극적이고 심오한 변화일 것이다. 뉴턴역학의 기본 전제인 절대공간과 절대시간과 결별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뉴턴과 칸트의 우주는 정해진 시간과 공간 위에서 운동하는 물질로 구성돼 있다. 패러데이의 장은 이 고전적 우주관에서 탈피하는 돌파구를 만들었다. 물질에 의해 형성되는 장이라는 개념을 패러데이가 제시함으로써, 공간이라는 배경 위에 존재하는 원자의 집합체가 우주라는 근대적 우주관이 정당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존재가 시간과 공간이라는 배경 위에 단순히 그저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가 시공간을 만들어 낸다는 생각은 패러데이에서 시작하여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을 거치면서 더욱 깊고 명확해진다. 특수상대성이론이 시간과 공간이 서로 넘나든다는 것을 보이면서, 우리가 사는 우

우가 3차원 공간과 1차원 시간의 세계가 아니라 4차원 시공간(space-time)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일반상대성이론을 통해 존재자가 뿜어내는 중력장(gravitational field)이 공간과 시간을 휘게 한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존재자와 상관없는 절대시간과 절대공간이 성립할 수 없음을 확증했다. 시간과 공간에 상관없는 존재자로 구성된 것이 우리 우주가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 내는 존재자로 구성된 것이 우리 우주다.

### 유클리드기하학의 착각

여기서 우리는 유클리드기하학의 5번째 공리인 평행선공리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이 공리에 의하며 그림 ①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 직선과 교차하는 제3의 선분이 만드는 한쪽 내부 각의 합이  $180^\circ$ 보다 작으면, 이 두 직선은 언젠가 만난다. 이는 두 직선이 평행하면, 이 두 직선과 교차하는 제3의 선분이 만드는 한쪽 내부 각의 합이  $180^\circ$ 라는 것이다. 이런 두 직선을 우리는 평행선이라고 부른다. 문제는 이런 평행선이 과연 우리 우주에 존재하는가이다.



그림 ① 두 직선과 교차하는 제3의 선분이 만드는 한쪽 내부 각의 합이  $180^\circ$ 보다 작으면, 이 두 직선은 언젠가 만난다. 내부 각의 합이  $180^\circ$ 이면 두 직선은 평행하다.

시공간이 우주의 물질적 분포로 결정된다면, 시공간은 휘어지지 않을 수 없다. 시공간의 휘어짐이 그림 ②와 같다면 한쪽 내부 각의 합이  $180^\circ$ 보다 작아도 두 직선은 만나지 않을 수 있다. 시공간의 휘어짐이 그림 ③과 같다면 한쪽 내부 각의 합이  $180^\circ$ 여도 두 직선은 만날 수 있다. 우주에 존재하는 물체의 분포로 시공간이 형성되므로 실제의 시공간은 그림 ②나 그림 ③보다 훨씬 복잡한 모양일 것이다. 그 모양이 어떤 것이건 상관없이 우리 우주에는 유클리드기하학의 5번째 공리가 말하는 평행선은 존재하지 않는다. 유클리드기하학이 말하는 평행선은 우리 우주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상상이 만들어 낸 환영(illusion)이다. 지구 표면을 무한히 펼쳐지는 2차원 평면이라고 하는 것과 같이 환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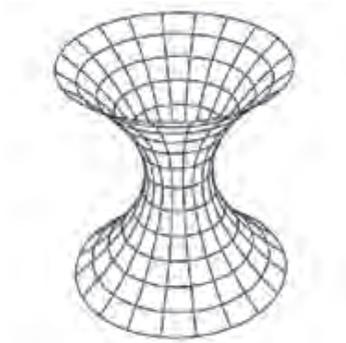


그림 ② 이런 시공간에서는 한쪽 내부 각의 합이  $180^\circ$ 보다 작아도 두 직선은 만나지 않을 수 있다.



그림 ③ 이런 시공간에서는 한쪽 내부 각의 합이  $180^\circ$ 여도 두 직선은 만날 수 있다.

## 원융圓融: 온 우주가 하나에 들어온다

이제 손에 들고 있는 물건 하나를 놓는다고 생각해 보자. 그 물건은 아래로 떨어질 것이다. 지구 중력 때문이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너무 쉽게 말하는 것이다. 사실은 지구를 구성하는 수많은 하나하나의 입자들이 그 물건을 각각 자신의 위치로 끌어당기는 것이다. 이 끌어당김을 방향까지 고려해서 하나하나 더하면 그게 지구 중력이 된다.<sup>2)</sup> 이는 하나의 물건이 낙하할 때 전 지구가 참여한다는 것이다. 낙엽 하나가 떨어지는 것은 아주 단순한 현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단순한 현상마저도 끝없이 켜켜이 쌓인 연기緣起, 중중무진重重無盡한 연기緣起가 뭉어져서 나타나게 된다.

낙하와 관련하여 지구를 구성하는 질량이 만드는 중력장을 생각해 보자.<sup>3)</sup> 일반상대성이론에 의하면 낙하 현상은 지구 근처에서 나타나는 시공간의 휘어짐에 의해 생긴다. 이 시공간의 휘어짐은 지구를 구성하는 모든 물체의 질량이 만들어 낸 것이다. 지구를 구성하는 하나하나의 모든 물체는 지구 근처의 시공간을 휘어지게 하는 일에 참여함으로써, 물체를 지구 중심 방향으로 낙하하게 한다. 시공간을 휘어지게 한다는 것은 우주를 바꾼다는 것이고, 물체를 떨어뜨린다는 것은 그 물체에 벌어

- 
- 2) 지구를 구성하는 하나하나의 입자들과 한 물체 사이에는 만유인력이 작용한다. 이 한 물체에 작용하는 만유인력을 모두 더하면 지구 중력이 된다. 뉴턴은 자신이 만든 적분을 사용하여 이를 증명했다. 적분은 미세하게 나눈(分) 것을 더하는(積) 계산이다.
  - 3) 패러데이의 장은 원래 전자기장에 대한 것이었다. 전자기장이 중력보다 세기는 크지만, 거의 모든 원자는 중성이어서 우주의 전체적인 운동이나 진화는 거의 전적으로 만유인력에 의해 진행된다. 존재자에 의한 시공간의 변화도 만유인력에 의한 것이므로, 이 글에서는 만유인력만 다룬다.

지는 사건(event) 혹은 현상에 개입한다는 것이다. 하나의 물체가 온 우주를 바꾸고, 하나의 현상과 하나의 물체가 온 우주에 개입한다.

낙하하는 한 물체뿐 아니라 이 우주의 모든 물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서로 개입하는 것을 화엄에서는 상입相入(mutual penetration)이라고 한다. 의상스님은 하나의 작은 티끌이 온 우주를 품는다[一微塵中含十劫]고 하셨다. 지금까지 한 얘기가 모두 이것이므로 더 이상 설명은 필요 없으리라 생각한다.

화엄의 3조 법장스님은 서까래가 집이라고 하셨다. 서까래는 집 밖에 있으면 단지 나무토막일 뿐이다. 이 나무토막이 서까래의 위치에 자리 잡을 때, 집의 모든 것이 다 들어오면서 비로소 서까래가 된다. 집의 모든 것이 다 들어와 있으므로 서까래가 집이다. 숫자 123도 마찬가지다. 1은 2나 3보다 작지만, 123의 1은 2나 3보다 큰 백이다. 왜 1이 백이 되는가? 2와 3이 1에 다 들어오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1을 백이라고 읽는다. 서까래가 집을 만들고 1이 123을 만들지만, 집이 있어야 나무토막이 서까래가 되고 123이 있어야 1이 백이 된다. 이 원융圓融이 우리 우주의 모습이다. 하나가 온 우주에 다 들어가고, 온 우주가 하나에 다 들어온다. 하나가 온 우주를 만들고, 온 우주가 하나를 만든다. 卍

○ 양형진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양자정보이론 전공. (사)한국불교발전연구원장. 『산하대지가 참 빛이다 (과학으로 보는 불교의 중심사상)』, 『양형진의 과학으로 세상보기』 등의 저서가 있다.

## ‘공公’과 ‘사私’의 윤리 ①



허남결\_ 동국대 불교학부 명예교수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안타까움을 느낀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가 불러온 국내외적 후폭풍을 두고 하는 말이다. 우리 국민 누구도 원하지 않았고 또 겪지 않아도 될 불필요한 고통이기 때문에 더욱 울화통이 터진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윤석열 대통령의 영장 집행을 둘러싸고 벌어진 수사기관과 대통령 경호처 사이의 물리적 실랑이는 나라 안팎의 조롱거리가 되었다.

국가공권력의 권위는 땅바닥에 떨어졌고, 대통령 경호처의 조직적 저항은 윤석열 개인 사병화私兵化 논란까지 불러왔다. 여기서 우리는 인공지능(AI)의 시대인 21세기에도 한국사회가 여전히 ‘공公’적 가치와 ‘사私’적 친분(의리)의 관계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한다는 도덕적 자괴감을 떨칠 수 없다. 이번 비상계엄령사태의 발생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과정에서 이런 ‘사’적 윤리의식의 시대적 한계가 고스란히 드러났다고 볼 수 있겠다.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며칠째 추운 겨울밤을 꼬박 새운 20대 여성 청년들의 너무나 울곧은 외침 소리를 듣고 우리 기성세대는 정

말 반성해야 하지 않을까 싶었다. 굳이 이런 글을 쓰는 이유도 미래세대의 건강한 정의감을 함께 공유하고 확산시킬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기 때문이다.

## 한국사회에서 ‘공’과 ‘사’의 인식문제

우리의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 ‘○○○는 공과 사가 분명한 사람’이라는 말은 칭찬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반드시 그런 의미만 담고 있지 않은, 다소 중의적인 뉘앙스를 함축하고 있는 말인 것 같다. 이 말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경우에는 ‘그(녀)가 합리적인 원칙을 가지고 있는 공평무사한 사람’이라는 뜻에 가까운 반면,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질 경우에는 ‘그(녀)가 인간적인 면모가 다소 부족한 어딘가 모난 사람’임을 가리킬 수도 있다는 뜻이다. 그런가 하면 더러는 자기가 처한 상황이나 편익에 따라 이 말을 이율배반적으로 쓰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목격할 수 있다.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일이지만, 어린아이를 키우고 있는 우리나라 부모들은 때때로 매우 독특한 행태를 보인다. 자기 아이가 다른 아이들과 놀다 싸우고 들어오면 ‘맞고 들어 왔는지, 때리고 들어 왔는지’를 꼭 확인하려고 한다. 전자의 경우에는 한바탕 난리가 난다. 이때는 반드시 잘잘못을 가려 어떻게든 상대방 아이의 잘못을 입증하고 그 부모의 사과나 보상을 받아 내려고 하는 반면, 후자의 경우에는 ‘애들이 놀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대수롭지 않은 반응과 함께 마음속으로는 자기 아이를 대견스럽게까지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모습은 사소한 일 같지만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라고 본다. 왜냐하면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어린아이들이 도덕적인 ‘옳고

(right) ‘그름(wrong)’을 자연스럽게 습득하고 그 상황에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는, 말하자면 ‘공/사’의 구분 및 판단능력을 제대로 함양할 기회를 제공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대목에서 발견되는 도덕정서는 영어권의 표현을 빌리면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차등적 관심을 보이는 태도인 ‘partiality’ 개념과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서구문명권에서는 자신과의 친소親疏 정도와 관계없이 가능하면 공평하게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비차별적 사고, 즉 ‘impartiality’의 관념이 비교적 일찍부터 발달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러한 입장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영국 경험주의 철학의 산물인 공리주의(utilitarianism) 윤리설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사적인 관계(personal relationships)’를 중시하는 태도와 공적인 보편성을 지향하는 ‘도덕(morality)’ 사이에는 인간적 현실과 윤리적 이상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 유가 윤리의 ‘사私’적 윤리전통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절대다수의 사람들은 자기 가족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며, 그다음으로 친지, 이웃, 그리고 자국민의 순서로 도덕적 관심을 확장해 왔다. 공동체 일반에 대한 평등적 대우에 앞서 나와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배려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한 결과일 것이다. 유가 윤리에서는 기본적으로 인간관계를 이와 같은 차등적 사랑의 관점에서 파악하고 있다. 나의 부모 형제를 남의 부모 형제와 똑같이 친하게 대할 수 없듯이, 나의 처자식을 남의 처자식과 동등하게 다루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친다. 이는 곧 도덕주체로서의 인간은 누구나 ‘특별한 관계(special relations)’에 있는 대상을 가지게 마련이며, 이에 따른



사진 1. 양주楊朱.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 초기의 사상가.



사진 2. 묵자墨子. 중국의 춘추전국시대의 사상가.

‘특별한 의무(special obligations)’의 구속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강조한 말이기도 하다. 부모 자식 간의 의무, 혼인에서 비롯되는 의무, 친구 사이의 의무, 직장 동료로서의 의무 등이 그와 같은 영역에 속한다.<sup>1)</sup>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양주楊朱와 묵자墨子が 각각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 것과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사랑하라고 주문하는 것은 유가의 눈으로 볼 때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주장이 아닐 수 없다. 맹자는 이들의 입장을 “내 부모도 모르고 임금도 몰라보는 것은 새나 짐승의 무리와 같은 것”<sup>2)</sup>이라고 꾸짖고 이단으로 단정, 철저하게 배격한다.

군자의 길을 가는 사람의 도리가 그럴 수는 없다고 비판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덕德에 어긋나는 것이고, 그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공경

1) David O. Brink, “Impartiality and Associative Duties”, *Utilitas*, vol.13, no.2(2001), p.159.

2) 『孟子』滕文公 章句下, “楊氏 爲我 是無君也 墨氏 兼愛 是無父也 無父無君 是禽獸也.”

하는 자는 예禮에 어긋나는 것”<sup>3)</sup>일 수밖에 없는 것으로 인식된다. 그것은 말 그대로 본말이 뒤바뀐 것이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어 먼저 해야 할 일과 나중에 해도 좋은 일이 있으며, 후후하게 대해 주어야 할 사람과 상대적으로 박薄하게 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법이다.

이런 사실을 애써 부정하는 사상이 있다면 그것은 도덕적인 억지이자 사물의 이치에도 맞지 않는 논리이다. 피터 싱어(Peter Singer)가 사회생물학자들의 견해를 요약하면서 ‘혈연이타성(kin altruism)’이라고 부르는 것도 이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다. 그에 따르면 부모가 자식에게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랑을 보이는 것은 후손을 통해 자신의 유전자를 영구히 보존하려는 생존본능 때문이라고 한다.<sup>4)</sup>



사진 3. 피터 알버트 데이비드 싱어(Peter Albert David Singer, 1946~).

이처럼 유가 윤리는 사람들에게 현실과 동떨어진 도덕적 이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지켜야 할 소박한 의무, 즉 가족에 대한 차별적 관심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사회가 지난 수백 년 동안 유가 윤리의 절대적 영향력 아래 놓여 있었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우리의 도덕적 잠재의식도 자연스럽게 그와 같은 불평등 내지는 차이성을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여 내면화하게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추정

3) 『孝經』 孝優劣章, “不愛其親而愛他人者 謂之悖德 不敬其親而敬他人者 謂之悖禮.”

4) 피터 싱어 지음, 김성한 옮김, 『사회생물학과 윤리』(서울: 인간사랑, 1999), pp.17-53 참조. 이런 입장을 보이는 대표적인 사회생물학자는 에드워드 O. 윌슨(Edward O. Wilson)이다.

을 해본다. 이는 효도와 어른 공경 등 유교문화의 긍정적 영향 못지않게 혈연이나 지연을 앞세워 내 편과 네 편을 나누는 전근대적인 ‘사’적 관념을 조장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말이기도 하다.

## 서양철학의 ‘사私’적 윤리전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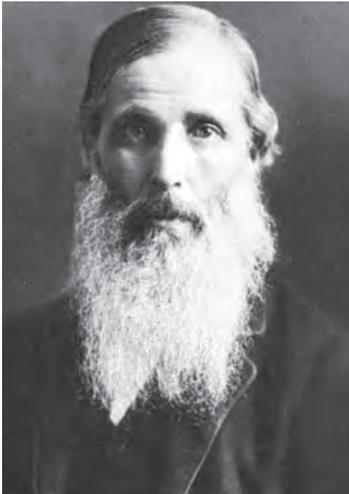


사진 4. 헨리 시즈윅(Henry Sidgwick, 1838~1900).

이러한 ‘사’적 ‘차등성(partiality)’의 정서가 동양의 유가 윤리에만 나타나는 특별한 현상은 아니다. 헨리 시즈윅(Henry Sidgwick)이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부모와 배우자, 그리고 아이들에게 온정을 베풀며, 다른 혈족에게는 이보다 상대적으로 덜 친절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sup>5)</sup> 그런 다음에 우리는 나에게 도움을 준 사람과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지 및 이웃사

촌과 자기 나라 국민의 차례로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게 된다.

동양의 유가에서와 마찬가지로 서구인들에게도 ‘차등적 사랑’ 또는 ‘우선적 관심’이란 도덕정서는 하나의 인간적 상식이다. 당연한 말이지만 그들 역시 자신과 개인적으로 가까운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며, 이들과

5) Henry Sidgwick, *The Methods of Ethics*, seventh edition(Indianapolis, Indiana: Hackett Publishing Company, 1981), p.246.

의 독특한 유대감은 삶의 활력소일 뿐만 아니라 ‘자기인식(self-knowledge)’의 원천으로 파악되어 왔다.<sup>6)</sup>

이와 같은 사적인 관심의 상호교환과 그 밑바탕에 놓여 있는 친밀한 감정의 공유는 인생의 일부이자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존재 이유, 그 자체일지도 모른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 자신과 그들이 사랑하는 특정한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고, 심지어 그렇게 하는 것을 당연한 도덕적인 자세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을까 싶다.<sup>7)</sup>

나아가 그와 같은 특별한 관심을 “누구에게, 그리고 어느 정도나 보여 주어야 하는가?”<sup>8)</sup>는 상대방과의 개인적 관계 및 친분 정도에 좌우되는 일종의 관계함수로 여겨지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입장을 옹호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인격체에 대한 평등한 관심과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공평하게 고려할 것을 요구하는” 규범윤리학의 ‘공’적 사고, 즉 ‘impartiality’ 관념은 “도덕이론으로 하여금 특수한 관계, 즉 개인의 정체성이나 통합성 그리고 인생의 성취감 등에 없어서는 안 될 관계들의 가치를 소홀하게 다루거나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하는”<sup>9)</sup> 것으로 비춰지게 마련이다. 이는 유가의 맹자가 묵가의 겸애사상을 비판하는 취지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

6) William H. Shaw, *Contemporary Ethics; Taking Account of Utilitarianism*(Oxford: Blackwell Publishers Ltd., 1999), p.268.

7) John Cottingham, “impartiality”, ed., Edward Craig, *Encyclopedia of Philosophy*(New York and London: Routledge, 1998), vol.4, p.714.

8) David O. Brink, op cit., p.169.

9) Marilyn Friedman, “partiality”, eds., Lawrence C. Becker and Charlotte B. Becker, *Encyclopedia of Ethics*(New York and London: Routledge, 2001), vol. III, p.1275.

무엇보다도 본질적인 측면에서 평등할 수 없는 차등적 사랑의 대표적인 예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다. 부모는 어린아이 일반이 아니라 자기 자식을 최우선적으로 돌보아야 할 도덕적 의무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부모들은 자식을 잘 먹이고 잘 입히려려고 할 뿐만 아니라 필요할 경우, 의학적인 치료와 교육을 제공하는 등 일일이 셀 수 없는 많은 의무를 다하고 있다.

이는 낯선 다른 사람들에 대한 보편적인 자선의 의무와는 달리 자신의 아들, 딸들을 위한 보다 광범위하고 구체적인 특수 의무의 성격을 띤다. 부모들의 이런 태도를 누가 도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겠는가? 오히려 우리는 자식에게 그런 사랑을 베풀지 않는 부모를 뭔가 잘못된 비정상적인 사람이라고 여길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인간의 본능은 유가 윤리의 가르침과 크게 동떨어져 있지 않다고 본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여전히 도덕성(morality)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한다. 도덕성은 다른 어떤 기준보다도 공정성(impartiality)의 관점에서 파악되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 바로 그것이다. 대표적으로 동양의 묵자와 서양의 공리주의 사상이 여기에 해당할 것이라고 본다. 이어서 불교의 무분별적 윤리전통에서 찾아볼 수 있는 ‘공’과 ‘사’의 관념에 대해서도 살펴볼 예정이다. 古機

○ **허남걸** 동국대 국민윤리학과 졸업(문학박사), 영국 더럼대학교 철학과 방문학자 및 동국대 문과대 윤리문화학과 교수를 거쳐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를 역임했다. 역저서로는 『불교윤리학 입문』, 『자비결과 주의』, 『불교의 시각에서 본 AI와 로봇 윤리』 등이 있고, 공리주의와 불교윤리의 접점을 모색하는 다수의 논문이 있다.



## 귀밝이술

정월보름 둥근 달에  
눈이 맑아지고  
투명한 아침이슬에  
귀까지 밝아지네

## 쌍차령에서 양계산으로



강경구\_ 동의대 명예교수

삼장은 쌍차령 유백흙劉伯欽의 집에서 저녁 식사를 대접받는다. 여기에 묘한 겸상이 차려진다. 채식을 지키는 삼장에게는 기장밥에 나물무침의 채식이, 유백흙에게는 호랑이 고기·노루 고기·뱀·여우·토끼 고기를 잔뜩 쌓은 육식상이 차려진다. 그렇게 겸상으로 식사를 마친 뒤 유백흙은 삼장에게 집을 구경시킨다. 뒤뜰의 초당에는 많은 활과 화살들이 구비되어 있고, 대들보에는 호랑이 가죽이 걸려 있었으며, 벽에는 창과 칼과 강차와 몽둥이가 기대어 세워져 있었다. 유백흙은 초당의 가운데에 놓인



사진 1. 호랑이와 싸우는 유백흙.

의자를 삼장에게 권한다. 잠시 후 초당을 나와 후원으로 가니 살찐 사슴과 노루들이 뛰놀고 있었다. 좋지 않을 때를 예비하여 동물들을 잡아다 기르고 있다는 것이었다.

## 육식과 채식의 겸상

번뇌를 상대하는 일에도 단계가 있다. 삼장이 호랑이를 만났을 때 경험했던 것처럼 기준에 이루었던 정신무장의 무기력함을 절감하는 단계도 있고, 유백흙의 경우처럼 애써 싸워서 쓰러뜨리는 단계도 있으며,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손오공의 경우처럼 손쉽게 잡아 그 가죽을 옷으로 입는 차원도 있다. 유백흙은 얼룩무늬 호랑이와 경천동지의 싸움을 벌여 그것을 식량으로 삼는다. 그 결과의 향유가 육식이다. 여기에 삼장의 채식이 끼어든다. 시절 인연을 기다려 자연이 주는 것을 받아드는 것이 채식이다.

육식 유백흙과 채식 삼장의 겸상은 유위적 노력과 무위적 말김이 공존하는 차원을 표현하기 위한 장치이다. 그것은 불교사적으로 유명한 육조혜능의 전기적 사실을 채용한 것이기도 하다.

나는 이후 조계에 도착한 뒤에도 나쁜 사람들의 추격을 받았습시다. 그래서 사회四畵 지역에서 사냥꾼의 무리에 약 15년간 섞여 지내면서 재난을 피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수시로 사냥꾼들에게 상황에 어울리는 방식으로 법을 설하곤 하였습니다. 사냥꾼들은 항상 나에게 그물을 지키도록 했는데, 매번 살아있는 동물들이 보이면 모두 풀어 주곤 하였습니다. 밥을 먹을 때는 고기를 삶은 술의 가장



사진 2. 사회시 육조사.

계 식사를 했는데 항상 고기를 삶은 술에 채소를 익혀 먹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고기 술에서 익힌 채소, 육변채(肉邊菜)라 불리는 이것은 육식일까? 채식일까?

육식 금지의 계율은 중국에서 제정된 것이다. 불법천자 양무제는 「술과 고기를 금지하는 계율(斷酒肉文)」을 제정하여 반포한다. 육식이 불살생의 계율에 위배되고 자비의 씨앗을 끊어버린다는 이유에서였다. 양무



사진 3. 불법천자 양무제.

자리에 채소를 얹어 익혔습니다. 누가 그 이유를 물으면 ‘고기 옆의 채소(肉邊菜)를 먹고 있다’고 대답하곤 하였습니다.

육조혜능이 오조홍인에게 인가를 받은 뒤 남방으로 내려간 뒤 15년간의 은둔생활을 할 때 사냥꾼 무리에 섞여 살았다고 얘기된다. 그 당시 혜능은 사냥꾼들과 함

계는 여기에 강제조항까지 설치한다. 육식 금지의 계율을 지키지 않는 사문은 환속시켜 다시 호적에 편입시키겠다는 것이었다. 그로 인해 채식의 전통이 중국불교에 자리 잡게 된 것이다.

혜능은 육식 금지의 계율이 보편화된 상황에서 고기 술에 채소

를 익혀 먹었다. 고기를 삶은 국물에 채소를 익혀 먹은 이것은 육식일까? 채식일까? 분간하기 어려운 문제다. 그래서 일부 해석가들은 육변채를 고깃국물이 닿지 않는 솥의 가장자리에서 익힌 채소였다고 보기도 한다. 그런데 육식의 여부는 혜능에게 그리 중요하지 않은 일에 속한다. 오직 자성을 바로 보는 일을 불교의 전부로 생각하는 입장에 있었기 때문이다.

## 육식에서 채식으로, 채식에서 결식으로

원래 불교의 계율에서는 살생을 금하면서도 육식을 금지하지 않았다. 그것은 출가수행자들이 결식을 하던 상황과 관련되어 있다. 결식은 인연대로 오는 것을 받아들이는 일이다. 그것은 집착의 방기와 인연의 수용이라는 불교적 지상과제를 실천하는 현상이었다. 그러니까 불교의 핵심을 체화한 혜능에게 육식 금지의 계율이 특별한 의미를 가질 수는 없었다. 그럼에도 혜능은 고기 옆에 채소를 익혀 먹는 행동을 보여준다.

이 육식과 채식의 공존을 두고 혜능의 철저한 계행 정신을 확인하는 입장도 있고, 불법 실천에 있어서의 탄력적 태도를 발견하는 입장도 있다. 그런데 철저한 계행을 실천하는 입장이었다면 직접 조리해 먹거나 거부할 수도 있는 일이 아니었을까? 또 탄력적 태도였다면 굳이 고기를 피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래서 다시 살펴보면 여기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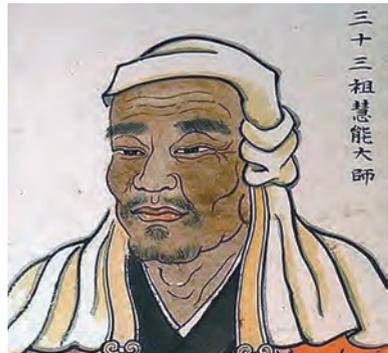


사진 4. 육조혜능 대사.

서 우리는 모양에 지배되지 않는 혜능의 정신을 발견하게 된다. 그는 고기 옆에서 공양하면서 고기에 물들지 않았다. 고기를 먹지도 않았고 고기를 거절하지도 않았다. 그것은 혜능이 「모양을 세우지 않는 노래[無相頌]」에서 노래한 바, '세간에 있으면서 세간을 벗어나는' 정신을 구현한 현상이었다.

이와 같이 육조혜능의 전기에 보이는 육식과 채식의 겸상에서 우리는 모양에 구속되지 않는 불이중도의 정신을 확인하게 된다. 이에 비해 삼장과 유백흙의 겸상은 수행의 초기, 유위적 노력과 무위적 맡김이 공존하는 단계를 상징하는 장치에 해당한다. 삼장은 아직 출발한 지 얼마 안 되는 이 지점에서 차원의 진화를 통해 진정한 여행에 진입하고자 하는 단계에 있다. 그것은 삼장이 저녁을 마친 뒤 목격한 후원의 풍경을 통해



사진 5. 탁발행각.

서도 잘 나타나 있다. 유백흠은 사냥의 피비린내가 물씬한 초당으로 삼장을 안내하여 그 가운데 의자에 앉게 한다. 번뇌를 물리치는 싸움에서 승리한 주인공이라는 뜻이다. 결국 유백흠의 차원은 승리를 거둔 주체를 주인공으로 세우는 한계를 갖는다.

그래서 삼장은 여기에 오래 앉아 있지 않고 뒤뜰로 나간다. 그곳에는 살찐 사슴과 고라니 무리가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고 뛰놀고 있었다. 사냥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하여 기르고 있는 짐승들이라는 것이었다. 피비린내 나는 초당이 망상 및 장애와 싸워온 과거를 상징한다면 순화된 사슴과 고라니가 뛰어노는 뒤뜰의 풍경은 망상이 쉽게 순화되는 현재를 상징한다. 그러니까 삼장의 채식은 무위적 실천의 부분적 성취를 상징한다. 이 채식의 완성형은 인연대로 오는 것을 받아드는 결식에 있다. 이후 삼장은 본격 여행의 과정에서 결식에 길들여지게 된다. 그러니까 현재 삼장은 채식과 육식의 점상으로 상징된 바, 사냥(육식)→목축(점상)→채식→결식의 단계 중 목축과 채식의 단계에 있다. 그 채식은 고기를 익힌 기름 솥에서 지어낸 것이었다. 겉으로는 무위의 길, 채식에 들어선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유위적 노력을 필요로 하는 육식의 단계에 걸쳐 있다는 얘기가 된다.

## 쌍차령에서 양계산兩界山으로

유백흠의 집에서 하루를 묵고 나니 마침 유백흠 부친의 기일이었다. 이에 삼장은 정성을 다해 경전을 읽어주는 천도재를 거행한다. 『금강경』, 『관음경』, 『법화경』, 『미타경』, 『도망경度亡經』, 『공작경孔雀經』이 그 독송한 경전들이었다. 그렇게 재를 지내느라 삼장은 유백

흙의 집에서 하루를 더 묵게 된다. 그날 밤 유백흙 가족들의 꿈에 그 부친의 영혼이 나타나 말한다. 삼장의 천도재로 죄업을 씻고 부잣집으로 환생하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유백흙의 온 가족이 감격하고 감사해했음은 물론이다.

이후 삼장은 유백흙의 호위를 받으며 서천 여행을 다시 시작한다. 만나질쯤 갔을까? 눈앞에 큰 산이 나타났다. 양계산이라고 불리는 산이었다. 산의 동쪽은 당나라 땅, 산의 서쪽은 타타르 유목종족의 땅으로서 그 경계에 있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었다. 유백흙은 그 중턱에 이르자 삼장에게 작별을 고한다. 경계 저쪽의 맹수들이 유백흙을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그 경계를 넘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아쉬운 작별을 하는 참인데 산자락에서 천둥과 같은 소리가 들려왔다. “우리 사부님이 오셨구나! 사부님이 오셨어!” 천상을 어지럽힌 벌로 500년간 산에 갇혀 인고의 세월을 보내던 손오공이 내는 소리였다.

## 망자의 천도와 『도망경度亡經』(바르도 퇴돌)

삼장이 유백흙 부친의 명복을 빌며 독송한 여러 경전 중, 『도망경度亡經』은 티베트 불교의 영향을 받게 된 이후에 중국에 유행한 밀교계 경전이다. 우리말로로는 『티베트 사자의 서』로 번역되어 있는 경전이다. 이 『도망경』은 티베트 불교에서 제2의 붓다로 존중되는 파드마삼바바의 저서로서 티베트 밀종을 대표하는 경전이다.

14세기에 발견되었으며 저자인 파드마삼바바가 숨겨놓은 경전이라는 뜻에서 복장伏藏으로 불리기도 한다. 7세기 초·중반(602~554)을 살았던

현장삼장이 접할 수 없었던 경전임은 물론이다. 그런데 이 『도망경』을 삼장이 천도재에 독송했다는 것이다. 티베트 불교가 성행하였던 원대 이후의 불교 지형이 『서유기』에 반영된 결과다. 『공작경』 역시 밀종의 소의경전으로 다라니의 위력을 설파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현장삼장에서 100년이 지난 뒤 활동한 역경사이자 중국 밀종의 조사인 불공 不空이 번역한 경전으로서 역시 현장삼장이 접한 일이 없는 경전이다.

『서유기』는 다양한 불교적 교의들을 수용하고 있는데 티베트 불교의 흔적 역시 뚜렷하다. 역사적 사실로 볼 때 현장은 인도를 왕래하면서 티

베트 지역을 경유하지 않았다. 그런데 『서유기』에는 티베트 불교와 관련된 내용들이 여러 곳에서 확인된다. 오사장국 烏斯藏國에서 저팔계를 만나 여행단에 합류시킨다는 내용도 그 하나이다. 저팔계가 살던 나라인 오사장국 烏斯藏國은 ‘태양[烏]이 숨는[藏] 나라’라는 뜻이다. 이것은 티베트를 부르는 중국어 명칭인 서장 西藏과 통하는 이름이다. 서장 西藏 역시 ‘서쪽으로 태양이 숨는 나라’라는 뜻이기 때문이다. 손오공이 도술을 부릴 때마다 주문을 외는데 이 역시 티베트 불교, 혹은 밀교의 교의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지점이다.



사진 6. 삼장을 맞는 유백흥의 가족.

## 양계산과 오행산

양계산은 원래 오행산五行山으로 불리던 산이다. 오행산은 500년 전 천상을 어지럽히던 손오공을 가두기 위해서 여래의 손이 변해서 된 산이었다. 오행산이라는 이름은 만사만물이 다섯 요소의 임시적 화합일 뿐임을 알라는 뜻을 갖는다. 만물이 오행의 화합이라면 영원불멸, 지고지상의 실체를 주장할 일이 없다. 그러니까 오행산은 하늘과 나란한 성인 [齊天大聖]으로 스스로를 절대시하던 손오공에 대한 순화교육의 현상이었다. 그것이 양계산으로 바뀐 것이다.

이 오행산과 양계산은 의미적 연관성을 갖는다. 무엇이 의미적 연관성인가? 나를 포함한 만사만물이 오행의 조합에 불과하다. 이것을 바로 알면 생명의 이 언덕에서 불생불멸의 저 언덕으로 건너가게 된다. 그래서 오행산은 두 경계를 나누는 양계산이 된다. 다음으로 육식과 채식의 사건을 통해 암시된 바와 같이 유위와 무위를 나누는 경계가 된다. 양계산은 육식 위주의 유백흙이 건너갈 수 없는 산이다. 양계산을 앞에 두고



사진 7. 양계산 아래에서 손오공과 삼장의 해후.

유백흠은 이렇게 말한다.

스님께서는 모르시겠지만 이 산은 양계산이라 하는데 동쪽의 반은 우리 대당大唐의 관할 지역이지만 서쪽은 타타르 지역입니다. 저곳의 이리와 호랑이들은 저에게 항복하지 않습니다. 저도 경계를 넘어설 수 없으니 스님께서 혼자 가시도록 하십시오.

여기에서 중국은 가지可知의 세계, 유위의 차원이고, 중국의 밖은 불가지不可知의 세계, 무위의 차원이다. 그래서 양계산은 유위와 무위, 가지와 불가지를 가르는 경계가 된다. 한편 양계산은 3현(십주, 십행, 십회향)과 10성(10지)의 경계에 있는 가행위加行位를 상징하는 산이기도 하다. 현장이 번역과 전파에 주력한 유식에서는 깨달음의 성취에 다섯 단계가 있다고 본다. 자량위資糧位, 가행위加行位, 통달위通達位, 수습위修習位, 구경위究竟位가 그것이다. 이중 자량위는 본격적인 구도 여행을 위한 조건을 구비하는 단계로서 10주, 10행, 10회향의 지위를 포함한다. 이에 비해 통달위는 본격적인 여행을 시작하는 10지의 초입[初地]에 해당한다. 유식에서는 자량위와 통달위 사이에 가행위라는 중간적 단계를 설정한다. 양계산은 바로 이 가행위에 대한 형상화에 해당한다. 그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에 살펴보고자 한다. 卍

- 강경구 동의대학교 명예교수, 퇴직 후에 하는 공부가 진짜 공부라는 생각으로 성철선의 연구와 문학의 불교적 해석에 임하고 있으며, 그만큼의 시간을 참선과 기도에 쓰면서 지내고자 노력하고 있다.

## 실록에 나타난 요승에 얽힌 내용



이종수\_ 국립 순천대 사학과교수

요승妖僧이라는 말은 ‘요망한 승려’로 번역되며, 대체로 부정적 이미지로 사용되는 용어이다. 대표적으로 고려 말 신돈에게 ‘요승’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붙는다. 그런데 신돈이 과연 요승인가? 조선을 건국한 유학자의 입장에서 보자면 요승일 수 있지만, 오늘날 역사적 평가에서 보자면 요승이 아니라 개혁 정책을 펼치다가 성공하지 못하고 죽임을 당한 승려 신분의 정치가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실록에 등장하는 많은 요승들도 새롭게 평가해야 되지 않을까?

### 유학자의 주관으로 붙여진 요승

실록에서 신돈을 제외하고 가장 먼저 요승을 언급하고 있는 기사는 제2대 임금인 정종 대에 나온다. 태조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할 때 공을 세웠던 장사길張思吉·장사정張思靖의 죄를 물어 사헌부에서 올린 상소 가운데 “장사길과 그 아우 장사정 등은 … 지진이 일어난다는 요승의 허튼

소리에 이끌려 남의 가산家産을 부수고 불법한 일을 많이 행하여 …”(『정종실록』 2년(1400) 6월 2일)라고 하는 내용이다. 사헌부에서 여러 죄목 가운데 불교 신봉에 관해 언급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정종은 사헌부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정종을 이어 왕위에 오른 태종 대에도 요승에 관한 기사가 한 번 등장한다.

요승을 양주楊州의 옥獄에 가두었다. 어떤 승려가 대궐에 나와서 고하기를, “양주에 금정金井이 있습니다. 제가 꿈에서 보고 그곳을 팠더니 과연 금정이 있었습니다. 금정 옆에 나무를 심어 표시를 한 지 이제 3년이 되었습니다.”고 하였다. 임금이 내관 이용李龍을 시켜 그 승려와 함께 역마驛馬를 타고 가서 찾았지만 헛일이었다.

— 『태종실록』 3년(1403) 8월 18일.

위 기록은 일반적 의미의 요승이라고 표현하더라도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인다. 어떤 승려가 주장하는 내용을 검증하여 사실이 아니라 거짓임을 확인한 후에 감옥에 가둔 사건이기 때문이다. 조정에서는 거짓을 펴뜨린 승려에게 엄벌을 가함으로써 함부로 세상을 현혹하려는 승려가 있으면 언제든지 죄를 물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을 것이다. 그런데 신돈의 예에서 보았듯이 오늘날의 관점에서 요승으로 평가하기



사진 1. 북한암 신미대사탑. 사진: 국가유산청.

어려운 승려에 대해서도 요승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들이 자주 등장한다.

문종 즉위년에 신하들이 여러 간언을 하였으나 임금의 들어주지 않는다고 항의하였다. 문종이 어떤 내용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것인지 말해 보라고 하자, 대사헌 안완경(安完慶)이 대답하는 가운데 신미(信眉) 스님에 대해 언급하면서 요승이라고 표현하였다.

안완경이 대답하기를, “... 요승 신미의 작호(爵號)를 고치자는 따위의 일은 전번에 두세 번 굳이 청하였으나 한 번도 윤허를 받지 못하였습니다.”고 하였다.

- 『문종실록』 즉위년(1450) 10월 28일.

신미대사는 판선종사(判禪宗事)를 역임한 당시 최고의 고승이었다. 산스크리트어에도 능통했으며 세종의 한글 창제에서도 일정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평가되는 승려이다. 그의 속가 동생인 김수온은 세종으로부터 재능을 인정받아 집현전에 뽑혔으며, 세조 때에는 간경도감에서 불서 번역을 위해 많은 역할을 했던 인물이기도 하다. 이러한 신미대사에게 문종이 1450년(문종 1)에 선왕인 세종의 뜻을 따라 ‘선교종도총섭(禪敎宗都摠攝) 밀전정법(密傳正法) 비지쌍운(悲智雙運) 우국이세(祐國利世) 원융무애(圓融無礙) 혜각존자(慧覺尊者)’라는 법호를 내리자, 대사헌 안완경이 요승이라며 항의하였던 것이다.

## 성종 대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한 요승

요승이라는 표현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성종 대부터이다. 이때

는 조선 건국 이후 정치 사회적으로 유교적 질서가 점차 정착되어 가면서 전통적으로 불교를 신봉하던 왕실의 비빈과 주자성리학을 정치에 구현하고자 했던 조정 대신들 사이에 이념적 갈등이 본격적으로 나타난 시기이기도 하다.

낭관(郞官)이 보고하기를, “요즈음 어리석은 백성들이 때로는 요승들에게 속임을 당하여 장사(葬事) 비용을 아끼려고 아버지의 시체를 불로 화장을 하며, 심한 자는 자신의 병이 죽은 자의 빌미(祟) 때문이라 하여 무덤을 파내어 시체를 태워버리는 자까지 있습니다. 풍속과 교화가 이렇게 퇴폐되었으니, 바라건대 엄격하게 금지시키게 하소서.”라고 하였다.

— 『성종실록』 5년(1474) 4월 25일.

성종은 낭관의 보고 내용에 대해 예조에 검토를 지시하였다. 예조에서는 낭관의 보고대로 금지시킬 것을 주청하였고, 임금은 그대로 따랐다. 이로써 민간의 화장하는 풍습이 사라졌다. 고대 무덤을 발굴해 보면 대체로 관곽이 나오는데, 이는 관곽 속에 시체를 넣어 땅속에 묻는 것이 당시의 풍습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수행자가 사망하면 화장하였고, 그 풍습이 민간에도 전해져 고려시대에는 많은 백성들이 시체를 화장하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풍습이 성종 대에 이르러 시체의 화장이 금지되기에 이르렀던 것 같다. 물론 불교의 오랜 전통인 사찰 승려의 다비의식까지 금지되지는 않았다. 그러므로 위 기록의 요승이라는 표현은 민간에서 행해지던 화장을 금지하기 위한 명분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겠다.

성종 대에 요승이라는 칭호를 얻은 승려로 도천道泉과 학능學能·학전學專·설의雪誼 등이 있다. 도천스님은 1477년(성종 8)에 경엄사鯨嚴寺를 창건하려고 파천부원군 윤사흔尹士昕이 지은 권선문勸善文을 가지고 다니며 여러 양반들로부터 시주를 받았다. 이에 대해 사헌부에서 백성의 전답田畠을 빼앗아 절을 지으려는 것은 장杖 80대에 해당한다며 국문할 것을 요청하였다.

가난한 백성의 밭을 억지로 빼앗아 옛 절터라고 칭탁하여 직접 땅을 골라 마음대로 사찰을 세우려고 권선문勸善文을 만들어서, 요승 도천으로 하여금 서명할 것을 권유하게 하고 보시하여 땅을 널리 차지하였습니다.

- 『성종실록』 8년(1477) 3월 25일.

권선문에 서명하거나 시주를 한 양반들은 한명회, 노사신, 정현조 등 당시 권력을 잡고 있던 대신들이었다. 그래서인지 성종은 사헌부의 요구



사진 2. 성북구 돈암동 흥천사 전경. 사진: 서재영.

를 무시하고 문제 삼지 말라고 하였다. 하지만 다른 문헌에서 경엄사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볼 때 사찰이 창건되지 못했던 것 같다.

그리고 학능스님은 흥덕사興德寺를, 학전스님은 흥천사興天寺를, 설의스님은 원각사圓覺寺를 중창하였다. 이에 대해 불만을 품은 성균관 생원生員들이 연명하여 상소를 올렸다.

성균관 생원 김경충金敬忠 등 406명이 상소하기를, “... 지난번에 승려 학능이 흥덕사를 중창하는 것으로 명목을 삼아 양반들에게 아부하고 민간의 백성을 유혹하여 요망하고 허탄한 말이 임금에게 까지 도달하였습니다. ... 학능의 술책이 한 번 이루어지자 요승 학전이 이어서 화답하여 흥천사를 중창한다는 명목으로 또한 요망하고 허탄한 말이 임금에게 도달하였습니다. ... 원각사의 요승 설의 등이 널리 놓고먹는 승려들을 모아, 안거安居한다는 명분으로 재齋 올리고 밥 먹이는 비용이 수만 금을 헤아렸습니다. ... 요승 설의 등이 원각사 대광명전에서 손으로 불상을 끌어 몰래 자리를 돌려 앉히고 떠들어대기를, ‘부처가 영험하여 스스로 돌아앉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여러 사람이 다투어서 떠들어대어 도성과 저자 거리에 전파되고 양반가와 궁궐에 전해져서, 어떤 이는 떡을, 어떤 이는 비단을, 어떤 이는 채소와 과일을, 어떤 이는 콩과 밤을 등에 지고 머리에 이고서 길에 서로 잇따랐으며, 경도京都의 남녀는 앞을 다투어 모여들어서 손을 모으고 이마를 조아려 임금에게 절하듯 하니, 이것은 온 나라의 백성이 모두 술책에 빠진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 『성종실록』 11년(1480) 5월 28일.

성균관 생원들의 상소를 받아 본 성종은 “원각사 불상의 자리를 돌렸다는 일은 타당한 지적이라 할 수 있겠지마는, 흥덕사에 대하여서는 태종께서 사전寺田을 혁파하면서도 오히려 폐하지 않았고, 더구나 지금 해당 관청에서 폐사된 자운사慈雲寺의 재목을 승려들에게 운반하여 수리하기를 청하였으니, 국가에 조금도 폐단이 없는데, ‘참람하기가 궁궐에 비길 만하다.’고 상소하고 있어서, 내가 이미 내관 신운申雲과 주서注書에게 명하여 확인하도록 하였다. 과연 참람하게 궁궐을 모방하였다면 승려에게 죄를 물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마땅히 유생들에게 죄를 묻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원각사 공사를 확인한 후에 김경충 등 생원 여러 명을 붙잡아 국문하였다. 그러자 조정의 신하들이 원각사 설의스님을 요승이라 하며 징벌할 것을 요구하는 상소와 건의가 잇따랐다. 이와 관련한 『성종실록』의 1480년 기록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6월 2일: 사헌부 대사헌 정괄鄭恬 등, 사간원 대사간 김작金碯 등, 생원 김경충 등이 원각사 승 설의 등의 징벌에 관해 상소하다.
- 6월 3일: 장령 구치곤丘致岷이 원각사 승려를 국문하도록 건의하다.
- 6월 7일: 사간 이세필李世弼이 원각사 승려를 국문하도록 청하다.
- 6월 12일: 성균관 생원 김경충 등이 원각사 승려를 엄히 징벌할 것을 상소하다.
- 6월 16일: 성균관 생원 김굉필金宏弼이 원각사 승려를 심문하여 처형할 것을 상소하다.

성종은 신하들이나 유생들의 상소와 건의를 끝내 들어주지 않았다. 설의스님을 비롯한 원각사의 승려들은 성종의 비호에 힘입어 흥덕사와

흥천사처럼 원각사도 중창될 수 있었다.

## 도선과 비보설에 얽힌 사례

그 후 실록에 요승에 관한 언급이 1485년(성종 16)에 다시 등장한다. 그해 1월 5일에 병조참지 최호원崔灝元이 임금에게 9가지 내용으로 건의하였고, 그 9가지 건의에 대해 많은 신하들이 유교의 가르침에 어긋난다면 비평하였다. 이때의 논쟁 가운데 하나가 도선道詵의 비보설禪補說과 관련한 내용이었다. 최호원은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곧바로 상소를 올렸다.



사진 3. 도선국사道詵國師(827~898).

최호원이 상소하기를, “... 도선은 식견이 얇은 속된 선비의 무리가 아니고 바로 신통神通하고 명지明智한 승려입니다. 송도와 한양의 두 서울 터를 미리 정하였고, 그가 비보한 군현의 산천은 자못 영험이 있었습니다. ...”라고 하였다.

- 『성종실록』 16년(1485) 1월 8일.

최호원의 상소에 대해 여러 신하들이 비평하면서 임금에게 아뢰었는데, 대사헌 유순柳洵은 도선을 요승이라고 칭하면서 심하게 비평하였다.

사헌부 대사헌 유순 등이 의논하기를, “... 지리地理를 나누고, 물길과 숲길을 다스리며, 사탑寺塔을 수리하는 일에 비보裨補·진압鎮壓하는 술수로 말하면서 요승 도선의 말을 끌어다 실증하였으니, 그 방자하고 망령됨이 심합니다. ...”라고 하였다.

- 『성종실록』 16년(1485) 1월 17일.

이러한 실록의 기록을 통해 당시에 신하들 사이에서 논쟁이 될 정도로 도선의 비보설은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겠다. 불교에 대해 비판적이었던 유학자들은 도선을 요승이라고 하였지만 그렇지 않은 유학자들은 신통하고 지혜로운 승려라고 여겼던 것이다.



사진 4. 해인사 장경판전. 사진: 국가유산청.

그로부터 4년 후에 합천 해인사를 수리하는 일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요승이라는 언급이 다시 등장한다. 사헌부 장령 안윤손(安潤孫)이 해인사의 수리에 국력이 소모되는 것을 비판하며 임금에게 아뢰었다.

안윤손이 아뢰기를, “신 등이 처음에 해인사를 수리하는 까닭을 알지 못하여 예조에 공문을 보내 물었더니, 임금께서 전지(傳旨)하신 말씀이 ‘백성의 힘을 쓰지 말고 하찮은 잡다한 물건들을 갖추어 주라.’고 하신 데 불과하였습니다. 이것은 마땅히 봉행해야 하고 털끝만치라도 그사이에 보태어서는 아니되는데, 요승의 샅된 말에 현혹되어 농사철이 한창인데도 백성들을 징발해 기와를 운반하고, 이 세좌는 백성들을 시켜서 잡물을 수송해 들여보냈습니다. 이런데도 죄를 주지 않으면, 뒷사람을 어떻게 징계하겠습니까?” 하였다.

— 『성종실록』 20년(1489) 9월 11일.

안윤손은 임금의 명령대로 실행해야 할 관리들이 요승의 꾀임에 넘어가 농사철에 백성들을 징발해 일을 시킨다고 보고한 것이다. 이에 대해 성종은 처음 내린 명령에 착오가 있었을 뿐이지 요승을 믿어서 그런 것은 아니라며 안윤손의 요구를 무시하였다. 市鏡

- **이중수** 동국대 사학과를 졸업하고, 불교학과에서 석사학위, 사학과에서 문학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동국대 불교학술원 HK연구 교수와 조교수를 역임하고, 현재는 국립순천대 사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역서로 『운봉선사심성론』, 『월봉집』 등이 있으며, 논문으로 「조선후기 가흥대장경의 복각」, 「16-18세기 유학자의 지리산 유람과 승려 교류」 등 다수가 있다.

## 지금 바로 이 순간, 연근 톳밥



박성희\_ 한국전통음식연구가

---

요즘 우리 사회는 있지도 않은 행복을 과장하고 자랑하기 위해 사는 삶보다 아주 보통의 하루를 사는 삶으로 피로감을 줄이고, 지금 바로 이 순간이 우리 삶에 얼마나 큰 행복감을 주는지 알아가는 중이란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트렌드로 보았을 때 명상은 매 순간 우리를 일깨워 주는 소중한 키워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정신문화의 르네상스 시대로 표현될 만큼 피로감이 쌓이는 역동적인 삶보다 고요한 삶 속에서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보통의 하루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국내외의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템플스테이를 선호하는 것도 이를 반증하는 내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 자신이 행복해야 가족이 행복하고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무엇을 목표로 내달리지도 모른 채 무조건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래야 인정받는다는 생각으로 살았기 때문에 피로감이 몰려와도 브레이크를 걸지 못했습니다. 의식주를 해결하면서 삶에 직면하는 심한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명상이라고 하는 특효약이 개발된 셈입니다.



사진 1. 겨울철 사찰음식.

## 몸과 마음을 맑게 하는 사찰음식

작년 12월 21일 동지 팔죽을 먹다가 UN이 정한 국제기념일로 세계 명상의 날이 지정되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물론 지정 이전에도 수많은 명상 앱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애플은 마음챙김 앱을 위치의 기본 앱으로 설정했을 뿐만 아니라 마음 상태를 기록할 수 있는 기능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애플은 마음챙김을 통해 자신의 마음 상태를 알아차리고 관찰함으로써 스트레스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자신을 관리하는 방법을 깨닫게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 세계는 명상을 전파하는 것이 시대적 요구라고 말하고 있으니 이른바 정신문화의 르네상스 시대라고 부를 만합니다. 명상이 정신문화의 르네상스라고 한다면 사찰음식은 몸과 마음을 동시에 건강하게 만들어 주는 이 시대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불교의 선 수행과 사찰음식이 K-실크로드의 대표주자가 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 정서적 치유공간 숲

독일에선 전통적으로 숲을 ‘정서적 치유공간’으로 여긴다고 합니다. 독일어에 ‘숲속에서 느끼는 편안한 고독감’을 뜻하는 ‘발타인잠카이트 Waldeinsamkeit’란 고유한 단어가 있을 정도로 치유의 상징이 곧 숲입니다. 숲에 들어서면 자연스레 평화로워지는 느낌을 받는 것을 보면 영적 가치로써의 숲이 되기도 합니다.

산으로 간 불교가 도시로 나와야 포교를 할 수 있다는 주장도 많지만 평온함을 찾고자 숲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이 시대에 숲의 가



사진 2. 정서적 치유 공간 숲.

치는 역세권보다 숲세권이 삶의 질을 높인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숲은 마음먹고 찾아가는 여행지가 아니라 일상에서 얻게 된 스트레스를 날려 버리러 가는 일상의 숲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산림청과 한국임업진흥원이라고 하는 국가 기관에서 숲을 맑고 푸르게 가꾸면서 소득까지 창출해 낼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특히 임산물과 관련해서는 사찰음식의 기본 식재료가 되어 주는 종

류들이 많고, 숲 치유라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국민의 정신 건강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지구를 살리는 일은 자연을 거역해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구를 살리는 사찰음식은 삼덕(청정, 유연, 여법)의 조화로움이 없이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 외딴섬에서 만난 스님

강화도에서 선농일치의 삶을 살고 계시는 스님께서 연밭에서 연근을 많이 캐 놓았으니 갖고 가라는 연락을 주셨습니다. 겨울철에는 톳과 연근을 넣어 밥을 지어 먹으면 아주 맛이 있다고 하시며 초대해 주셨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알타리 홍시김치를 만들어서 스님을 찾아뵈었습니다. 스님께서서는 임산물, 농산물, 해산물 모두를 자급자족하며 살고 계셨습니다.

출가하고 젊은 시절에는 제방 선방에서 참선 수행만 평생 하시다가 중진 스님이 되고 선방을 떠나 줄곧 강화도 작은 섬에서 자급자족하며 수행정진하고 계셨습니다. 일과 수행이 둘이 아님을 깨닫고 선농일치의 삶을 택하신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농사짓는 일에 몰두하고 계셨고, 수확한 작물들은 도반 스님들이나 가난한 절에 보내 드리면서 나누는 기쁨을 만끽하며 사신다고 하셨습니다.

평소 다른 스님들을 통해 스님의 선행은 익히 알고 있었던 터라 스님께서 남은 생을 위해 마련하신 거처가 궁금했고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지난주 폭설과 함께 매서운 추위가 지속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스님의 방은 냉골이었습니다. 주무시는 자리만 난방을 했기 때문에 바닥에 앉아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에 입에서 김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시



사진 3. 스님이 개발한 연국수.

골 농가주택을 개조했기에 옷풍도 심했고, 직접 농사를 지으며 사시기 때문에 겨울이지만 자잘하게 손질해야 할 일들이 많았습니다. 외딴곳에 스님께서 홀로 지내실 것을 생각하니 적막하고 외로우실 거란 생각이 들어 스님께 여쭙었습니다. 너무 삭막하고 외로울 거 같다고 하니 스님께서는 ‘평화로운 고독감’이라는 표현을 해 주셨습니다. 독일 사람들이 말하는 ‘숲속에서 느끼는 편안한 고독감’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이었습니다.

### 섬마을 수행자의 월동음식

스님께서 말씀하신 평화로움은 무엇이고, 고독감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렇게 살아보지 않고는 절대 이러한 시적인 표현을 만들어 낼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스님은 젊은 시절에는 동안거, 하안거, 산철까지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용맹정진하셨던 선방 수좌였습니다. 행복을 과장하며 내달리는 삶보다는 자신을 바로 보며 보통의 하



사진 4. 김치국수.

루하루를 사는 것이 수행이라며 보시의 공덕을 쌓는 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사찰음식을 바르게 알리고 수행의 끈을 놓지 말라는 당부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행자 시절 스님들께 배운 시주 은혜에 대한 이야기와 공양주, 별좌 소임을 맡으면서 어른 스님들께 배운 사찰음식의 비법 등을 소개해 주시며 재가자로서의 역할도 수행자와 다르지 않으니 사찰음식을 바르게 알릴 수 있도록 정진해 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출가 이후 큰 절에서 대중 생활만 하시다가 홀로 사는 즐거움을 알게 된 것은 자급자족하며 이웃과 나누며 보시하는 기쁨에서부터라고 말씀하시는 스님의 얼굴에서 온화한 관세음보살님의 미소가 보였습니다. 멀리 강화도 외딴섬, 외딴집에서 아주 보통의 하루를 살아가고 계시는 스님의 월동음식을 소개해 봅니다. **박성희**

○ **박성희** 궁중음식문화재단 지정 한식에술장인 제28호 사찰음식 찬품장에 선정되었다. 경희대학교에서 국문학과 교육학을 전공하였고, 동국대학교 대학원에서 음식과 명상을 연구하고 있다. 국가무형문화재 제38호 궁중음식연구원 과정을 이수하였으며, 사찰음식전문지도사, 한국임업진흥원, 한식진흥원 교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식물기반음식과 발효음식을 연구하는 살림음식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논문으로 「사찰음식의 지혜」가 있다. 현재 대학에서 한식전공 학생들에게 한국전통식문화와 전통음식을 강의하고 있다.

## 연근툇밥

연근은 혈압 안정을 돕는 식재료입니다. 염증을 완화하는 작용을 하고 면역력을 높여 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툇은 골다공증과 빈혈 예방에 좋은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항암 효과가 있고 성인병을 예방한다고 하니 연근과 툇을 배합하여 맛있는 툇밥을 만들어 드시면 좋겠습니다.



사진 5. 연근툇밥.

### 【 재료 】

연근 300g, 말린 툇(또는 생툇), 멥쌀, 간장, 참기름(들기름), 양념장(간장, 풋고추, 채수, 통깨 또는 통들깨)

### 【 만드는 법 】

1. 연근을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송송 썰어 줍니다.
2. 말린 툇은 잘게 부숴 준비합니다.
3. 쌀을 씻어 솥에 넣고 연근과 툇을 올린 다음 물의 양을 맞춥니다.
4. 간장과 참기름을 1T씩 넣고 취사를 시작합니다.
5. 밥이 완성되면 잘 저어주고 양념장에 곁들여 먹습니다.

### TIP.

- 연근 껍질을 벗겼을 때는 따로 말려 두었다 채수로 사용하면 좋습니다.
- 연근은 겨울이 제철이지만 캐서 보관하기가 어려우니 냉동 보관해야 합니다.
- 연근은 10월~2월이 제철입니다.
- 연근에 수분이 있으므로 밥물은 평소보다 적게 잡습니다.
- 연근 물김치와 양념장을 곁들여 드시면 좋습니다.



사진 6. 연근물김치.

## 원불願佛, 나를 향상의 길로 이끄는 부처님들



일행스님\_ 해인사 출가. 정립사 거주

### 질문

요즘은 어느 사찰에서나 원불願佛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냥 석가모니불만 조성하는 사찰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 석가모니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등을 조성하지요. 그런데 원불을 모실 때 개개인마다 해당하는 원불이 다르다는 말씀을 하시는 스님들이 계시더군요. 어떤 스님은 관세음보살을 말씀하시고, 어떤 스님은 석가모니불을 말씀하십니다. 게다가 지장보살을 원불로 모신다고 하면 그 사람 자체를 다른 이보다 업業이 많은 사람으로 비하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과연 원불을 모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이며 또한 개인마다 모시는 원불이 업에 따라 다른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답변

질문을 보고 『불교사전』에서 ‘원불’을 찾아보았습니다.

## 원불願佛

- ① 자기自己가 일생 동안 섬기는 불상佛像.
- ② 중생 제도를 본원本願으로 하여 나타난 불佛.

이 『불교사전』의 의미에서 일반 불자들이 사용하는 개념은 ①번일 것입니다. 그런데 불상을 향해 예경禮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불상佛像’은 이 세상에 오셔서 무명無明의 중생인 우리를 지혜의 해탈자解脫者로 거듭나도록 일깨워주시는 ‘부처’라는 큰 스승을 표상表象하는 성스러운 상像입니다. 그래서 그 존상尊像을 대하는 불자佛子들의 의식에는 여전히 우리들 곁에서 냉철하면서도 자애로운 가르침을 주시는 마치 살아있는 스승을 대하는 듯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존상에 무한한 예경禮敬을 올리는 것이지요.

대승불교에서는 부처님을 세 가지의 몸으로 언급합니다. 부처의 삼신설三身說로서, 법신法身·보신報身·화신化身이 그것입니다. 일종의 부처라는 존재를 체體·상相·용用이라는 관점에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에게 나투셔서 보여주시는 무결無缺하고도 성스러운 모습[상相]으로서의 부처님, 보신報身입니다. 대표적으로 노사나부처님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가르침으로서 우리를 밝은 지혜로 인도해 주시는 대자대비의 역할자[용用]로서의 부처님, 화신化身입니다. 석가모니부처님이 대표적입니다. 화신불化身佛의 가르침으로 인해 존재에 대한 변화의 이치에 안목眼目이 열리면서 각자에게 드러나는 못 존재의 실상의 모습[체體], 이를 의인화하여 법신法身이라 하며 비로자나부처님이라고 부릅니다.

대승불교에서는 이렇듯 부처님을 ‘이치에 의한 사실 그대로’의 부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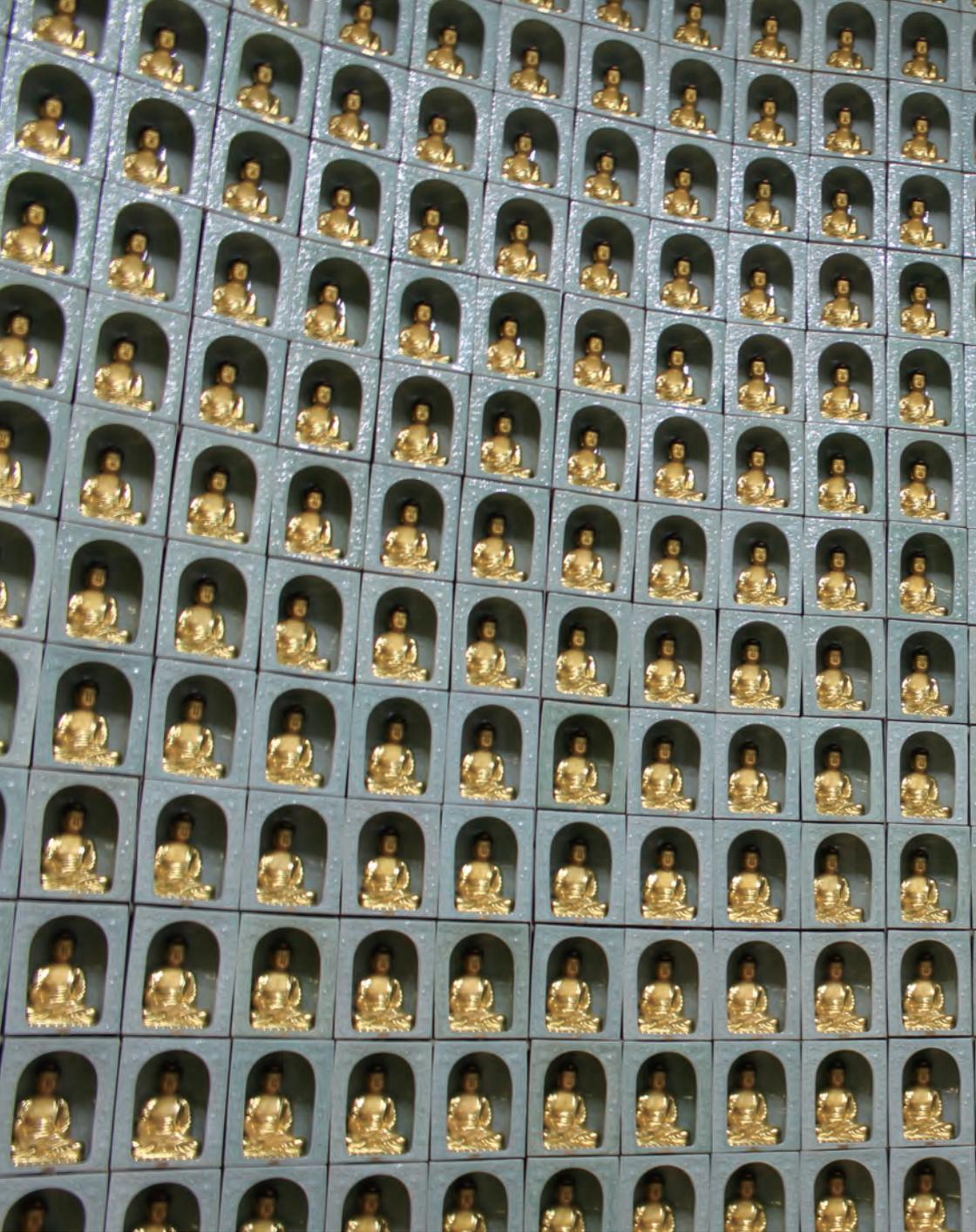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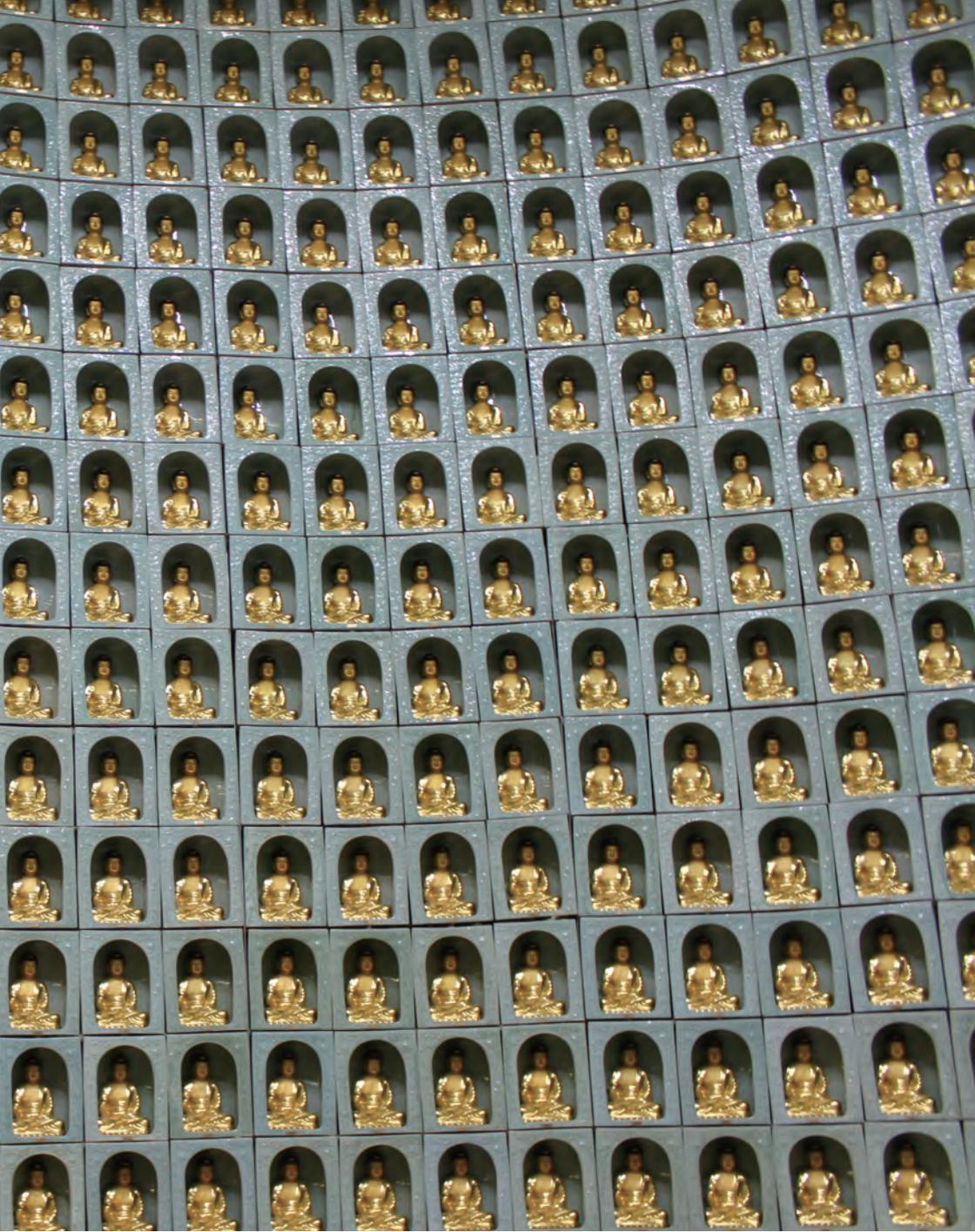


사진 1. 성철스님기념관 감실 부처님들. 한 분 한 분의 신심과 기원을 담은 원불이다.



님'과 '현상적으로 보여지는 무결하고 성스러운 모습의 부처님', '중생제도의 역할을 보여주는 부처님', 이렇게 보기 때문에 석가모니부처님 한 분이 아니라 많은 명호名號의 부처님을 언급합니다.

## 나를 향상의 길로 이끄는 분이 곧 부처님이니

예전에 저는 많은 명호의 부처님을 '한 부처님의 다양한 모습으로 보아야 할까? 아니면 각각의 한 분으로 봐야 할까?'라는 의문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가만히 보면 이런 의문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어느 쪽으로 보든 다 맞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자녀를 둔 한 여성을 보더라도 자녀에게는 엄마이고, 남편에게는 아내이고, 부모에게는 딸이고 누군가에게는 친구로 불리듯 관계와 입장에 따라서 다양한 모습과 이름을 갖을뿐더러 그 역할도 다릅니다.

또 저마다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주위에 있고, 그분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어리석음과 부족함을 스스로 느끼고 개선해야겠다는 자극과 일깨움을 주는 분들이 도처에 있습니다. 이분들 때문에 내가 공부 수행의 필요성을 느끼고 발심發心하여 향상向上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면 이분들은 나에게선 선지식善知識과 같고, 스승과 같은 분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백련암 의식집 '예불대참회문'에 있는 '108배 참회예경문'에 맞춰 절을 하면 89분의 부처님의 명호를 접하게 됩니다. 그럴 때면 착잡한 마음과 함께 감사한 마음이 일어나곤 합니다. 나를 바라보는 누군가에게 저마다의 입장에서 보는 다양한 나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지금의 나를 어서 크게 바꾸어야겠다는 분심憤心이 들면서 이 부처님의 명호처럼 그런 존재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들곤 합니다. 때로는 관계 속에서 지금의 나로서 누군가를 대한다는 게 왠지 미안해지기 때문입니다. 감사한 측면은 미혹한 우리들에게 자극과 일깨움을 주면서 많은 부처님의 명호처럼 곳곳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부처님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면 희망이 솟기 때문입니다.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화엄경』의 선재동자가 구도행각을 나섰을 때 만나는 53의 선지식처럼 곳곳에서 자극받고 도움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 원불을 모시는 진정한 의미

불상佛像은 ‘부처’(깨달은 분)의 의미의 상징이기에 설명이 좀 길어졌습니다.

불자들은 불상으로 표현된 그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절절한 마음과 크나큰 가르침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과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고자 다짐합니다. 이 다짐이 곧 원력願力입니다.

따라서 불상 앞에서 나 자신을 숙이고 예경을 올림은 부처님의 마음 [불심佛心]과 가르침[불법佛法]에 대한 지극한 존경의 표현이고, 이런 예경의 마음은 스스로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에 흠뻑 젖어 들도록 하여 마침내는 나 자신을 부처님처럼 만들어 나가게 할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불상은 물질적 형상이긴 하나 그 상징적 의미로 인해 여전히 내 곁에서 나에게 법法의 가르침을 일깨워 주는 큰 스승의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비록 나무나 쇠로 조성된 상像이지만, 그 상을 대



사진 2. 흥국사 수월관음도의 선재동자. 구도행각 중에 만나는 53선지식이 바로 항상일로로 이끄는 부처님이 아니었을까?

할 때마다 나의 무명無明을 밝혀주고자 하는 큰 스승의 고구정녕苦口丁寧한 마음과 그 가르침을 떠올리고, 닦고자 하고,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난다면, 여전히 내게는 살아 있는 큰 스승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부처님의 형상, 즉 불상을 모시고 있는 이유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찰에 다니는 불자라고 자부하면서 부처님의 상을 대할 때 이런 마음을 갖기보다는 현세의 복福이나 갈구하는 행위를 한다면, 이는 거룩한 부처님의 상像을 불자 스스로 우상화偶像化하는 것이 됩니다. 큰 스승으로서의 상징물이 아닌 복이나 주는 하나의 신神의 형상으로 취급해 버리는 큰 허물을 짓는 셈이지요.

적어도 불자라 한다면 앞으로 법당에 들어가서 부처님의 상을 대할 때마다 다음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 1) 중생을 향한 한없는 당신의 자비심을 잊지 않겠습니다.
- 2) 중생의 무명을 밝혀주기 위한 당신의 한없이 높고 큰 가르침을 받들어 배우겠습니다.
- 3) 그리하여 궁극적으로는 나 자신도 당신처럼 되겠습니다.

각설하고, 부처님이 당신의 한없는 마음을 우리에게 펼쳐 보이시는 형태는 매우 다양하다고 했습니다. 중생에게 다가오는 모습은 어느 한 가지가 아닌 수만 가지입니다. 부처의 모습이 아닌 우리와 흡사한 보살의 모습으로도 오십니다. 소위 관세음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지장보살과 같은 ‘권화權化보살’님들이 그분들입니다.

이 권화 보살님들은 부처님의 또 다른 화신化身으로 여겨지면서 각각 저마다의 상징적 의미를 갖습니다. 대자비의 표상이신 관세음보살, 대지

혜의 표상이신 문수보살, 대행원력의 표상이신 보현보살 등등... 하지만 이렇게 각 보살님에게 붙어 있는 상징적 의미는 부처님이 우리들에게 펼쳐 보이고자 하는 마음 중에서 한 부분을 구체화시켜 보여주고자 한 것이기에, 그분들을 단순히 그 의미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관세음보살은 자비만 베푸시고, 문수보살은 지혜만 일깨우시고, 지장보살은 지옥고地獄苦 중생만 건져 내시는 분이대’라고 특정한 의미로만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인가 불자들에게 다가오는 각 권화 보살님의 이미지가 마치 어느 특정 분야만의 전문가처럼 인식되어 버린 측면이 있습니다.

지혜가 없는 자비는 생각할 수가 없고, 원력과 실천이 결여된 자비 역시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원력과 자비의 행 없이는 진정한 자기 정화를 이룰 수 없으며, 저 깊은 내면의 반야般若(지혜)도 끄집어내기 어렵습니다.

자기 정화의 완성을 의미하는 깨달음이라는 정상에 오르는 길은 여러 갈래가 있습니다, 각 길마다 나를 지도해 주는 본받아야 할 큰 스승들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화신이라 일컬어지는 권화 보살님들도 그런 분들이라 여기시면 됩니다.

따라서 내가 어떤 권화 보살님의 상징성에 큰 감화를 받았다면, 그 보살님을 내 신행 생활의 스승으로 삼아 그분의 대원력과 대자비심 그리고 대실천의 행을 본받아 나 자신에게도 구현하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원불願佛을 모심으로써 그러한 노력에 자극과 도움이 된다면 이보다 더 좋은 원불을 모시는 이유는 없겠지요. 古鏡

※정림사 일행스님의 글을 더 보실 분은 <https://cafe.daum.net/jeonglimsarang>을 찾아주세요.

## 법주사 부도림에서 만나는 역대 고승들



정종섭\_ 한국국학진흥원장

세존사리탑이 있는 공간에서 나와 언덕으로 조금 올라가면 비스듬한 바위에 흙을 파서 석비의 비신을 끼워 넣은 것이 눈에 띈다. 고려시대 자정국존慈淨國尊 미수화상 즉 자안子安 대사의 비이다. 그는 13세에 일선군一善郡의 원흥사元興寺에 출가하여 19세에 승과에 급제하고 29세에 삼중대사로 임명되어 유식학의 대가로 이름을 떨쳤다.

### 유식학의 대가 자정국존 자안대사

약관의 나이에 펼쳐 간 그의 막힘없는 유식론 강론은 승려들과 왕실이 모두 귀 기울여 들었다. 고려 법상종 교학의 대표적 고승으로 방대한 경론의 주해서를 찬술하였고, 원나라에까지 그 명성이 알려졌다. 미수화상을 보면, 신라시대 태현화상이 연상될 만큼 불교 경전과 교리에 관하여 당대 가장 뛰어난 교학의 선지식善知識(scholar)이었다. 당연히 그로 인하여 고려 후기에도 법상종이 큰 영향력을 가졌다.



사진 1. 법주사 자정국존비. 사진: 한국민족  
문화대백과사전.

그 시절 천태종에서는 백련사 출신의 정오丁午 대사가 개경에서 활약하였고, 선종에서는 충선왕이 양가도승통을 제수하고 충숙왕이 왕사로 봉한 가지산문의 보감국사 혼구 화상이 이름을 떨쳤다. 약간 옆으로 나간 이야기지만, 이 시절 이전에 고려 후기에는 강진의 백련사가 원묘국사圓妙國師 요세了世(1163~1245) 화상 이후 보조국사普照國師 지눌知訥(1158~1210) 화상이 정혜결사운동을 펼쳐 간 순천 송광사와 함께 고려불

교계를 주도하였는데, 백련사 출신의 원혜圓慧 대사나 정오대사가 개경으로 올라가 국사나 왕사로 활동을 하면서 한반도 남쪽 땅끝에 자리한 백련사의 사세는 내리막길로 접어들게 된다.

자정국존은 제25대 충렬왕忠烈王(재위 1274~1298, 1298~1308)과 징키스칸 Dschinghis Khan(1162~1227)의 손자인 원원 세조 쿠빌라이Khubilai Khan(1260~1294)의 딸 쿠틀룩켈리쉬忽都魯揭里迷失 즉 제국대장공주齊國大長公主(1259~1297) 사이에 태어난 제26대 충선왕忠宣王(재위 1298~1298, 1308~1313)과 충선왕의 둘째 아들 제27대 충숙왕忠肅王(재위 1313~1330, 1332~1339) 대에 승통과 왕사 등을 거쳐 1324년(충숙왕 11)에 국존에 책봉되었다.

고려가 몽골에 대하여 항전을 하다가 항복하고 원의 부마국駙馬國 즉 사위의 나라로 전락하여 자주성을 잃어버린 시기였다. 미수대사는 충렬왕에 의해 승통이 되었고, 특히 충선왕의 신임과 지지를 강하게 받아 석

교도승통釋敎都僧統과 오교도승통五敎都僧統이라는 최고의 승계를 받고, 승려로서는 유일하게 우세군祐世君이라는 봉호封號도 받는 영광을 누렸으며, 불교행정에 관한 최종 권한을 가지는 양가도승통兩街都僧統의 직도 부여받았다. 미수화상은 국녕사國寧寺, 응신사熊神寺, 장의사莊義寺, 유가사瑜伽寺, 동화사桐華寺, 중흥사重興寺 등에 주석하였고, 말년에 승직을 내려놓은 후에는 승통이 되기 전에 주석했던 법주사에 다시 돌아와 입적할 때까지 머물며 방대한 저술을 남겼다.

〈속리산법주사자정국존비(俗離山法住寺慈淨國尊碑)〉는 그가 입적한 후 15년이 지난 1342년(충혜왕 복위 3)에 건립되었다. 미수화상이 입적한 1327년부터 1330년까지는 충선왕과 대립한 충숙왕이 재위하였고, 1330년부터 1332년까지는 원나라가 충숙왕을 왕 자리에서 쫓아내고 세운 그의 아들 28대 충혜왕忠惠王이 재위한 기간이었다. 1332년부터 1339년까지는 다시 충숙왕이 재위하고 1339년부터 1344년까지는 또 충혜왕이 재위하는 등으로 고려 왕실은 사실 존재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였고, 고려는 원나라의 손아귀에 완전히 잡혀 있었다. 이런 혼란의 기간에 자정국존의 비도 차일피일 미루어지다가 세워졌다.



사진 2. 법주사 경내 부도림.

비의 건립은 유가종瑜伽宗, 즉 법상종의 미수대사의 문도들이 추진하였다. 비의 비문은 문신 이숙기李叔琪가 지었고, 글씨는 원나라에서 고려인을 뽑는 괴과魁科에서 장원 급제하고 집현전 태학사를 지낸 전원발全元發(?~1421) 선생이 명필다운 솜씨로 썼다. 고려시대에는 이 비에서 처음으로 법주사라는 명칭이 등장한다. 승탑은 왕명에 의하여 산호전 동쪽에 세웠다고 하는데, 오늘날에는 찾기가 어렵다.

당대 최고의 직위에 오른 국존의 비가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아무래도 이상하다. 원래는 이수와 귀부가 잘 갖추어진 비가 세워졌을 것인데, 어떤 이유인지는 잘 알 수 없으나 파괴되어 비신만 이곳 바위에 흠을 파고 끼워 넣어 둔 것이 지금까지 방치된 것으로 보인다. 귀부와 이수에 비신을 세워 비의 원래 모습으로 복원한 것을 박물관에 설치하고, 바위에는 그 안내판을 설치하면 좋겠다.

## 속리산사실기비와 벽암대사비

법주사에는 중요한 문화유산들이 부지기수로 많다. 주물로 만든 대형 철학鐵鑊(보물)은 큰 사발의 모양을 하고 있는데, 높이가 1.2m이고 지름

이 2.7m이며 둘레가 10.8m에 달한다. 국내 다른 곳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희귀한 것이다. 거대한 원형의 이 솥은 아무런 장식도 없고, 제작 연도나 제작자도 알 수 없다. 이런 큰 솥이 주조된 것은 법주사의 사세가 최고



사진 3. 법주사 대형 철학.

였을 때일 가능성이 크다. 용도는 밥을 짓거나 국을 끓이는 데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데, 야외에서 큰 법회 등 행사가 열렸을 때 사용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1723년 24세의 오원吳瑗(1700~1740)이 부친과 함께 충청도와 속리산 일대를 여행하고 기록한 「호좌일기湖左日記」에는 대웅보전 동쪽에 못을 파고 돌을 쌓은 우물과 같은 석옹石甕이 있고 그 동쪽으로 철학이 있고, 그 북쪽에 석조石槽가 있다고 하며, 모두 거대하다고 기술하고 있다.

금강문을 나와 수정교水晶橋를 건너오면 속리실기비각俗離實記碑閣 안에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1607~1689) 선생이 짓고 동춘당同春堂 송준길宋浚吉(1606~1672) 선생이 쓴 <속리산사실기비俗離山事實記碑>가 있다. 1665년(현종 5)에 세운 것으로 당대 최고의 권력자인 두 사람이 활동한 이른바 ‘양송兩宋시대’를 말해주는 듯, 양송의 이름이 함께 있는 비이다. 송준길 선생의 유려한 글씨를 잘 볼 수 있다.



사진 4. 송준길 글씨, 속리산사실기비.



사진 5. 벽암대사비.

그 옆에는 1664년(현종 5)에 세운 <벽암대사비명碧巖大師碑銘>이 있다. 비문은 춘추관 수찬관 동명東溟 정두경鄭斗卿(1597~1673) 선생이 지었다. 글씨는 명필인 오위도총부 도총관 낭선군朗善君 이우李僎(1637~1693) 선생이 썼고, 전서로 쓴 두전은 같은 도총관 이정李楨(1641~1680)이 썼다.

벽암대사는 그의 스승 부휴대사와 함께 임진왜란에서 승병을 지휘하여 전쟁을 치렀고,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에는 전란에 피해를 입은 전국의 사찰을 증창하는 일에 혼신의 노력을 하였다. 인조仁祖 때에는 팔도도총섭을 맡아 승려들을 이끌고 남한산성 축성 공사를 3년 만에 마쳤고, 1636년(인조 14) 병자호란이 발발했을 때에는 승병을 조직하여 또 적과 싸웠다. 법주사의 불상을 조성하는 일에도 참여하였다. 1646년(인조 24)에 동문인 희언熙彦(1561~1647) 화상과 함께 법주사에 들어와 머물기도 한 인연이 있어 1660년(현종 1) 벽암대사가 구례 화엄사華嚴寺에서 입적한 후에 이곳에 그의 비가 세워졌다.

## 신미대사와 복천암

법주사 본찰에서 나와 위로 가면 복천암福泉庵이 있다. 복천암은 신라 시대 720년(성덕왕 19)에 창건되어 고려시대와 조선시대까지 내려오면서 복천사로 불리면서 여러 차례 중수되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복천사 동쪽에 있는 샘에서 물이 많이 나와 복천이라고 불러 절 이름도 이렇게 지어졌다고 한다.

조선시대에는 세조가 1464년 2월 이 절에서 3일 동안 기도를 한 뒤 길목의 목욕소沐浴沼에서 목욕을 하고 피부병이 나왔다. 이를 계기로 절을 중수하도록 하고, 토지와 노비 등을 충분히 내리고 ‘만년보력萬年寶歷’이



사진 6. 복천암 전경.

라는 사각 옥판玉板도 하사하였다. 이때에는 1461년 6월에 왕명으로 간경도감刊經都監을 설치하여 훈민정음으로 많은 불경을 번역·간행하는 일을 주관하던 신미대사가 복천암에 내려와 주석하고 있을 때였다. 「복천사기 福泉寺記」도 동생인 김수온 선생이 지었다. 오늘날에는 세조가 행차한 이 당시의 일을 배경으로 하여 법주사 앞에서 복천암으로 가는 길을 ‘세조의 길’이라고 이름을 붙여놓았다.

신미대사는 세종의 신임을 배경으로 왕실불교를 공고히 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세종을 이은 문종도 불교를 존송하였다. 신미대사가 복천사를 고쳐 짓는 일에 충청감사가 지원을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조정의 사대부들은 날로 변창해 가는 왕실불교의 폐단을 지적하고 특히 승려로 하여금 공물을 대납하고 백성들에게 그 값을 받도록 하는 바람에 백성들이 겪는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이라며 상소도 계속 올렸다. 이때 사간원司諫院에서는 복천사가 너무 화려하게 지어졌고, 그 재목과 기와와 단청의 부담이 모두 백성들에게 돌아가 그 폐단과 원성이 극심하다는 상소도 올렸다.



사진 7. 공민왕 글씨 무량수 현판.

1592년에 불에 탔으나 중건하였고 그 후 다시 소실된 후 1735년(영조 11)에 다시 짓고 1803년(순조 3) 중수하였다. 조선시대에는

김극성金克成(1474~1540), 황준량, 임제, 정구鄭球(1543~1620), 김덕겸, 김창흡金昌翕(1653~1722), 이인엽李寅燁(1656~1710), 이하곤李夏坤(1677~1724), 강재항, 박윤원朴胤源(1734~1799), 정종로鄭宗魯(1738~1816) 등 많은 유학자들이 이곳을 찾아 글을 짓기도 하고, 강학을 하기도 하였다.

현존하는 건물로는 극락전과 나한, 선방, 요사채 등이 있다. 극락전은 1976년 해체·복원하였으며 내부에는 아미타불상과 후불탱화, 삼세불도, 신중도 등이 있다. 근래에 지은 복천암 건물에는 임환경林幻鏡(1887~1983) 화상이 90세에 쓴 「福泉禪院복천선원」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다. 내부의 복도에는 걸려 있는 복각한 현판 「無量壽무량수」의 글씨는 공민왕의 어필 御筆이라고 전한다.

복천암의 동쪽 산언덕으로 올라가면 200m 정도 떨어진 곳에 2기의 승탑이 서 있다. 뒤에 있는 것이 조선시대 초기에 활동한 수암화상秀庵和尚 신미대사의 부도탑이다. 기단부의 중대석에 승탑의 주인과 건립 시기를 적은 명문이 새겨져 있어 1480년(성종 11)에 세워진 신미대사의 승탑임을 확인할 수 있다. 탑은 팔각원당형의 양식을 한 것인데, 기단부의 하대석, 중대석, 상대석은 모두 8각으로 되어 있고, 공 모양의 탑신에는 아무런 장식이 없다. 옥개석은 팔모지붕 형태를 하고 있으며, 상륜부에는 구슬 모양의 보주만이 있다.

신미대사는 명문거족의 출신으로 복천사로 출가하였다. 세종 때 왕을 도와 궁 안에 내원당內願堂을 짓고 의례를 주관하며 왕실과 친밀한 관계



사진 8. 안동 만휴정.

를 가졌고, 세조 때에는 간경도감<sup>刊經都監</sup>의 사업을 주관하면서 큰 활약을 하여 왕의 두터운 신임을 받아 왕사<sup>王師</sup>에 책봉되었다. 신미대사 탑 옆에는 ‘학조등곡화상<sup>學祖燈谷和尚塔</sup>’이라고 새겨진 학조(1432~1514) 대사의 부도탑이 있다. 1514년(중종 9)에 세워졌다. 학조대사는 1464년(세조 10) 속리산 복천암에서 왕을 모시고 스승 신미대사와 함께 대법회를 열었고, 1467년(세조 13) 금강산 유점사를 중창하고 봉선사에 주석한 후 김천 직지사에도 머물면서 1488년(성종 19) 인수대비의 명으로 해인사를 중수하고 진관사, 대자사, 낙산사 등을 중수하였다. 1500년(연산군 6)에는 왕비 신씨의 명으로 해인사 고려대장경 3부를 이행하여 발문을 짓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였다.

안동 학가산<sup>鶴駕山</sup> 중대사와 애련사<sup>艾蓮寺</sup>에서 출가한 학조대사는 세조의 강한 신임을 받았으나 사대부의 공격을 받기도 했는데, 연산군 때까지 국사<sup>國師</sup>로 지냈다. 그의 아버지는 한성부판관 김계권<sup>金係權</sup>(1410~1458)이고, 연산군의 폭정에 대사간<sup>大司諫</sup>의 관직을 버리고 낙향하여 안동 묵계<sup>默溪</sup>에서 만휴정<sup>晩休亭</sup>을 경영하며 산 청백리의 모범인 보백당<sup>寶白堂</sup> 김계행<sup>金係行</sup>(1431~1517) 선생은 그의 숙부이다. 김계권의 후손은 이때부터 서울에 터를 잡고 살았는데, 청음<sup>淸陰</sup> 김상헌<sup>金尙憲</sup>(1570~1652) 선생과 조선 후기에 60년 동안 안동김씨(=장동김씨) 세도정치(1804~1862)를 주도한 김씨 세력이 모두 이 집안에 속한다. 이와는 대비되게 김계행의 후손들은 안동에 터를 잡고 평생 청백리 집안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다.

1514년(중종 9) 그의 부도탑은 복천암과 직지사에 세워졌다. 여기의 탑은 신미대사의 탑과 같이 팔각원당형을 하고 있고, 공 모양의 탑신에는 아무런 장식이 없다. 8각의 지붕 모양을 한 옥개석은 신미대사의 탑과 달리 낙수면<sup>落水面</sup>의 모서리마다 귀꽃이 조각되어 있다.

이 두 승탑은 탑의 주인공과 건립 시기가 새겨져 있는 것으로 중요할 뿐 아니라 고려에서 이어지는 조선시대 초기의 승탑 양식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문화재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훈민정음訓民正音의 창제를 두고 이 두 탑의 주인공이 창제했다는 주장과 그렇지 않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더 연구해 볼 문제이다.

정충필 선생은 속리산을 유람하였을 때 법주사를 들러 복천암에서도 하룻밤을 잤다. 법주사에서 말을 타고 10리 길을 가 복천동福泉洞 어귀에 이르렀는데, 거기서부터는 산이 깊고 길이 험하여 말이 10번 걸으면 9번 고꾸라질 정도였다고 했다. 복천암에 이르렀을 때 마중 나온 그곳 승려에게서 불이 난 후 암자를 다시 지을 때 담장과 섬돌을 궁중양식대로 했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바위벽에 있는 ‘福泉庵복천암’이라는 세 글자는 화마를 입어 ‘福복’ 자가 반쯤 지워져 있었다고 했다. 승려 행은幸恩의 안내로 동대東臺로 가서 부도浮圖 2기가 있는 것을 보고 돌아와 복천암에 묵었는데, 노전爐殿의 선환善環 화상으로부터 산중의 이야기를 듣기도 했다.



사진 9. 학조대사탑(앞)과 뒤의 신미대사탑(뒤).

일찍이 서사원 선생도 속리산을 유람하면서 복천암에 이르러 그 감회를 아래와 같이 시로 읊은 적이 있다. 서사원 선생은 한강寒岡 정구鄭述(1543~1620) 선생과 여헌旅軒 장현광張顯光(1554~1637) 선생 등과 교유를 하며 조선시대 대구 성리학을 실질적으로 출범시킨 중심 인물로 활동을 하였고, 임진왜란 때에는 팔공산회맹八公山會盟에서 의병장을 맡기도 했다.

심의인심혹 甚矣人心惑  
 난성이취감 難醒易醉酣  
 석문동태사 昔聞同泰寺  
 금견복천암 今見福泉庵  
 백료무한자 百僚無韓子  
 천관유구담 千官有瞿曇  
 승유변작악 勝遊變作惡  
 유결후래핍 留訣後來砭

심하구나, 인간 마음의 미혹됨이여  
 깨어남은 어려워도 취해 허우적대기는 쉽다네  
 양무제의 동태사 얘기는 그 옛날 듣기는 했어도  
 오늘 복천암을 와서 직접 보게 되었네  
 많은 관리 중에 불교를 배척한 한유는 없고  
 많은 사대부들이 붓대를 품고 있구나  
 좋은 경치 유람 다니는 일 오히려 악을 짓는 것이니  
 세상에 남긴 묘한 비결 뒷날 가르침이 되누나

북천암에서 밤을 지낸 정충필 선생은 선환화상의 안내를 받아 소암小庵과 중사자암中獅子庵의 옛터까지 올라가 보았으나, 길이 험하고 산 위의 날씨가 추워 문장대에는 오르지 못한 것을 못내 아쉬워하며 범주사로 내려와 심검당尋劍堂에서 유숙을 하였다.

중사자암은 인조仁祖(재위 1623~1649)의 생부인 원종대왕元宗大王(1580~1619)의 원당이였다. 1729년(영조 5)년에 박필기朴弼琦(1677~1757)가 올린 상소에 의하면, 이미 궁에서 내인內人 등이 오지 않은 지 오래되어 승려들이 허름한 건물에 아무렇게나 제단을 꾸며놓고 기일에 제사를 지내는 형편이라고 지적하고, 이는 승려들이 관역官役을 면하고자 하는 수작에 지나지 않으니 아예 퇴락한 제단을 없애 버리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였다.

정충필 선생은 심검당에서 밤을 보내고 다음 날 새벽 일찍 창을 열었다. 수정봉이 눈앞에 들어왔다. 이때 그는 눈앞에 펼쳐진 풍광에 취한 것이 아니라 남명선생의 「유두류록遊頭流錄」을 읊었다. 『주역周易』에 정통하며 유학자의 길을 걸었던 선생은 이곳에서도 올곧은 삶을 살아간 천하의 남명선생을 생각하고 대곡선생을 생각하였던 것이다! 현실에서 도피하는 것을 멀리 하고 모든 분야에 관해 탐구해 간 박학다식한 그가 먼 길을 떠나 속리산을 찾은 연유는 여기에 있었던 것이라.

수정교 다리를 건너 나올 때 돌난간에 기대어 절의 풍광을 바라보며 한참이나 서 있었다. 오랜 역사 속에서 각자 자기 시절을 치열하게 산 많은 현인들도 지금은 사라지고 없지만, 그들이 탐구하고 고민한 흔적은 우리에게 남아 있다.

그렇다. 인간의 삶이란 허무한 것이 아니고 현존재現存在(Dasein)로서 귀한 인연으로 형성된 것이니 진리를 등불로 삼아 진지하게 살아 볼 가치가 있는 것이다. 윤회가 있다면,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



은 어렵고도 어려운 인연이기에 이를 귀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인간 세상에서 인간은 누구나 평등하고 존귀하게 살아가는 존재이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 오늘날 헌법에 수용되어 있는 인간의 존엄(human dignity)이 그것이다.

다만, 현실에 존재하는 현상들[諸法]과 우리의 삶은 유有이지만, 이는 연기법에 의해 요소들로 형성되고 또 형성된 후에도 성주괴공成住壞空으로 항상 변하는 것이니, 현존재가 불변하고 영원한[常] 것이라고 착각하거나 집착하는 것은 진리에 어긋나는 것이다. 이러한 진리를 바로 체득하면 개인으로서도 항상 니르바나의 삶을 즐겁게 살아갈 수 있고, 인간 세상에서도 다툼이나 고통이 없게 된다. 인간은 서로에게 자비를 베풀고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게 된다. 인간이란 욕망의 주체이지만, 이렇게 하면 이타심이 힘을 발하는 세상이 실현될 수 있다. 혹여 살아가면서도 이러한 진리에 어긋나게 행한 것이 있다면 참회를 하여 바른 자리 즉 자신의 진면목으로 돌아가면 된다. 이러한 것이 어렵고, 생각이 복잡하고 산란하다면 번뇌를 없애면 해결되는데, 그 번뇌를 없애는 방법으로 가장



사진 10. 법주사 근래 부도전.

효과적인 것이 참선을 하는 것이다. 간화선(看話禪)이든 묵조선(默照禪)이든 이는 번뇌를 없애는 방법일 뿐 목적이 아니다. 행주좌와(行住坐臥) 어묵동정(語默動靜) 즉 일상생활 속에서 항상 성성(惺惺)하게 깨어 있는 삶을 살아 가면 된다. 모든 고통과 오류는 세상의 이치를 알지 못하는 무명(無明)에서 생겨나는 것이다. 이것이 붓다가 우리에게 일깨워 준 가르침이요, 진리이리라.

유학(儒學)(confucianism)은 현재 존재하는 현존재에 관한 학문이고, 그 너머에 대해서는 알 수 없기에 말하지 않을 뿐이다. 붓다는 인간에게 존재와 인식의 문제(철학의 문제)에서 답을 제시하고 연기법=연기원리를 처음 찾아내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제시한 점에서 그 수승(殊勝)함을 확인할 수 있다. 한자로 번역된 ‘공(空)(śūnyatā, Sūnyatā)’이라는 것은 이러한 원리를 말하는 것이리라. 古鐵

○ 정종섭 서울대 법과대학 졸업. 전 서울대 법과대학 학장, 전 행정자치부 장관, 현재 한국국학진흥원 원장. 『헌법학 원론』 등 논저 다수.

# 점문과 돈문의 발원지는 12연기



박태원\_ 울산대 명예교수

12연기를 형성하는 ‘조건들의 인과적 연관’은 두 가지 상반되는 맥락으로 이루어져 있다. 무명 연기와 지혜 연기가 그것이다. 무명 연기는, “무명<sup>無明</sup>을 조건으로 (무명에 매인) 의도 작용들[行]이, (무명에 매인) 의도 작용들[行]을 조건으로 (무명에 매인 의도 작용을 조건으로 삼는) **알음알이**[識]가 발생하고 …”라는 맥락이다.<sup>1)</sup> 지혜 연기는, “무명이 소멸하기 때문에 (무명에 매인) 의도 작용들[行]이 소멸하고, (무명에 매인) 의도 작용들[行]이 소멸하기 때문에 (무명에 매인 의도 작용을 조건으로 삼는) **알음알이**[識]가 소멸하고 …”라는 맥락이다.<sup>2) 3)</sup>

- 
- 1) 순관<sup>順觀</sup>의 내용이다.
  - 2) 역관<sup>逆觀</sup>의 내용이다.
  - 3) 『상윳따 니까야』 「연기 경(Paṭiccasamuppāda-sutta)(S12:1)/각목 번역 『상윳따 니까야』 제2권, pp.85-91; 「분석 경(Vibhaṅga-sutta)』(S12:2)/각목 번역 『상윳따 니까야』 제2권, pp.92-103. 필자가 번역문의 ‘의도적 행위들(行)’을 ‘의도 작용들(行)’로 고치고 괄호 내용을 삽입하였다.

## 12연기의 두 계열과 점문漸門·돈문頓門

지혜 연기의 구절은, “(사실 그대로 아는) 지혜가 생겨나기 때문에 ‘지혜와 함께하는 의도 작용’이 생겨나고, ‘지혜와 함께하는 의도 작용’이 생겨나기 때문에 ‘지혜와 함께하는 의도 작용에 따르는 알음알이[識]’가 생겨나며 …”라고 바꾸어 읽을 수 있다. <무명이 소멸한다>라는 것은 <지혜가 생겨난다>라는 말의 부정형 서술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혜 연기는 명지明知(vijja/ñāṇa, 사실 그대로 앎)가 드러남’이 조건이 되어 펼쳐지는 인식과 삶의 인과적 전개다.

무명 연기는 ‘무명이 조건이 되어 전개되는 인과 계열’이고, ‘무명이라는 전제가 유효한 인과 범주’다. 그런데 점문漸門은 <사실 그대로를 왜곡하는 관점·이해가 유효한 계열·범주> 안에 있으면서 사유·욕망·행위의 내용을 바꾸며 걸어가는 길>이다. ‘출발점에 이어지는 길 위에서 발길을 옮겨가는 행보’인 것이다. 따라서 무명 연기의 길은 점문漸門의 길이다. 무명 연기의 주체인 중생 인간은, ‘무명의 끈을 붙들고 가는 사유·욕망·행위의 인과 계열’인 점문의 길에서 삶과 세상을 구성해 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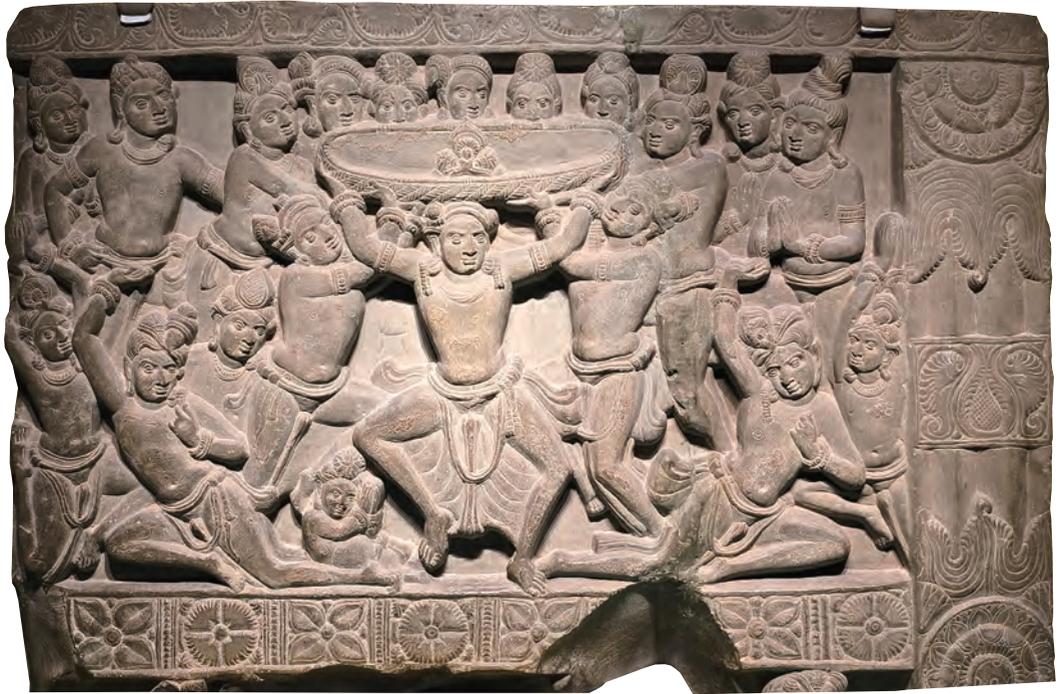
이에 비해 지혜 연기의 주체인 ‘구도의 보살 인간은, ‘무명의 끈을 붙들고 가는 길’로부터 ‘무명의 끈을 놓아버리는 길’로 ‘한꺼번에’ ‘통째로’ 옮겨간다. 무명의 끈을 잡고 가던 길을 버리고, 그 끈을 놓아버리는 새길로 발길을 옮긴다. 그리고 돈문頓門은, <관점·이해를 ‘사실 그대로에 상응하는 것’으로 바꾸어 기존 사유·욕망·행위의 계열·범주에서 한꺼번에 빠져나온 후, ‘사실 그대로에 상응하는 사유·욕구·행위의 계열·범주’에서 삶을 재구성하는 길>이다. 지혜 연기의 길과 돈문의 길은 ‘출발점이 달라

진 길 위에서 발길을 옮겨가는 행보라는 점에서 같다.

그런데 <무명의 끈을 놓아버린다>라는 것이, <무명에 오염된 삶>을 ‘명지의 삶’으로 완전히 바꾸었다>라는 의미는 아니다. <무명의 끈에 속절없이 질질 끌려다니지는 않게 되었다>라는 뜻이다. 12연기의 ‘지혜 연기’ 구절의 의미도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지혜 연기는, 해탈·열반을 완성하는 단선적 단층 인과가 아니라, 해탈·열반으로 이어지는 다층적 인과 계열이다. 나아가다가도 물러나고 물러났다가도 다시 나아가는 수행 길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 지혜 연기의 인과 계열에 진입한 이후에 비로소 ‘해탈·열반으로 나아가는 수행 길’에 오르는 것이다. 돈문 안에서 돈오頓悟와 점수漸修의 두 갈래 수행 길을 만나는 것과도 같다.

‘무명의 끈을 붙드는 사유·욕망·행위의 인과 계열’이 무명 연기이고, ‘무명의 끈을 놓아버리는 사유·욕망·행위의 인과 계열’이 지혜 연기다. 그런데 지혜 연기는 순전한 내용으로 완결되는 것이 아니다. 무명 연기가 다시금 수시로 끼어드는 길이다. 애써 놓았던 무명의 끈을 다시 붙들고 걸어가는 일이 반복되는 길이다. 그럴 때마다 다시 무명의 끈을 놓아버리려는 노력이 필요한 길이다. 돈문의 길에 들어서도 돈오와 점수의 수행을 거론할 수밖에 없는 것과도 같다.

‘점문의 길인 무명 연기’와 ‘돈문의 길인 지혜 연기’를 가르는 것은 무명이다. 점문의 길을 하염없이 걷는 것은 무명의 끈을 옮겨주기 때문이고, 돈문의 길에 오르는 것은 무명의 끈에 놓으려 하기 때문이다. 도대체 무명이 무엇이길래 인생길을 ‘점문의 길’과 ‘돈문의 길’로 가르는 것일까?



머리카락을 자르는 싯다르타 태자(3세기 말, 인도 뉴델리국립박물관, 스투파의 숲). 사진: 서재영.

## 무명無明(avijjā)은 언어인간 특유의 현상

인간의 모든 경험은 ‘인식적認識的’이다. ‘인식적 경험’이라는 말은, 〈언어를 통한 개념적 인지가 경험 발생의 토대 조건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리고 12연기의 무명 연기는 ‘무명에 매인 인식적 경험의 인과적 발생’을 설하고 있다. 따라서 무명 연기는, 〈언어에 수반하는 ‘사실 그대로 알지 못함’(무명無明, avijjā)에 매인 인식적 경험의 인과적 전개〉에 관한 통찰로 읽을 수 있다. 또 12연기의 지혜 연기는, 〈언어에 수반하는 무지

를 극복한 ‘사실 그대로 읽’(명지明知, vijñā/ñāna)에 근거한 인식적 경험의 인과적 전개)에 관한 통찰이다.

12연기를 ‘언어인간 특유의 인식적 경험의 문제’로 읽으면, 12연기가 지닌 ‘지금 여기의 삶에 관한 치유력’이 잘 드러난다. 특정 종교나 교파의 시선에 국한된 호소력이 아닌, 보편적·합리적 호소력을 지닌 의미 해석이 가능해진다. 12연기를 ‘과거생·현재생·미래생에 걸친 윤회의 태생학적 인과를 설명하는 것’이라 해석하는 부파불교 유부의 삼세양중인과설三世兩重因果說(과거생·현재생·미래생에 걸친 두 겹의 인과설)이 읽어 내는 의미와는 전혀 다른 뜻이 드러난다. 대승의 유식 연기나 『대승기신론』의 일심이문一心二門 연기는 12연기를 ‘언어인간 특유의 인식적 경험의 인과적 전개’로 읽는 시선에 부합한다.

## 무명의 핵심은 ‘언어에서 발생한 동일성 관념’

무명無明(avijjā, 산스크리트어 avidyā)은 √vid(알다)로부터 파생한 단어의 부정형으로, ‘알지 못함(ajñānam)’ 혹은 ‘어리석음(saṃmoha)’을 뜻한다. 따라서 ‘사실 그대로 알지 못함’, 즉 ‘이해의 근원적 결함’이 무명의 핵심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인도 전통철학에서는 무명을 ‘미혹 세계를 창조하는 환술적 힘(māyā)’으로 간주한다. 우파니샤드 전통의 인도 철학은 무명을 신비와 신화적 마술의 장막으로 감쌌다. 붓다는 그 장막을 벗겨버리고 무명을 ‘경험 현상의 사실 그대로를 왜곡하는 인식적 무지’로 포착했다. 무명을 언어인간의 진화 과정과 연관시켜 이해할 수 있는 ‘합리의 길’을 연 것이다.

무명은, 우주에 편만해 있으면서 세상을 만들어 내고 제멋대로 주무르는 거대 마법魔法이 아니다. 무명은 '세계에 대한 인간의 인식적 앎'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인간의 인식적 경험에 대한 여러 학문 분야의 탐구 성과는, '현상에 대한 인간의 이해'가 원초적이고도 장기적인 흐름을 안고 있음을 지적한다. 그 흐름의 핵심은 '동일성 관념에 의한 왜곡'이다. 세계의 모든 현상은 '관계와 변화'의 법칙에서 예외가 없다. '스스로 존재하는 독자적인 것'이거나 '불변의 것'은 본래 없다. 그러나 인간의 앎과 이해는 그런 현상에 '독자성'과 '불변성'을 부여한다. 언어 때문이다. '언어를 통한 차이·특징의 분류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동일성 관념'이다. 사물과 현상을 '독자적인 것' '불변의 것'으로 간주하려는 인식은 이 동일성 관념의 표현이다. '동일한 것'은 곧 '독자적이며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관계로 변화하는 현상들 가운데 유사한 것들을 하나로 묶어 같은 것으로 간주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 언어다. 유사한 차이나 특징들을 언어에 담아 같은 것으로 간주하면 무수한 차이·특징들의 구분과 비교가 쉬워지기 때문이다. 동일화로 인한 차이·특징들의 선명한 구분과 비교는 판단·평가·분석·예측 능력을 발현시키고, 급기야 '언어로 분류된 차이·특징'(개념)들 사이에 작동하는 법칙성을 포착하는 '이해 능력'을 고도화시킨다. '인간의 인식적 능력'은 그렇게 동일성 관념과 더불어 발전한 것이다.

무명의 '사실 그대로 알지 못함'은, '언어에서 발생한 이해 능력의 가장 깊숙한 지점에서의 흐름'이다. 그리고 그 흐름의 핵심부에는 '동일성 관념'이 자리 잡고 있다. 인간의 무지 가운데, '언어에서 발생한 동일성 관

념으로 모든 현상을 왜곡하는 것'보다 더 깊은 수준의 원초적 무지가 있을까? 무명은 <언어에서 발생한 동일성 관념' 때문에 사물과 현상에 대해 '사실 그대로 알지 못함'>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언어를 매개로 수립된 동일성 관념'이 무명無明(avijjā, 사실 그대로 알지 못함)의 구체적 내용을 발생시키는 핵심 조건이다. '언어에서 발생한 동일성 관념'과 그에 기초한 '사실 그대로 알지 못하는 관점과 이해' - 이것이 무명의 핵심이다. 그리고 언어인간이 다시 그 동일성 관념을 제거하는/제거한 것이 명지明知(vijjā/ñāṇa, 사실 그대로 앎)이다.

세계는 '가변적 조건에 따라 발생하는 현상[緣起法]'이기에 '변화와 관계의 세계'이다. 이러한 세계를 '동일성 관념'으로 채색하여 '불변의 것'·'독자적인 것'이라 오인하는 것, - 붓다가 무명이라 일컫는 것은, 이 사태에 대한 통찰과 직결된 것으로 보인다. 이 지점이 언어인간의 '사실 그대로 알지 못함'의 발원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현상을 동일성 관념으로 왜곡시키는 것도 언어능력 때문이고, 그 동일성 관념의 허구를 해체할 수 있는 것도 언어능력 때문에 가능하다. 언어인간이 '무명·윤회의 주체'인 동시에 '해탈·열반의 주역'이다.

무명의 핵심부에 자리 잡은 것을 '동일성 관념'이라 본다면, '무명 연기의 길'을 걷던 발길을 '지혜 연기의 길'로 통째로 옮기는 일이 '지금 여기'에서 가능해진다. '동일성 관념'을 바꾸면 되기 때문이다. 모든 현상을 '관계 속에서 변하는 조건에 의한 발생'으로 이해하는 연기 관념으로 바꾸면 '한꺼번에' 길을 옮길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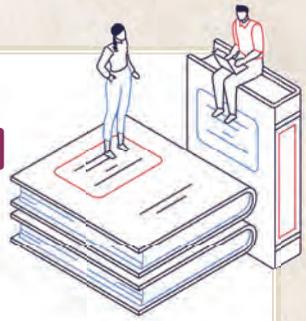
그런데 곧 난관에 봉착한다. 학습과 성찰을 통해 동일성 관념이 언어인간의 원초적 무지라는 점을 알게 되었다 하자. 그리고 연기법이 '사실

그대로'에 부합하는 도리라는 것을 알게 되어 '동일성 관념'을 '연기 관념'으로 대체하였다고 하자. '동일성 관념'이 비록 본능처럼 깊이 새겨진 것이라 해도 거부하고 새로운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적어도 이해와 관점의 측면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하여 '무명 연기의 길'을 버리고 '지혜 연기의 길'로 한꺼번에 발길을 옮겼다고 하자. 그러면 무명의 그늘, 그 동일성 관념의 지배력에서 완전히 해방되는가? 아니다. 이해와 관점이라는 지적 측면에서는 '한꺼번에 깨달음[頓悟]'이라 할 수 있는 변화가 있지만, 삶의 실재는 한꺼번에 변하지 않는다.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무명의 동일성 관념이 또다시 실존을 압도한다. <불변하는 독자의 것은 본래 없다>라고 알지만, 여전히 <나와 내 것을 '불변하는 독자적 소유물'로 확보하려는 사유·욕망·행위와 그로 인한 삶의 불안 및 훼손>이 일상을 이끈다.

이 난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모처럼 진입한 지혜 연기의 행보가 빛바랜다. 돈문의 길에서 누릴 수 있는 '진리다운 이로움이 제약된다. 어찌해야 하는가? 부처님이 알려주신 대로 하면 된다. '문제를 발생시키는 조건들'(연기緣起)에 대한 성찰에서 출구가 보인다. 이에 필자는 무엇보다도 '이해와 마음의 의미와 관계를 주목한다.'<sup>1)</sup>

○ **박태원** 고려대에서 불교철학으로 석·박사 취득. 울산대 철학과에서 불교, 노자, 장자 강의. 주요 저서로는 『원효전서 번역』, 『대승기신론사상연구』, 『원효, 하나로 만나는 길을 열다』, 『돈점 진리담론』, 『원효의 화쟁철학』, 『원효의 통섭철학』, 『선禪 수행이란 무엇인가? 이해수행과 마음수행』 등이 있다.

# 도서출판 장경각에서 펴낸 불서



## ■ 성철스님이 가려 뽑은 한글 선어록

- 선을 묻는 이에게(산방야화) | 14,000원
  - 선에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동어서화) | 14,000원
  - 참선 수행자를 죽비로 후려치다(참선경어) | 14,000원
  - 선림의 수행과 리더쉽(선림보훈) | 15,000원
  - 마음 닦는 요긴한 편지글(원오심요) | 18,000원
  - 송나라 선사들의 수행이야기(임간록) | 25,000원
  - 어록의 왕, 임제록(임제록) | 18,000원
  - 가려뽑은 송나라 선종3부록 ①(나호야록, 운와기담, 총림성사) | 22,000원
  - 가려뽑은 송나라 선종3부록 ②(인천보감, 고애만록, 산암잡록) | 20,000원
- ※각 도서는 e-book으로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 ■ 지혜로운 삶으로 인도하는 장경각의 불서

- |                                      |   |
|--------------------------------------|---|
| 명추회요(e-book)<br>회당조심   24,000원       | 밝은지혜 맑은마음<br>보광성주   10,000원   |
| 선 수행이란 무엇인가?<br>박태원   30,000원        | 나는 사람이 좋더라<br>연등국제선원   15,000원  |
| 불교와 유교의 대화<br>김도일 외   30,000원        | 역주 선림승보전(상, 하)<br>원철 역주   각 18,000원   |
| 조론연구·조론오가해(전6집)<br>조병활 역주   300,000원 | 불교, 과학과 철학을 만나다<br>김용정 저, 윤용택 역음   30,000원                                    |
| 조론<br>조병활 역주   18,000원               | Echoes from Mt. Kaya<br>(자기를 바로 봅시다 영문판)<br>Edited by ven. Won-taek   25,000원 |

# 한·중·일 삼국의 선禪 이야기

김방룡의 한국선 이야기

김진무의 중국선 이야기

원영상의 일본선 이야기

선  
禪



## 지눌의 생애와 세 번의 깨달음



김방통\_ 충남대학교 교수

‘K-명상’이란 말이 유행하고 있는데, 필자에겐 그 말이 잘 다가오지 않는다. ‘유명무실有名無實’하다거나 더 나아가 ‘유명무실唯名無實’하다는 생각마저 떠올리곤 한다. 그 이유는 ‘K-명상’이란 말과 ‘한국선’이란 말 사이에 존재하는 적지 않은 거리감 아니 이질감 때문이다.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선 수행법을 가지고 ‘K-명상’이라 해야 한다. 그렇다면 한국선의 정체성을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 것일까? 이에 대해 선학先學들은 보조국사 지눌知訥(1158~1210)의 선사상과 선 수행법에 주목해 왔다.

### 한국선의 정립

광종 대 법안종의 유입과 대각국사 의천(1055~1101)에 의한 천태종의 개창으로 인해 나말여초에 형성된 구산선문의 세력은 크게 약화되었다. 화엄종과 법상종 및 천태종 세력에 위축되었던 선종은 보조국사 지눌의 출현으로 인해 다시금 중흥기를 맞이하게 된다.

지눌이 쓴 『수심결修心訣』의 벽두는 이렇게 시작된다.

삼계三界의 뜨거운 번뇌가 불타는 집과 같다. 이 속에서 차마 어찌 그대로 머물러 오랜 고통을 달게 받겠는가? 윤회의 세계를 벗어나고자 하거든 부처를 찾는 길밖에 없고, 만약 부처를 찾으려면 부처란 바로 이 마음이다.<sup>1)</sup>



사진 1. 보조국사 진영. 사진 송광사.

수많은 선 수행자의 지남指南이 되었을 위의 두 문장 속에 한국선의 정수가 간직되어 있다면 지나친 말일까? ‘마음 닦는 비결(수심결)’이란 제목을 옆두에 두고 읽을 때 위 인용문의 의미는 더욱 분명히 다가온다. ‘불즉시심佛卽是心·심즉불心卽佛’에 대한 지눌의 확고한 신념을 읽을 수 있다. 마음의 체와 용이 ‘정혜定慧’이기에 ‘정혜’를 닦는 결사를 이끌었고, ‘수선사修禪社’라 이름이 바뀌게 된 것도 ‘수심修心’이 다름 아닌 ‘수선修禪’이기 때문이다.

구산선문 가운데 하나였던 사굴산문 종휘宗暉선사의 제자로 출가한 지눌은 일정한 스승이 없이 선방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수행하였고, 경전과 조사의 어록도 폭넓게 읽었던 것으로 보인다. “선은 부처님의 마음이

1) 知訥, 『牧牛子修心訣』(韓佛全 4, p.708b), “三界熱惱 猶如火宅 其忍淹留 甘受長苦 欲免輪迴 莫若求佛 若欲求佛 佛卽是心.”

요, 교는 부처님의 말씀이다. 따라서 선과 교가 둘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일치한다.”라는 말은 지극히 당연하다. 그러나 지눌은 당시 불교계를 주도하던 화엄종 승려들을 향해 이를 설득시키기 위해 3년간이나 대장경을 열람하였다. 그가 남긴 『원돈성불론(圓頓成佛論)』에는 그러한 노력의 결실이 고스란히 나타나 있다.

지눌이 한국선(韓國禪)의 중흥조, 한국선의 정립자로 추앙받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그것은 이론과 실천을 겸비한 사상가요, 조사이기 때문이다. 선교일치에 대한 경전적 근거를 토대로 화엄종의 승려를 설복시켰음에도, 지눌은 다시금 대혜종고가 주창한 간화선을 수용하였다. 지눌은 본분종사(本分宗師)의 언구(言句)를 지견(知見)의 병을 씻는 출신활로(出身活路)라고 본 것이다. 곧 관행(觀行)하는 화엄종 승려들이 생각을 잊고 마음을 비워 밝게 하지 못하고, 개념적인 이해나 이치들(義理)에 머무를까 걱정하였기 때문에 간화선을 수용한 것이다. 그러한 내용들이 『간화결의론(看話決疑論)』에 잘 나타나 있다.

## 김군수와 보조국사의 비문

원효가 화쟁·회통사상을 통해 한국불교의 초석을 다졌고, 의천과 지눌에 이르러 선과 교가 회통하는 한국불교가 정착되었다고 말한다. 그런데 의천의 교선일치(敎禪一致)와 지눌의 선교일치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점이 존재한다. 의천이 기획했던 교주선종(敎主禪從)의 한국불교의 성격을 지눌은 선주교종(禪主敎從)으로 뒤바꾸어 놓았다. 교와 선의 ‘주종(主從) 관계’를 바꾸어 놓음으로써 지눌 이후 한국불교는 새로운 방향으로 전개된다.

「개성 영통사 대각국사 비문」은 김부식(金富軾)이 지었고, 「불일보조국



사진 2. 개성 영통사 대각국사비.

사비문'은 김군수金君綏가 지었다. 『삼국사기』의 저자이자 묘청의 난을 진압하였던 김부식의 아들이 김돈중金敦中이며, 김돈중의 아들이 김군수이다. 정중부의 수염을 불태웠던 김돈중은 결국 1170년 정중부의 난이 일어나자 무신들에 의하여 잡혀 죽었다. 지눌의 비문은 희종의 명에 의해 김군수가 짓게 되었는데, 이러한 역사적 사실들을 생각하면 아이러니하기도 하다.

지눌의 사상체계를 돈오점수頓悟漸修로 볼 것인가, 아니면 성적등지문·원돈신해문·간화경절문의 삼문三門으로 볼 것인가? 이 두 관점은 보조사상을 이해하는 주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이다. 이중 삼문 체계를 통하여 보조사상을 밝힌 최초의 인물은 보조국사의 비문을 지은 김군수이다. 물론 이 같은 관점에는 혜심 등의 견해가 반영되어 있다. 그것은 “국사가 입적한 다음해에 법을 계승한 승려 혜심慧諶 등이 국사의 행장行狀을 갖추어 올리고 후세에 보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자 임금께서는 ‘그러라’ 하시고, 신토에게 명하여 그 비문을 짓게 하였다.”<sup>2)</sup>라는 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비문에 나타난 지눌의 삶은 세 번의 깨달음에 바탕하여 삼문을 시설

2) 金君綏撰, 「佛日普照國師碑銘」, “師 沒之明年 嗣法沙門慧諶等 具師之行 狀以聞 願賜所以示後世者. 上曰 俞. 乃命小臣 文其碑.”

하였고, 이를 통해 정혜결사(수선사)를 이끌었던 구도와 실천의 과정으로 압축할 수 있다. 김군수는 첫 번째 깨달음과 성적등지문, 두 번째 깨달음과 원돈신해문, 세 번째 깨달음과 간화경절문을 배대하여 지눌의 삶을 조망하고 있다.

## 첫 번째 깨달음

지눌은 8세에 동진 출가하여 17세에 수계 득도했다. 그리고 25세에 승려들의 과거시험인 승선(僧選)에 합격하게 된다. 승선에 합격한 지눌은 개경의 보제사(普濟寺)에서 열린 담선법회(談禪法會)에 참석하였지만, 동료 승려들에게 당시 타락한 불교를 바로잡기 위한 결사를 제안한다. 이에 10여인이 동참하기로 약속하였지만 본격적인 결사는 다음으로 미루고, 곧장 전라도 창평(昌平) 청원사(淸源寺)로 향한다.

현재 청원사가 어디인지 정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전남 담양에 있던 절로 추정된다. 청원사 시절부터 지눌은 선수행과 더불어 불교 경전에 대한 진지한 탐색에 몰두한다. 여기에서 지눌은 『육조단경』의 “진여자성이 생각을 일으키면 육근이 비록 보고 듣고 깨달아 알더라도 대상에 물들지 않고 항상 자재하다.”<sup>3)</sup>라는 대목을 통하여 첫 번째 깨달음을 얻게 된다. 이는 혜능이 자성정혜(自性定慧)를 주장하는 이론적 근거로써 이를 통해 지눌은 ‘성적등지(惺寂等持)’에 대한 확신을 지니게 된다.

---

3) 金君綬撰, 『佛日普照國師碑銘』, “偶一日 於學寮 閱六祖壇經 至曰「眞如自性起念 六根雖見聞覺知 不染萬像 而眞性常自在。」乃驚喜 得未曾有 起繞佛殿 頌而思之 意自得也。”

## 두 번째 깨달음

청원사에서 3년을 지낸 지눌은 28세(1185)가 되던 해에 하가산下柯山 보문사普門寺에 도착한다. 하가산은 지금은 학가산鶴駕山으로 불리며 보문사는 경북 예천군 보문면 수계리에 있다. 그곳에서 지눌은 3년 동안 대장경을 열람한다. 선종의 승려로서 이렇게 경전을 열심히 보게 된 이유는 당시 불교계의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당시 화엄종의 승려들은 그들의 교판론에 입각하여 돈교인 선종은 원교인 화엄종보다 열등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지눌의 입장에서는 선종이 화엄종과 같은 진리를 표방하고 있음을 경전을 통하여 입증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통현의 『신화엄론』을 통하여 지눌은 선과 화엄의 교리가 서로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확신에 이르게 된다. 이를 계기로 지눌은 이통현의 화엄론을 절묘하였고, 또한 『원돈성불론圓頓成佛論』을 저술하여 화엄의 관행을 통한 성불론과 선 수행을 통한 성불론이 다르지 않



사진 3. 예천 학가산 보문사 전경. 사진: 파란나라.



사진 4. 팔공산 거조사 영산전. 사진: 서재영.

음을 밝힌다. ‘원돈신해문圓頓信解門’의 가르침은 이러한 체험을 통해 나타난 것이다.

31세(1188)가 되던 해에는 팔공산 거조사居祖寺로 자리를 옮기었는데, 이는 예전에 보제사에서 추후 함께 결사結社를 서원하였던 득재得材의 권유에 의한 것이었다. 거조사는 현재 경북 영천시 청통면 신원리에 소재하고 있으며 은혜사의 산내암자이다. 지눌은 이곳에서 『권수정혜결사문勸修定慧結社文』을 짓고 정혜결사의 기치를 올리게 된다. 결사문은 “땅에서 넘어진 사람은 땅을 딛고서 일어난다.”는 유명한 구절로 시작하는데, ‘마음이 부처’라는 전제 아래 선정과 지혜를 함께 닦는 수행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근본 취지였다.

## 세 번째 깨달음

송광사로 결사의 도량을 옮기기에 앞서 41세(1198년)가 되던 해에 지눌은 몇몇 선승들과 함께 지리산의 상무주암에 머물며 정진한다. 이곳에서 지눌은 선 수행과 더불어 간화선을 완성한 대혜종고大慧宗杲



사진 5. 지리산 상무주암.

(1089~1163)의 어록을 열람하게 된다. 10년 전 보문사에서 화엄과 선의 사상적 일치점에 대한 확신을 얻었지만, 그때까지도 알음알이[知解]의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고 있었다.

지눌은 『대혜어록』의 “선禪은 고요한 곳에 있지 않고 또한 소란한 곳에 있지도 않다. 일상의 인연에 따르는 곳에 있지도 않고 생각하고 분별하는 곳에도 있지 않다. 그러나 먼저 고요한 곳, 소란한 곳, 일상의 인연에 따르는 곳, 생각하고 분별하는 곳을 버리지 않고 참선參禪해야 홀연히 눈이 열리고 모든 것이 집안의 일임을 알게 되리라.”<sup>4)</sup>라는 구절을 보는 순간 세 번째 깨달음이자 궁극적인 깨달음을 얻게 된다. 분명 경전을 매개로 한 깨달음이자 스승의 지도 없이 이루어진 깨달음이라 할 수 있지만 10년 동안 가슴속에 품었던 ‘의단’이 타파되는 순간이었다. 지눌이 『간화결의론』의 저술을 통하여 대혜의 간화선 수행법에 대한 다양한 의문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이 같은 자신의 체험이 반영

4) 金君綬撰, 『佛日普照國師碑銘』, “至居智異 得大慧普覺禪師語錄云「禪不在靜處 亦不在鬧處 不在日用應緣處不在思量分別處, 然 第一不得 捨却靜處鬧處 日用應緣處 思量分別處矣, 忽然眼開.”

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다. 대혜의 간화선은 지눌에 의하여 수용되고 정착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 본격적인 결사와 열반

세 번의 깨달음 이후 지눌은 43세(1200년)가 되던 해에 순천 송광사로 자리를 옮긴다. 그리고 1205년에 희종熙宗이 명을 내려 산의 이름을 송광산에서 조계산으로, 결사의 이름을 정혜결사에서 수선사修禪社로 바꾸게 하였다. 이후 수선사는 15국사를 배출하면서 한국불교의 중심 도량으로 우뚝 서게 된다.

지눌은 1210년 음력 3월 27일에 열반에 들었는데, 세수 53세요, 법랍法臘 36세였다. 화장하여 유골을 수습하였는데, 뼈는 모두 오색이었으며, 큰 사리 30과와 수많은 작은 사리들이 나와 수선사 북쪽 기슭에 부도를 건립하였다. 희종이 이 소식을 듣고 슬퍼하며 ‘불일보조국사佛日普照國師’라 시호하고 그 탑을 ‘감로甘露’라 하였다. **古鏡**



사진 6. 순천 송광사 보조국사감로탑.  
사진: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김방룡** 충남대학교 철학과 교수. 전북대 철학과 학부, 석사 졸업, 원광대 박사졸업. 중국 북경대, 절강대, 연변대 방문학자. 한국선학회장과 보조사상연구원장 역임. 『보조지눌의 사상과 영향』, 『언어, 진실을 전달하는가 왜곡하는가』(공저) 등 다수의 저서와 논문이 있다.

## 운문종의 가풍과 일자관



김진무\_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연구교수

운문종을 창시한 문언의 법계는 청원계靑原系의 설봉의존을 계승하고 있다. 그러나 문언이 깨달음을 얻은 것은 목주도종睦州道踪이며, 17년간을 행각하던 문언에게 영수사靈樹寺에 정착하게 하고, 입적하면서 주지를 물려주어 법을 펼칠 수 있게 배려해 준 이는 지성여민知聖如敏이다. 목주도종이나 지성여민은 모두 백장회해百丈懷海의 재전再傳 제자이다.

세간의 친족으로 따지자면 여민은 문언의 5촌 아저씨가 된다. 이로부터 보자면 여민이 어째서 문언을 정착하게 도와주고, 주지의 지위를 물려주었는가 하는 의문이 해소된다. 엄밀하게 논하자면, 남악계 법계를 계승한 여민이 어느 정도 대립적인 입장



사진 1. 운문문언雲門文偃(864~949) 선사.

인 청원계 설봉의존의 법계를 계승한 문언을 중시했으며, 입적하면서 황제에게 주지의 지위를 청했다는 점은 사실상 조금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로부터 문언은 청원계의 사상보다 오히려 마조-백장으로 전승되는 남약 계통의 선사상을 제창하고 있을 가능성이 더욱 크다.

## 『운문광록』과 그 편제

문언의 선사상은 제자인 수견守堅이 편집한 『운문광진선사광록雲門匡眞禪師廣錄』 상·중·하 3권에 담겨 있다. 그렇지만 편집자인 수견에 대한 기록은 보이지 않으며, 현재 대장경에 실린 『운문광록』에는 희녕熙寧 병진丙辰 3월 25일에 소해蘇澥가 찬술한 서문이 붙어 있다.<sup>1)</sup> 희녕 병진년은 1076년이기 때문에 문언이 입적(949)한 지 120여 년이 지난 이후에 출간되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운문광록』 첫머리에 실린 소해의 「서」에는, “세상에 전하는 어록에는 대기對機, 실록室錄, 수대垂代, 감변勘辨, 행록行錄이 있었는데, 세월이 오래되어 혹은 어긋난 부분이 있었다. 지금 (그 이전에 나온 것들을) 참고하여 새롭게 교정된 판본을 발간하니, 영원히 전해지도록 하겠다.”<sup>2)</sup>라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문언의 어록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으며, 이때 이를 참고하여 새롭게 출간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운문광록』은 상권에 소해의 「서序」와 「대기對機」 3백 20칙, 「십이시가

1) [宋]守堅集, 『雲門匡眞禪師廣錄』 卷上(大正藏47, 545a), “熙寧丙辰三月二十五日, 權發遣兩浙轉運副使公事蘇澥序.”

2) [宋]守堅集, 『雲門匡眞禪師廣錄』 卷上(大正藏47, 545a), “其傳於世者, 對機、室錄、垂代、勘辨, 行錄歲久或有差舛. 今參考刊正一新鏤板, 以永流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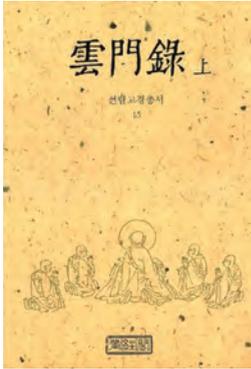


사진 2. 『운문록』 상·하(장경각  
선림고경총서).

十二時歌, 「계송偈頌」 등이 실려 있고, 중권에는 「실중어요室中語要」 1백 85칙, 「수시대어垂示代語」 2백 90칙이 실려 있으며, 하권에는 「감변勘辨」 1백 65칙, 「유방유록遊方遺錄」 31칙, 「유표遺表」, 「유계遺誡」, 「행록行錄」, 「청소請疏」 등이 실려 있으며, 하권 말미에는 덕산연밀德山緣密이 찬술한 「송운문삼구어頌雲門三句語」와 「여송팔수餘頌八首」가 실려 있다. 따라서 이 어록을 통한다면 문언의 선사상을 여실하게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를 모두 논함은 지나치게 번거로운 일이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인 문언의 선사상을 고찰하고자 한다.

우선, 소해의 「서」의 첫 구절은 다음과 같다.

조사의 등불이 서로 이어져 내려온 지 수백 년 사이에 중류衆類를 벗어나고 인륜을 뛰어넘고, 고금을 초월하여 묘함을 다하고 신통함을 다하여 천하에 도를 펼친 이는 몇 사람일 뿐이다. 그 가운데 운문雲門 대종사大宗師가 특히 최고이다. 잡아들이고 놓아주고[擒縱] 긍정함과 부정함[舒卷]이 종횡으로 변화하였다. 강과 바다를 열어 물고기와 용龍이 수영하는 방법을 얻었고, 하늘과 땅을 끊어 귀

신이 다닐 길이 없었으며, 초목 또한 마땅히 머리를 조아리고, 흙과 돌이 그것을 위해 빛을 발하였다.<sup>3)</sup>

이로부터 운문문언 선사에 대한 극도의 찬탄과 그 선사상이 활달하다는 평가를 엿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평가는 『인천안목(人天眼目)』 권 2에서 보이는 임제종을 평가하는 “권서(卷舒)와 종금(縱擒), 살활(殺活)이 모두 자재(自在)하였다.”<sup>4)</sup>라는 구절을 떠올리게 한다. 물론 북송대에 활동한 소해가 남송대에 찬술된 『인천안목』을 볼 수는 없었지만, 후대에 ‘권서’, ‘종금’ 등은 임제종의 특질을 논할 때 많이 사용되는 구절이다. 어쩌면 소해의 안목에서 운문종과 임제종을 유사하게 본 것이라는 의구심이 드는 것은 분명하다.

후대에 문언의 선사상을 ‘운문고고(雲門高古)’, 혹은 ‘중류(衆流)를 절단하고 정해(情解)가 통하지 않음’이라고 평가한다. 이러한 문언의 사상적 특질은 아마도 목주도종으로부터 깨달음을 얻었던 것에 기인한다고 유추할 수 있다. 사실상 많은 선사가 제시한 선사상에 자신이 처음 깨달음을 얻었던 것과 관련한 내용이 주를 이루는 경우가 많이 보인다.

예를 들어 마조도일은 남악회양으로부터 벽돌을 갈아 거울을 만든다는 계기로부터 깨달음을 얻어 ‘선비좌와(禪非坐臥)’를 유행시켰으며, 위산영우는 백장이 화로에서 찾아낸 불씨를 통해 깨달음을 열고서 ‘진불여여

---

3) [宋]守堅集, 『雲門匡眞禪師廣錄』 卷上(大正藏47, 545a), “祖燈相繼, 數百年間, 出類邁倫, 超今越古, 盡妙盡神, 道盛於天下者, 數人而已。雲門大宗師, 特爲之最。擒縱舒卷, 縱橫變化。放開江海, 魚龍得游泳之方; 把斷乾坤, 鬼神無行走之路, 草木亦當稽首, 土石爲之發光。”

4) [宋]智昭集, 『人天眼目』 卷2(大正藏48, 311b), “卷舒縱擒, 殺活自在。”

眞佛如如'를 제창했고, 동산양개는 운암담성으로부터 '즉저개시卽這個是'의 말을 듣고서 흐르는 물에 비친 그림자를 보고 깨달음을 열어 '보경삼매寶鏡三昧'를 제시하였다. 이처럼 선사들은 자신이 처음 깨달음을 얻은 기원과 관련된 선사상을 제창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보인다.

앞에서 『행록』에 보이는 목주도종을 참알한 것을 언급했지만, 『운문광록』 권하에 실린 『유방유록遊方遺錄』에는 다음과 같이 좀 더 상세하게 언급되고 있다.

운문선사가 처음 목주도종 선사를 참알하고자 가는데, 목주가 선사가 오는 것을 보자 바로 문을 닫아 버렸다. 선사가 문을 두드리자 목주는 “누구인가?”라고 물었고, 선사는 “접니다.”라고 답하였다. 목주가 “무엇 하러 왔는가?”라고 묻자 선사는 “기사(記事)가 아직 분명하지 않으니, 선사께 지시(指示)를 바랍니다.”라고 하였다. 목주는 문을 열고 한 번 보고는 바로 선사를 물리치고 문을 닫았다. 이처럼 3일을 계속하여 문을 두드렸는데, 3일째에 이르러 목주가 문을 열자 선사는 바로 들어가려고 하자 목주는 선사를 움켜잡고 “말하라! 말하라!”라고 하였다. 선사가 머뭇거리자 목주는 문을 밀면서 “진나라 시대의 쓸모없는 물건이로다.”라고 하자 선사는 이로부터 깨달음에 들었다.<sup>5)</sup>

5) [宋]守堅集, 『雲門匡眞禪師廣錄』 卷下(大正藏47, 573b), “師初參睦州蹤禪師, 州纔見師來, 便閉却門. 師乃扣門, 州云: 誰? 師云: 某甲. 州云: 作什麼? 師云: 已事未明, 乞師指示. 州開門一見便閉却師. 如是連三日去扣門, 至第三日州始開門, 師乃擲入, 州便擒住云: 道道! 師擬議, 州托開云: 秦時轆轤鑽. 師從此悟入.”



사진 3. 운문산 광태선사 대웅전.

이로부터 문언이 깨달았음을 알 수 있으며, 이후 몇 년 동안 목주의 처소에서 머물렀다. 이러한 문언의 깨달음은 이후 학인들을 제접提接하는 과정에서 보이는 ‘일자관一字關’과 상당히 관련이 있다고 하겠다.

### 운문의 일자관—字關

『운문광록』에는 다음과 같은 문답이 보인다.

문: 어떤 것이 일구一句입니까?

답: 거舉.

문: 어떤 것이 선禪입니까?

답: 시분.

문: 아버를 죽이고 어미를 죽이면, 부처 앞에 향하여 참회하는데,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죽이면, 어떤 곳을 향해 참회합니까?

답: 로露.

문: 부모가 허락하지 않아 출가를 얻지 못하니, 어떻게 출가합니까?

답: 천淺.

문: 평생 악업을 쌓고 선업을 알지 못하고, 평생 선을 쌓고 악을 모  
르니, 이 뜻이 어떠합니까?

답: 촉燭.

문: 어떤 것이 운문검雲門劍입니까?

답: 조祖.

문: 어떤 것이 운문雲門의 일로一路입니까?

답: 친親.

문: 어떤 것이 도道입니까?

답: 거去.<sup>6)</sup>

『운문광록』에는 이외에 이러한 한 글자로 답하는 경우가 상당히 다양하게 보인다. 그런데 여기에서 운문의 답은 사실상 질문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굳이 의미를 찾고자 한다면 찾을 수도 있겠지만, 과연 그것이 운문의 의도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이 일자관의 핵심은 학인에게 질문의 내용과 관련이 있거나 없거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글자 자체로부터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게 하고, 단편적인 언어의 의미를 초탈하여 지견知見과 망상妄想, 정식情識을 타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

6) [宋]守堅集, 『雲門匡眞禪師廣錄』卷上(大正藏47, 546a~552c), “僧問: 如何是一句? 師云: 舉. … 問: 如何是禪? 師答: 是. … 問: 殺父殺母, 向佛前懺悔; 殺佛殺祖, 向甚麼處懺悔? 師云: 露. … 問: 父母不聽, 不得出家, 如何得出家? 師答: 淺. … 問: 一生積惡不知善, 一生積善不知惡, 此意如何? 師答: 燭. … 問: 如何是雲門劍? 師答: 揭. … 問: 如何是雲門一路? 師云: 親. … 問: 如何是道? 師答: 去.”

한다고 볼 수 있다.

사실상 이는 목주가 문언에게 말하라고 강요하다가 “진나라 시대의 쓸모없는 물건이로다.”라고 내뱉었고, 문언이 그 말에서 깨달음을 얻었던 것과 연계하여 이해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목주의 말도 사실상 그 상황의 흐름에 맞는 말이라고는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운문광록』에는 학인의 질문에 여러 글자로 답하는 경우도 많이 나타난다. 예를 들자면 다음과 같다.

문: 어떤 것이 운문의 일곡一曲입니까?

답: 선달 이십오일이다.

문: 어떤 것이 학인의 자기自己입니까?

답: 산을 유람하며 물에서 논다.

문: 어떤 것이 법신法身을 꿰뚫는 구句입니까?

답: 북두칠성 속에 몸을 감췄다.

문: 무엇이 진진삼매塵塵三昧입니까?

답: 발우鉢盂 속의 밥과 통桶 속의 물이다.

문: 어떤 것이 눈 내린 산에 진흙소가 우는 것입니까?

답: 산과 강이 달아난다.

문: 일념一念이 일어나지 않으면 또한 잘못이 없습니까?

답: 수미산須彌山이다.<sup>7)</sup>

---

7) 앞의 책(大正藏47, 545b~547c), “問: 如何是雲門一曲? 師答: 臘月二十五. … 問: 如何是學人自己? 師云: 遊山翫水. … 問: 如何是透法身句? 師答: 北斗裏藏身. … 問: 如何是塵塵三昧? 師云: 鉢裏飯, 桶裏水. … 問: 如何是雪峯泥牛吼? 師答: 山河走. … 問: 不起一念, 還有過也無? 師云: 須彌山.”



사진 4. 운문산 광태선사비.

이러한 문답도 사실상 일자관과 같은 의도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질문에 대한 답이 올바른가 하는 점은 전혀 중요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문답을 굳이 해석하고자 한다면, 학인들에게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묻고 있는 본질이 더욱 중요하며, 이를 통하여 자신의 정해情解를 제거하여 본래면목本來面目을 명확하게 보라는 것이라 하겠다. 그 때문에 문언은 “들고[擧] 돌아보지 않으면, 바로

어긋나버리니, 헤아려보려 한다면 어느 겁에나 깨닫겠는가?”<sup>8)</sup>라고 설파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측면에서 운문은 철저하게 의심을 경계하고 있으며, 이른바 ‘의심즉차擬心即差’를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에 따라 이에 이어서 그를 논하고자 한다.<sup>中</sup>

8) 앞의 책(大正藏47, 553c), “擧不顧, 卽差互; 擬思量, 何劫悟.”

○ 김진무 동국대 신학과를 졸업하고, 중국 남경南京대학 철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부교수 역임. 현재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한국연구재단 학술연구 교수. 저서로 『중국불교 거사들』, 『중국불교사상사』 등이 있으며, 번역서로 『조선불교통사』(공역), 『불교와 유학』, 『선학과 현학』, 『선과 노장』, 『분동선』, 『조사선』 등이 있다.

## 무소유의 미학을 뿌리내린 간잔 에겐



원영상\_원광대 교수

교토의 묘심사파妙心寺派는 홈페이지에서 생활신조와 신심의 법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먼저 생활신조는 아래와 같다.

- ① 하루 한 번은 조용히 앉아서 몸과 호흡과 마음을 조절합니다.
- ② 인간의 존엄을 깨닫고, 자신의 생활도 타인의 생활도 소중히 합니다.
- ③ 삶을 이뤄가는 자신에게 감사하고 보은행을 쌓아 갑시다.

신심의 법문은 아래와 같다.

- ① 나의 몸을 이대로 공손으로 관하고 조용히 앉아 봅시다.
- ② 중생은 본래 부처라고 믿으며, 모시고 배례하며 갑시다.
- ③ 사회를 마음의 화원花園이라고 생각하며 조화롭게 살아갑시다.

### 임제종 최고의 사찰 묘심사

선종사찰로서 부드러운 언어로 선의 본질과 지향점을 정확히 대중에



사진 1. 교토 묘심사妙心寺. 사진: READYFOR.

게 전하고 있다. 자신의 본질을 깨닫고 사회공동체와 더불어 살아가는 길을 안내하고 있다.

임제종 묘심사파는 현재 탑두(암자) 46곳, 말사 3,400여 곳, 승려 수는 7천여 명에 이른다. 임제계의 단일 종파로는 최고라고 할 수 있다. 역사 속에서도 묘심사의 이름이 들락날락하지 않은 적이 없을 정도로 그 활력은 일본 열도에 넘치고 있다. 임제의 전통이 대부분 끊어진 가운데 사자상승의 전통이 잘 이뤄지고 있다. 전승이 유지되는 힘은 어디에서 나왔을까. 근원을 찾고자 한다면 시조를 봐야 하지 않을까.

## 남북의 전란을 바람처럼 관통한 수행자

그는 무공용無功用的 수행력을 보여준 간잔 에겐關山慧玄(1277~1360)이다. 나가노현 출신의 간잔은 1307년 30살에 건장사 난포 조묘의 문하에 입찰하여 에겐慧眼의 불명을 받았다. 이후 여러 선승의 가르침을 받고, 마침내 슈호 묘초를 사사, 1327년 50세에 운문의 관자공안을 투과하여 깨달음의 인가를 받았다. 이때 간잔의 호를 받고 에겐慧玄으로 개칭했다. 현대까지도 명맥이 유지된 오토칸應燈關의 계보를 완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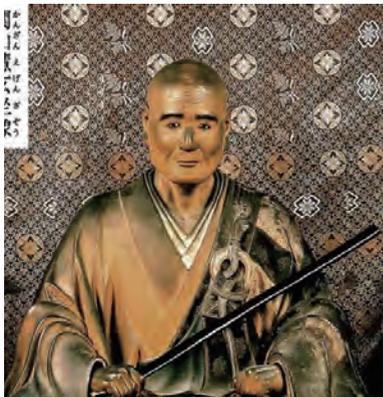


사진 2. 간잔 예겐 선사 좌상. 사진: 묘심사.

이후 보림을 위해 기이현에서 초암을 짓고 은둔에 들어갔다. 1337년, 불심 깊은 하나조노 법왕이 참문을 위해 슈호에게 선승 추천을 의뢰했다. 그리고 별궁을 선원으로 만들고 개당법사를 의뢰했다. 슈호는 간잔을 추천하고 선원의 이름은 정법正法 묘심사로 정했다. 간잔은 법왕에게 설법하며 제

자들을 지도했다. 다시 산속으로 은거에 들어갔지만 왕명에 의해 주지를 맡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면 간잔의 삶이 평범하게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그 시대를 이해하고 나면 결코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간잔이 살았던 시대는 12세기 말에 시작된 가마쿠라 막부의 통치를 이어 남북조(1337~1392)로 갈라져 정쟁이 일어났다. 간잔은 이 시기의 전반기를 살았다. 두 명의 왕을 옹립하며 교토의 북조와 요시노吉野의 남조가 패권을 둘러싸고 대립한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왕위 계승을 둘러싼 내분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왕과 귀족, 그리고 무사들의 권력 쟁투였다.

하나조노 법왕은 북조의 편에 서 있었다. 대규모의 전란으로 국가는 피폐해졌다. 남북조가 합의에 의해 합일을 이루고, 이어 북조를 지원한 무로마치室町 막부가 국가의 권력을 확보했다. 막부는 오랜 역사를 가진 신사神社의 세력을 끌어들이는 남조와 귀족 세력에 대항하기 위해 선종을 후원하고 교토 5산제를 성립시켰다. 하나조노 법왕 또한 북조의 편에 섰다. 자칫하면 일생이 불운에 빠질 뻔했던 간잔은 당당한 수행으로 그 시대를 관통하고 전화위복으로 삼을 수 있었다.

간잔은 사세의 확장을 위해 사찰의 경영에 조금도 관심을 갖지 않았다. 한번은 그의 고향에서 세력을 가진 무사가 찾아왔다. 방장에 비가 새는 것을 보고 수선비용을 보시하겠다는 말을 했다. 그러자 간잔은 그에게 두 번 다시 오지 말라고 일렀다.



사진 3. 하나조노 법왕 초상. 사진: 묘심사.

가사의 고리에 칩냉쿨을 사용했다고 한다. 어록이나 초상 등도 남기지 않았다. 있다면 후대의 것이다. 오직 수행일변도의 삶으로 일관한 것이다. 따라서 그의 사상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가 거의 없다. 1360년 84세의 간잔은 여행을 떠날 준비를 제자에게 알리고, 묘심사의 풍수천風水泉 근처의 나무 아래에서 유계를 읊었다. 그리고 선 채로 열반에 들었다. 그의 육성은 그때 남긴 『무상대사 유계無相大師遺誡』만이 전해지고 있다. 무상대사는 메이지明治 왕이 내린 시호다. 간잔 선사상의 일말은 여기에서 유추해 볼 수 있다.

## 하해 같은 스승의 은혜를 잊지 말라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먼저 난포 조묘와 슈호 묘초의 행장을 말한다. 난포가 험난한 바다와 산을 넘어 송나라에서 정자사의 허당지우를 만나 대오확철했다. 2년 후 귀국하는 난포에게 허당은 열반의 길을 깨달은 그가 일본에서 많은 고덕을 배출할 것이라는 서신을 주었다. 임제종 양기파의 정법을 일본에 전한 공덕은 측량할 수 없다.

슈호는 교토와 가마쿠라에서 활약한 난포의 제자로서 그를 모시며 참선에 매진하고 보통의 수행자를 뛰어넘는 고승으로서 풍격風格을 갖추었다. 철저한 수행의 결과 대오하고, 오후悟後 수행을 명령받아 20년간 성태장양에 들어갔다. 석존 입멸 후 말법이 횡행하는 지금 선종의 포교에 진력하며, 불법의 진실한 가르침을 추락시키지 않았다. 우리 제자들도 현재 지도편달을 받아 노력하고 있다. 그 공덕은 상찬을 넘어서 있다. 하나조노 법왕의 칙명에 의해 묘심사를 개창했지만, 슈호가 마치 어린아이에게 입으로 밥을 부드럽게 씹어서 주듯이 우리 수행자들을 성심성의로 단련시켰기 때문에 이 인연이 맺어졌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스승의 은혜를 강조했다.

지금부터 앞으로 우리 법손이 번영하여 제자가 넘쳐나 언젠가 우리에 대해 잊어버리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러나 다이오大應·다이토大燈 양 국사의 은애恩愛를 잊어서는 안 된다. 만약 보은 감사를 잊어버린다면, 그 제자들은 나의 법손은 아니다. '간잔 예젠의 법손을 잇는 자다'라고 말해서는 안 되며, 그것을 나는 결코 허용하지 않는다.

석존 이래 불생불멸의 불성을 깨우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그 혜명을 전해준 스승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이렇게 절절히 각인시키고 있음에 저절로 고개가 숙여진다. 나의 육체를 낳아준 분은 부모이지만, 내 존재의 법성과 그것에 의거하여 나의 고귀함과 절대성을 각성시켜 준 스승들의 은혜는 온 심신을 다해 떠받들어도 갚을 수 없다.

## 나의 근본을 밝혀라

그는 “너희들에게 부탁한다. 그 근본에 노력하라. 너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기사구명(記事究明), 즉 나라는 것은 누구인가, 그것을 철저히 밝혀내는 일이다.”라고 설한다. 그리고 백운수단이 옛날 백장회해가 선종 도량의 규칙을 정비했다는 것에 대한 큰 공적에 감복하였고, 호구소룡은 백운수단이 남긴 훈계(訓戒)를 찬탄하여 봉독했다. 이처럼 과거 선사들의 행장이나 보은행은 많이 남아 있으며, 그들의 은애를 느끼고 자신의 훈계로 삼았다. 마지막으로 수행에 매진할 것을 당부하는 아래와 같은 유언을 남겼다.

어리석게 앞을 딛 뒤에 그 나무가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것처럼 본말전도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일상의 수행을 소홀히 하지 말고, ‘나는 누구인가’를 일심으로 추구하는 것, 결코 불법의 근본 뜻을 잊어서는 안 된다.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라는 질문을 현대인은 하지 않는다. 나를 밝히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밑창 없는 신발과 같다. 가장 원초적이고 가장 단순한 문제를 잊고 사는 이 시대에도 커다란 경종의 외침이다.

이렇듯 간잔이 제자들에게 내린



사진 4. 주오 소히츠 초상. 사진: 천수원(天授院).

공안은 ‘본유원성불本有圓成佛 하고위미도중생何故爲迷倒衆生’이다. 즉,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존귀한 불성을 지니고 있는데 어떻게 하여 범부가 되어 헤매고 있는가?”라는 것이다. 이는 조동종의 도젠이 품었던 질문과 유사하다. 본각의 차원에서는 이미 깨어 있지만, 삶은 여전히 중생의 세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선의 초심자라면 응당 품을 수 있는 의문이다. 어떤 공안보다도 강력한 투과의 힘을 얻을 수 있다. 간잔의 뒤를 이어 묘심사 2조가 된 주요 소히츠授翁宗弼(1296~1380)에 대한 간잔의 인가 내용을 보면 그 뜻을 잘 알 수 있다. 인가된 해는 열반에 들던 해였다.

## 본유원성本有圓成의 공안을 뚫어라

주요는 본유원성의 공안을 참득하여 투기계投機偈(깨달음의 경지를 읊은 계)를 올렸다.

이 마음은 한결같아 일찍이 잃어버리지 않았다. 사람과 하늘을 이  
 의 주는 일은 영원한 미래, 불조의 깊은 은혜는 보사報謝하기 어렵  
 다. 어떻게 말의 배[馬腹]와 나귀의 태[驢胎]에 들지 않을 수 있으랴.”

— 『묘심사명보도록妙心寺名寶圖錄』

말의 배와 나귀의 태는 『선문염송』 8권의 일호一毫편에 나온다. 분주汾州는 “만일 털끝만큼이라도 범부와 성인의 분별이 남아 있으면 나귀의 태나 말의 배에 들지 않을 수 없느니라.”라고 하고, 백운단白雲端은 “설사 털끝만 한 범부와 성인의 분별까지 다 했더라도 나귀의 태와 말의 배에 들지 않을 수 없으리라.”라고 설한 것이다.



사진 5. 묘심사 개산당. 사진: 묘심사.



사진 6. 묘심사 불전. 사진: 묘심사.

분주무업은 체를, 백운수단은 용을 강조한다. 주오는 성불과 제증이 하나임을 설파하고 있는 것이다. 묘심사의 가풍은 이처럼 표리일치를 제일로 삼았다. 무인소인無因宗因, 닛포 소순日峰宗舜, 기텐 겐쇼義天玄承, 셋코 소신雪江宗深 등이 사자상승하여 전통을 확립했다. 묘심사는 1339년 무사들의 권력 쟁투인 오에이應永의 난에 연루되는 바람에 사찰이 폐쇄되었지만, 법기를 기르는 전통을 중시한 덕분에 다시 번영했다.

간잔의 법어는 전승된 몇 마디 외에는 없다. 그럼에도 무주도교無住道曉가 1283년에 편찬한 불교설화집인 『사석집沙石集』에는 “본조本朝에는 필적할 수 없는 선철禪哲”로 그를 꼽고 있다. 문자 그대로 그림자 없는 행적임에도 세상이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의 법화 한두 가지는 전해지고 있다.

어느 때, 내참에 온 승려가 “무상신속, 생사의 대사를 질문하러 왔습니다.”라고 묻자, “에겐의 밑에는 생사는 없다.”라며 봉으로 때리고 내쫓아버렸다. 생사 분별의 망상을 방망이로 지워버린 것이다. 17세기에 명나라에서 건너와 일본 황벽종의 종조가 된 은원옹기隱元隆琦는 간잔이 활용한 공안인 “백수자화柏樹子話에 적기賊機가 있다.”는 일구를 듣고 몸

이 떨렸다고 한다.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을 묻는 것에 대한 조주종심의 ‘뜰 앞의 잣나무[庭前柏樹子]’는 널리 알려진 공안이다. 천상천하유아독존의 세계를 보여준 독야청청의 경지를 보여준다. 무심의 절대적 경지에 선 자는 상대방의 분별심과 집착심을 일거에 뺏어버리는 도적의 힘이 있음을 전하고 있다.

## 흔적을 남기지 말라

평범한 일본인들의 심성에는 부를 자랑하거나 명예 높이는 것을 꺼리는 마음이 있다. 그러한 전통은 일본선의 가르침에 의한 영향일 것이라고 본다. 사후에 삶의 흔적마저도 가져가 버리는 결말이 바로 인생이다. 간잔은 이러한 전통을 확립한 인물이다. 만송행수의 『종용록』에는 “발밑의 흔적을 지우고, 소식을 끊는다. 백운의 뿌리는 없으며, 청풍은 무슨 색이 있는가.”라는 구절이 있다.

번갯불보다 짧은 삶은 덧없다. 일생 그 무엇을 지향했더라도 거품처럼 사라진다. 어떤 것을 성취했더라도 그것은 집착의 대상에 지나지 않는다. 대자연은 자신의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삶의 미학이 따로 있지 않다. 그러나 그 한 소식의 향기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우주로 퍼져나간다. 간잔이야말로 존재를 의미를 진실하게 투득透得한 선사인 것이다. ㉔

○ 원영상 원불교 교무, 법명 익선, 일본 교토 불교대학 석사, 문학박사, 한국불교학회 전무회장, 일본불교문화학회 회장, 원광대학교 일본어교육과 조교수. 저서로 『아시아불교 전통의 계승과 전환』(공저), 『佛敎大學國際學術研究叢書: 仏敎と社會』(공저) 등이 있다. 논문으로는 「일본불교의 내서널리즘의 기원과 역사, 그리고 그 교훈」 등이 있다. 현재 일본불교의 역사와 사상을 연구하고 있다.

목

오후 7~9시

## 교리학과반

사찰예절, 불교 문화예술,  
탱화 건축 양식 그리고  
불교심리상담 등을  
공부합니다.

수

오후 7~9시

## 경전반

성철스님의 사상과  
불교의 경전들을  
더 깊이 있고  
체계적으로 공부합니다.



화

오후 7~9시

## 전통사경반

붓끝으로 전하는  
필사의 예술 사경(寫經)  
「부처님의 향기」를 그린다.

2025년도  
고심정사  
불교대학

신입생  
수시모집



부산 중구 대청로135번길 20 Tel.051-464-8450

## 【 12월 고경 후원 명단 】

### ● 1만원

강갑순 강길영 강나연 강선희 강은선 강철례 고분자 고은영 권경연 권봉숙  
 김기봉 김명숙 김사청 김삼용 김상호 김상훈 김석호 김성동 김숙희 김순옥  
 김연기 김영숙 김영화 김용제 김정희 김중배 김지수 김창식 김청원 김현미  
 김현숙 나영규 남상태 남정숙 노영희 도순자 도은숙 박경희 박동실 박성훈  
 박은영 박정섭 박정숙 박춘화 박향순 백정윤 사공순옥 서만선 서임숙 서재영  
 서정일 서정한 석필순 선전이 성창훈 손유정 신동규 신현장 심재형 심현미  
 심희정 안국스님 안승희 양복여 양영미 엄철순 연안성 오판석 우위숙 유복희  
 유숙희 유옥례 윤경자 윤성빈 윤재옥 이귀형 이명숙 이민준 이석락 이수옥  
 이윤기 이은서 이은숙 이인순 이재혁 이지수 이지훈 이한선 이화자 이효정  
 이희숙 임말순 장나희 장춘자 전경숙 전보영 정백기 정연지 정유진 정은숙  
 정중섭 정태선 정휘태 조기린 조난희 조미화 조성하 조증기 조한나 조형춘  
 차재욱 최남미 최병희 최재실 하홍준 한복려 함지애 허보금 홍세미 홍현주  
 황성자

● 2만원 강미경 강차선 석문숙 안순균 이우병 한창우

● 3만원 무주상 문기섭 박소은 불과선원 성덕혜 신장교 안혜련  
 양윤정 이을순 이창우 이채윤 이흥경 천경덕 청봉  
 고심정사불교대학제6기 고심정사불교대학제11기

● 5만원 강귀석 김경희 김점순 대영매 박삼철 이수영 정경희 정두식

● 10만원 고재환 김영신 김인경 도대현 류순자 문선이 법원성 송석용  
 아비라카페 정안사

● 12만원 정복실 조정국

● 25만원 장금선원

● 30만원 법륜사 삼정사 월륜사 청량사

● 50만원 겁외사 고심정사신도회 길상선사 김규현 이종옥 정심사 정인사 정혜사

● 100만원 고심정사 백련거사림 해인사백련암

## 【 12월 성철스님 법어집 법보시 동참자 】

● 1만원 김중구 무주상 박헌찬

● 2만원 도은숙

● 5만원 박삼철

● 10만원 노영화

## 『고경』 구독 및 후원 안내

성철 큰스님의 가르침을 널리 펼 수 있도록 『고경』을 후원해 주십시오.

### ◎ 본인 구독 또는 지정 기부

여러분의 후원금은 부처님의 정법을 널리 펴고, 성철 큰스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데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후원하신 분들은 『고경』을 직접 구독하시거나 군부대 등 불교 관련단체를 지정하여 『고경』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 ◎ 후원 금액 및 방법

월납 : 매달 1만원 이상의 금액을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연납 : 매년 10만원 이상의 금액을 연 1회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방법 : 본 페이지 뒷면의 후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편집실로 보내주시거나 홈페이지(www.songchol.com)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 ◎ 『고경』 후원 및 보시 관련 계좌

국민은행 006001-04-265260 예금주: 해인사 백련암.

농협 301-0126-9946-11 예금주: 해인사 백련암.

문의 : 『고경』 편집부 02-2198-5375

## 성철 스님 법어집 법보시 안내

‘우리 곁에 왔던 붓다’ 성철스님의 가르침이 담겨 있는 법어집과 『고경』을 군법당 등 포교 현장에 적극 보급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말씀과 성철스님의 가르침이 널리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기다립니다.

※ 법보시 동참 현황은 매월 『고경』을 통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아래 계좌로 입금하신 후 『고경』 사무실로 연락주십시오.

■ 법보시 동참 계좌    농협 301-0191-0851-21    예금주 : 해인사 백련암





**앞표지**

부처님의 성도지 부다가야의 아침 기도.  
하지권 작.

**뒤표지**

초전법륜도.  
84×65cm, 비단에 천연안료. 황채상, 2023년 작.

# KOKYUNG 142

古 지혜를 전하는 말씀  
鏡 마음을 밝히는 수행



을사년乙巳年\_ 불기佛紀 2569년\_ 단기檀紀 4358년  
Monthly Magazine\_ February 2025\_ Volume 142  
[www.sungchol.org](http://www.sungchol.org)  
First published in May 2013\_ First 2013  
Buddhist Institute of Sungchol Thought (BIST)

